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1 연차보고서

KOSME Annual Report 202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1 연차보고서
KOSME Annual Report 2021 

Contents

01

발간사 0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요

설립목적 및 역할	08
연혁	10
중진공 비전·전략	12
중진공 주요 사업	13
2021 한눈에 보는 중진공	14
2021 중진공이 걸어온 길	16

02

2021년 경제 동향과 중소벤처기업 동향

경제 동향	20
중소벤처기업 동향	23

03

2021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추진 성과

총괄	26
정책자금	28
글로벌화 및 수출마케팅 지원	70
인력양성 및 창업	110
지역산업 혁신	134

04

2021년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혁신 성과

고객서비스 향상 및 사회적가치 실현	154
조직 경영 효율성 강화	164

05

2022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추진 방향

2022년 사업추진 방향	174
---------------	-----

부록

결산 재무제표	180
조직도	186
운영위원 및 임원	188
출자회사 현황	190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194

중소벤처기업이 경제구조 전환의 주역으로 빛날 수 있도록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GDP와 고용이 회복되고, 수출과 무역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액 1,171억 달러, 수출증가율 16.2%라는 신기록을 달성하고, 취업자 수도 전년과 비교했을 때 10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경제회복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선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동행하였습니다.

중진공은 2021년 한해 정책자금 6조원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에 앞장섰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원자재 수급차질, 물류 부담 등 위기상황별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위한 맞춤형 적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확대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그린뉴딜 분야 및 비대면 유통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2조원을 집중 지원하고, 탄소중립수준진단 및 ESG자가진단을 신규 개발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혁신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선복부족 및 운임급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중진공은 국적선사와 장기운송 협약을 체결하여 선복을 지원하고, 특송사와 협업해 운임 부담을 완화하는 민·관 협력 기반 전방위 물류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K-방역 전담케어를 가동하고 진단키트, 백신 등 K-방역 영위 중소기업을 발굴·연계 지원하여 글로벌 백신 허브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심화되는 고용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고용유지플러스자금 등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신설·확대하고, AI 구인구직 매칭, 비대면 화상면접 지원과 같은 일자리 매칭플랫폼 기능 고도화를 통해 중소기업 고용회복을 견인하였습니다.



지역산업의 미래경쟁력 확보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산업 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 17개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이어달리기식으로 지원하였으며, 탄소저감 건설소재 특구 신규 지정 등 규제자유특구 확대를 통한 지역중소기업 실증기술 개발에 기여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중소기업은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ESG경영 확산 등 사회경제구조는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중진공은 이러한 변화가 중소기업에게 장애물이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경제구조 전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최일선에서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중진공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이 연차보고서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4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 Annual Report 2021

- ✓ 설립목적 및 역할
- ✓ 연혁
- ✓ 중진공 비전·전략
- ✓ 중진공 주요사업
- ✓ 2021 한눈에 보는 중진공
- ✓ 2021 중진공이 걸어온 길

설립목적 및 역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79년 1월 30일 설립된 자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중진공은 중소기업 창업 촉진, 산업 균형 발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설립 및 기금운용 근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3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기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한다.

제68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은 1978년 설치 이후,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산업기반기금 등 정부 부처 및 기관별로 산재된 중기지원 기금이 통합되어 탄생한 중소벤처기업 지원 대표 공공기금이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운영현황



중진공은 중진기금을 기반으로 민간 금융권이 지원을 기피하는 창업기업·소기업 중심으로 정책용자를 공급하는 등 경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청년CEO 양성, 투융자복합금융, 구조혁신지원, 재기지원 등 고위험영역을 선도적으로 지원하여 민간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역할】



연혁

History

1979 ~ 1994	1995 ~ 2006	2007 ~ 2016	2017~
<p>1979.01 중소기업진흥공단 설립 (7부 3실, 195명으로 발족)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및 기금 설치('78.12)</p> <p>1982.10 중소기업연수원(안산) 개원 * 6개 연수원('21.12 기준)</p> <p>1985.02 국내 지역본·지부 설치 * 전국 33개 지역본·지부 ('21.12 기준)</p> <p>1989.09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 수행 *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p> <p>1993.04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한 구조개선사업 실시</p> <p>1993.12 창업보육센터 설립</p>	<p>1995.07 (주)SBC인증원 설립</p> <p>1995.12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p> <p>1998.09 IMF 경제위기상황에 따른 직접대출 전면실시</p> <p>1998.09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BI 설치 * 12개국 20개소('21.12 기준)</p> <p>2000.01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공공기금 전환</p> <p>2005.06 한국벤처투자(주) 설립</p>	<p>2007.04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 개소</p> <p>2008.06 정책자금 융자 및 해외마케팅지원창구 단일화</p> <p>2009.0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지정</p> <p>2011.03 청년창업사관학교 개교 * '18년 전국 17개소로 확대</p> <p>2014.07 본사 지방이전 완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p> <p>2014.08 중소벤처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범 * 중소벤처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기금 설치('14.1)</p>	<p>2017.03 기업인력애로센터 개소 * 전국 17개 지역본부에 설치 ('21. 12 기준)</p> <p>2018.06 (주)중진공파트너스 설립</p> <p>2019.04 기관 명칭 변경 발효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p> <p>2019.06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전국 18개 지역 확대 운영</p> <p>2019.09 KSC 2개소 개소 (미국 시애틀, 인도 뉴델리)</p> <p>2020.07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개소</p> <p>2020.11 규제자유특구 전담기관지정</p> <p>2022.02 구조혁신지원센터 개소</p>

중진공 비전·전략체계



중진공 주요 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

양극화 해소를 통해
지속성장 발전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을
경제구조 전환의 주역으로
육성

☑ 정책자금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안전망이 되는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용자지원	투융자복합금융	기업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공유형대출 스케일업금융 모태조합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구조혁신지원

☑ 글로벌화 및 수출마케팅 지원

중소벤처기업 수출물류 애로해소 및 온라인마케팅 확대로
수출성과를 극대화하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수출마케팅 지원	온라인수출 지원	글로벌화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바우처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청년글로벌마케터 글로벌조달마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수출플랫폼 전자상거래수출시장 진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화지원플랫폼 글로벌협력기반구축 APEC중소기업혁신센터 해외지사화 해외기술교류

☑ 인력양성 및 창업

미래산업 인력양성, 중소기업 인식 개선 및 일자리 매칭, 장기재직 유도로
인력난을 해소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창업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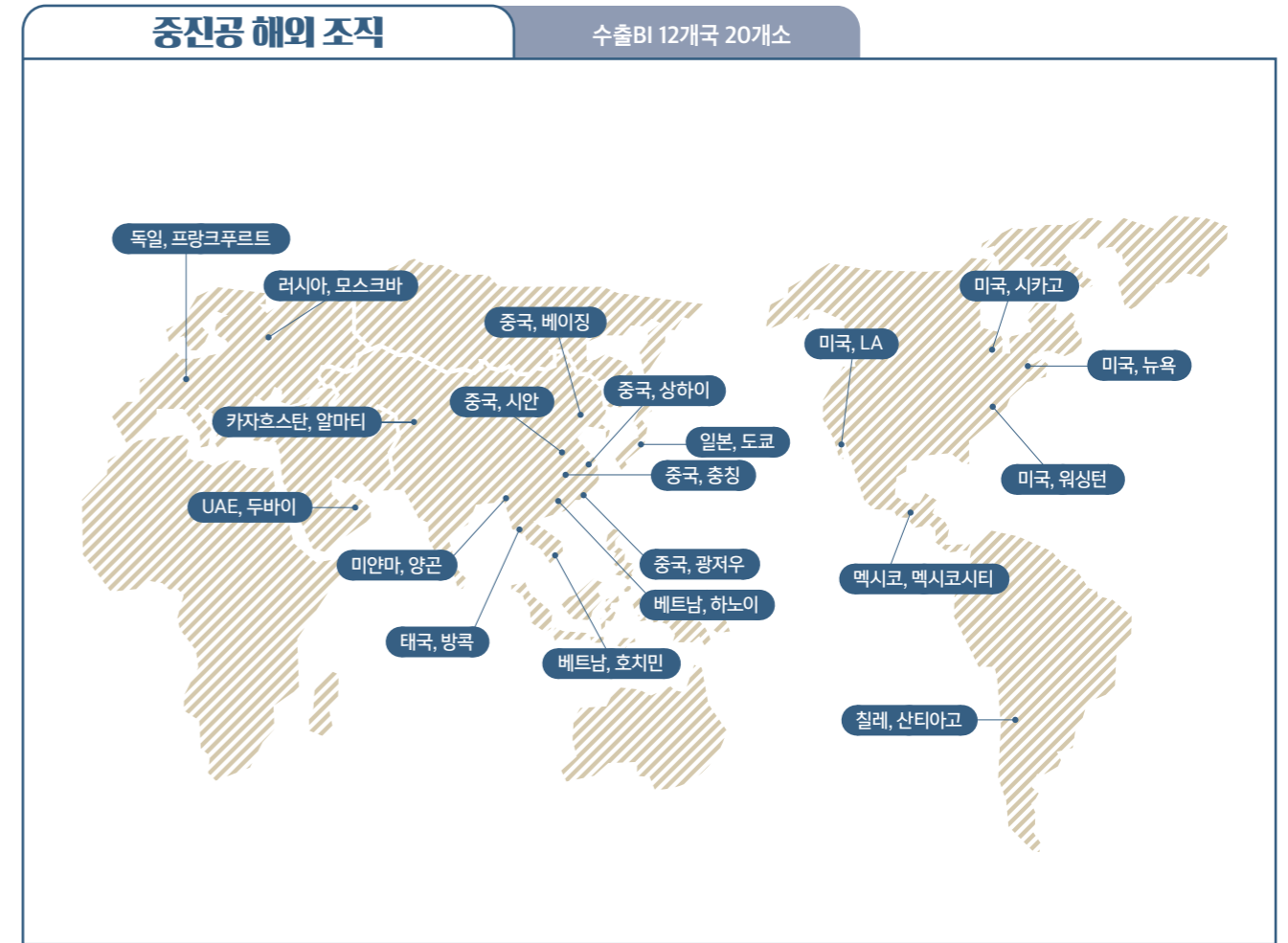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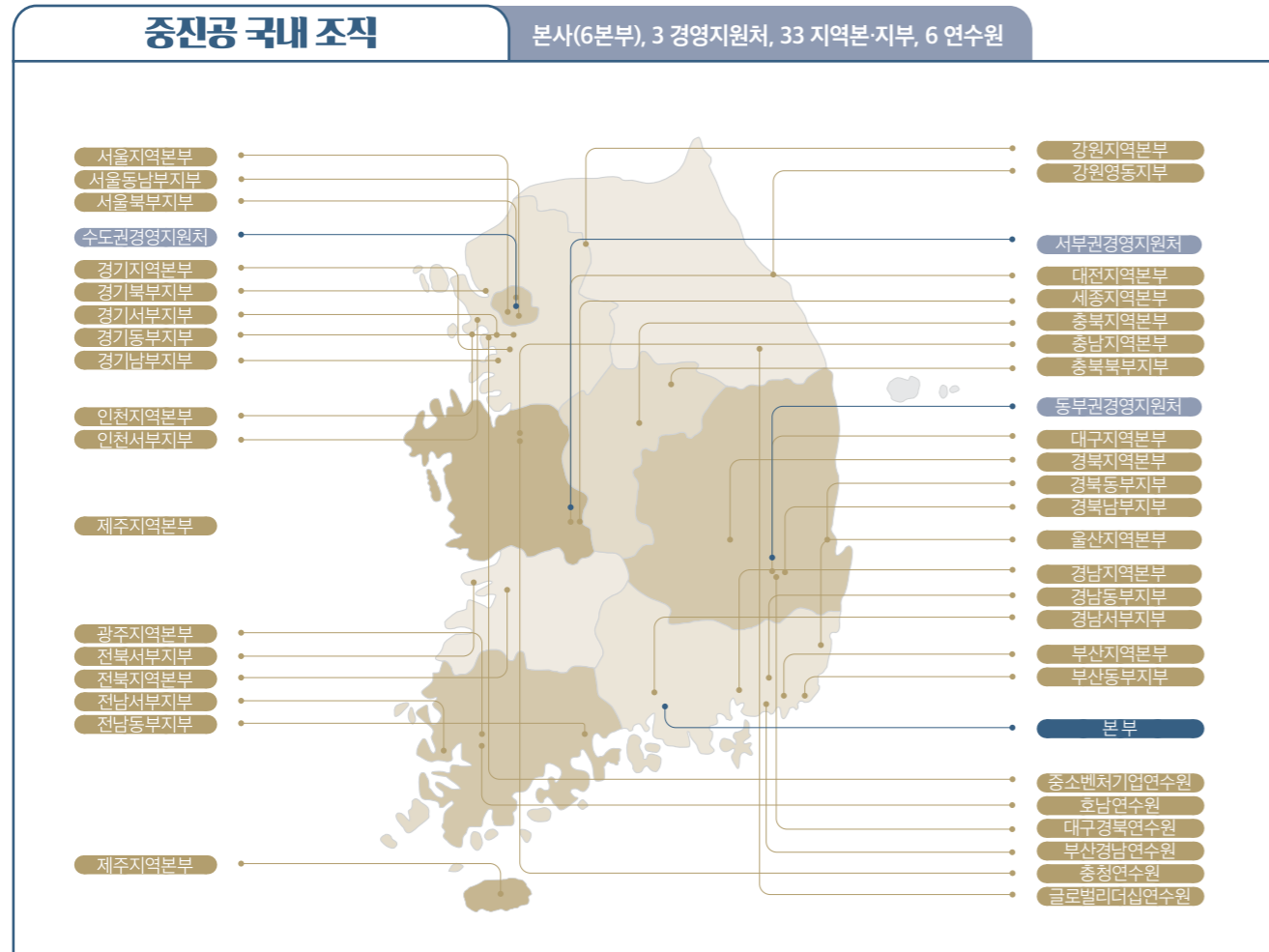
인력양성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학연계 인력양성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성과공유 기업인력애로센터 연수 내일채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성공패키지

☑ 지역산업 혁신

지역별 특화산업 및 혁신거점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지원합니다.

지역산업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력산업 성장촉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중소기업혁신바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2021 한눈에 보는 중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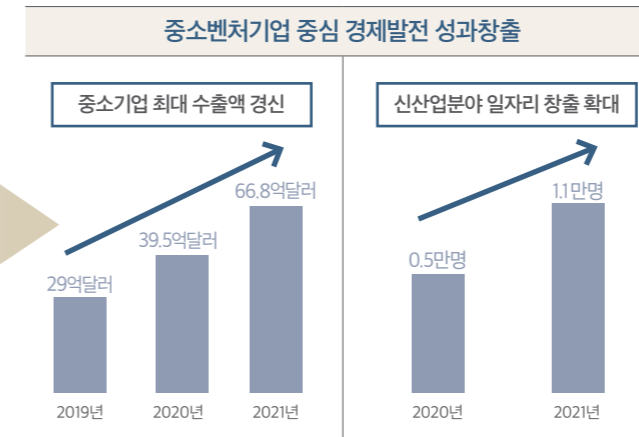


코로나19 피해 연착륙 지원

자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1.0조원 지원으로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유동성 극복 지원
수출	국적선사(HMM)와 장기운송계약 체결 및 선복지원(423사, 15,899TEU)으로 물류대란 극복 지원
인력	내일채움공제 장기재직 지원 12.9만명 및 일자리 매칭 플랫폼으로 3,299명 매칭
상생	안산, 광주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개방하여 8,377명 입소, 8,162명 완치(누적)

산업·현장·지역 혁신 집중 지원

산업	신산업분야에 핵심사업 중점-연계지원 자금 정책자금 지원금액(0.6→1.9조) 확대 수출 수출바우처 지원한도(8천만→1억) 확대 인력 AI청년인재 육성 및 기업매칭 이어드림 신설
현장	제조현장 스마트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전용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5,000→6,000억원), Net-Zero자금(200억원 신설) (인력양성) 스마트공장배움터(5→6개 연수원) 확대 (사후관리) 스마트공장 현장이슈 해결(653사, 37억)
지역	지자체 등 협업 지역산업혁신플랫폼 구축 *전국 17개 지역별 혁신프로젝트 이행 (28개 산업분야 1,449개사 참여, 986개사 2,840건 지원)



경제부총리 표창 및 대외인정 성과창출

<p>표창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1년 5월 18일</p> <p>코로나 치료지원</p>	<p>표창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1년 12월 16일</p> <p>기관혁신 우수</p>	<p>표창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1년 7월 27일</p> <p>안전산업 발전</p>
--	--	---

2021 중진공이 걸어온 길

<p>January 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일 신축년 비대면 온라인 시무식 28일 로봇업무자동화(RPA) 도입 29일 창립42주년 기념식 	<p>March 3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일 중진공-한국수출입은행 수출초기기업 공동지원과 지속성장 업무협약 7일 ESG채권(SRI) 채권 한국거래소 상장 12일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출범 16일 디지털리빙랩프론티어 지역사회 환원식 	<p>May 5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일 지역상생협력을 위한 경남 통영 두미도 스마트워크센터 개소 6일 중소상공인 판매홍보관 제주공항 가치제주소점 개점식 7일 중진공-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역 중소기업 성장지원 및 산학협력 확산 업무협약 11일 중국시안 비대면 수출 활성화 특별판매전 13일 중진공-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기 기술 수출 및 글로벌사업화 촉진 업무협약 14일 한국서비스경영학회 Service Excellence Award 수상 18일 탄소중립 경영전환 선언식 및 뿌리산업 간담회 21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대면 온라인 수출상담회 27일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공동협력 업무협약 	<p>July 7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일 중진공-중부발전 감사품질 향상 업무협약 8일 중진공-인천공항공사 제2공항물류단지 사회가치 사업권 공동개발 협약식 18일 중진공-충청남도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 업무협약 	<p>September 9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중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KOTRA 소상공인 글로벌화 업무협약 2일 공정거래위원회-중진공 울산지역 중소 부품 제조업체 현장간담회 7일 중진공-전기안전공사 중기 안정경영 업무협약 8일 중진공 사랑나눔 푸드마켓 15일 중진공-캠코-서울보증보험 회생기업 재기 지원 간담회 28일 중진공-진주시 그린 사회공헌 협약 30일 지니포럼 스토리지 데모데이 	<p>November 1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일 글로벌 백신허브화 조기달성을 위한 10대 유관기관 업무협약 한-우간다 혁신창업 컨퍼런스 및 비즈니스 상담회 5일 중진공-한국장애인고용공단 동반성장 업무협약 11일 중진공-대한법률구조공단 중기 재기 지원 업무협약 재기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 12일 중진공-한국재정정보원 데이터 관리 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 21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유공표창 23일 UAE 수출시장 진출을 위한 두바이 JAFZA 및 GulfTIC 업무협약 30일 U-커머스 Competition 
<p>February 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일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정책협의회 발족 18일 중진공-㈜켄코슬라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업무협약 25일 중진공-인천 서구청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p>April 4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일 중진공-HMM 수출 중소기업 장기운송 지원 업무협약 8일 중진공-인베스트인디아 중기 지원 및 교류활성화 업무협약 14일 충청연수원 개원 20일 중진공-대구시 로봇산업 공급망 스케일업 업무협약 23일 중진공-한국관광공사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업무협약 	<p>June 6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일 G-TOP 기술교류 상담회&세미나 10일 중진공-한국도로공사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도시 육성사업 업무협약 18일 APEC 중소벤처기업 BCP 워크숍 22일 중진공-경북도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24일 강원 황성형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간담회 및 ESG경영 선언식 25일 중진공-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중기 에너지효율 혁신 업무협약 30일 중진공-NH농협은행 선제적 구조개선 업무협약 	<p>August 8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일 중진공-연암공과대학교 청년창업 활성화 및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업무협약 4일 지역내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랑의 PC 기증식 10일 경남지역 소외아동을 위한 책드림 캠페인 17일 중진공-카자흐스탄 DAMU 업무협약 18일 2021 글로벌 비즈니스 소싱페어 22일 중년-신년 내일채움공제 일자리 박람회 25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출범 5주년, 만기 10만 기념식 26일 중진공-한국자산관리공사 위기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 업무협약 중진공-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 분야 중기 해외진출 지원 업무협약 	<p>October 10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수출바우처 매칭페어 4일 KOSME IR마트 6일 행정안전부 2021 안전산업 발전 유공 표창 27일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29일 ACCMSME 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담당자 정책연수 	<p>December 1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일 2021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6일 중진공-HACCP인증된 식품 제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업무협약 탄소중립 주간 지역사회 환경정화 캠페인 소망의길 점등식 및 기부금 전달식 

경제 동향과 중소벤처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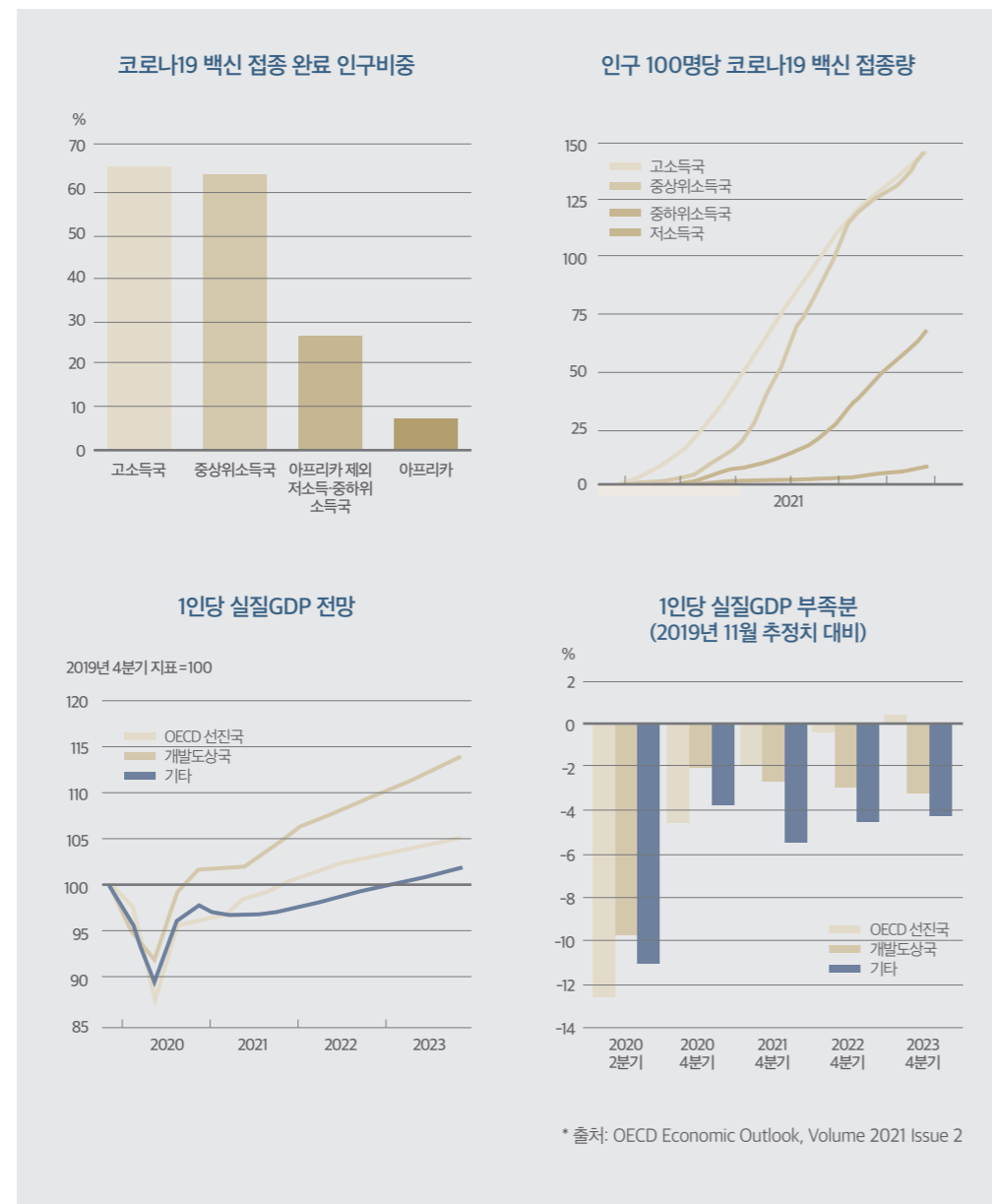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 Annual Report 2021

- ✓ 경제 동향
- ✓ 중소기업 동향

경제 동향

2021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백신공급의 확대로 전반적으로 회복하는 추세이나, 회복세가 느리고 불균형이 심한 양상을 보였다. 원가 상승 및 팬데믹 영향으로 인한 공급 병목현상, 장기화되는 물가상승 압력은 경기회복 동력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으며, 백신접종률이 낮은 일부 개발도상국과 대면비중이 높은 접촉집약적 업종은 더욱 저조한 회복세를 보였다.

【소득수준별 백신접종률 및 경제회복세 추이】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역성장세를 보였던 2020년과 비교하면 세계경제성장률(실질GDP)은 -3.6%에서 5.6%(OECD 기준)로 반등한 것으로 추정되며, 재정수지도 다소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특히,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소비 증가로 견인된 상품교역과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서비스교역 개선으로 세계교역신장률은 -8.4%에서 9.3%로 크게 증가하는 추이다.

【세계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2013~2019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1 4분기	2022 4분기	2023 4분기
세계경제성장률(GDP)	3.3	-3.4	5.6	4.5	3.2	3.8	3.9	3.2
실업률	6.5	7.1	6.2	5.5	5.2	5.7	5.4	5.1
인플레이션	1.7	1.5	3.5	4.2	3.0	4.9	3.4	3.1
재정수지균형	-3.2	-10.4	-8.4	-5.2	-3.7			
세계교역신장률	3.4	-8.4	9.3	4.9	4.5	6.1	5.2	4.2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1 Issue 2

2021년 국내경제 역시 글로벌 경기회복 및 확장적 경제정책으로 국내총생산(실질GDP)이 4.0% 증가하였으며, 국내총소득(실질GDI) 및 국민총소득(실질GNI)도 전년 대비 각각 3.0%, 3.5% 증가하였다. 특히, 정부 지원정책과 백신접종 확대로 소비심리가 회복되어 민간소비가 활성화(전년 대비 4.2% 증가)되고,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큰 역할을 하였다.

수출은 전년 대비 25.8% 증가한 6,444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디지털 전환 흐름에 따라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IT제품을 중심으로 재화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글로벌 물동량 회복으로 운송서비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등 서비스 수출도 확대되었다.

경상수지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내수 회복으로 수입이 증가(+31.5%)하면서 상품수지 흑자폭은 축소되었으나, 해상운임 급등 및 투자 배당수입 증가로 견인된 서비스·본원소득수지 개선으로 흑자규모가 전년 대비 124억 달러 증가하였다.

고용률은 전년 대비 0.4%p 상승하고, 실업률은 0.3%p 감소하며 고용상황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공급망 차질 등으로 제조업 고용이 소폭 감소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음식점·숙박업 등 대면서비스업 고용 역시 다소 부진하였으나, 운수창고업·보건복지업·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다.

물가의 경우, 한파,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급상승한 농축산물가격 및 국제 유가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연간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2.5% 상승하였고, 생산자물가도 6.6% 증가하였다.

중소벤처기업 동향

【경제 동향(2017년~2021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경제활동별(전년 대비 증가율, %)					
국내총생산(실질)	3.2	2.9	2.2	-0.9	4.0
국내총소득(실질)	3.3	1.6	-0.1	-0.2	3.0
국민총소득(실질)	3.3	1.6	0.4	-0.2	3.5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최종소비지출	1.9	2.3	2.0	-1.6	2.7
민간	1.3	1.5	1.0	-2.4	1.7
정부	0.6	0.8	1.0	0.8	1.0
수출	1.0	1.6	0.1	-0.7	3.6
수입	3.0	0.6	-0.7	-1.2	2.8
수출동향(억달러)					
수출	5,737	6,049	5,422	5,125	6,444
수입	4,785	5,352	5,033	4,676	6,151
국제수지(경상수지)	752	775	597	759	883
고용동향(천명, %)					
경제활동인구	27,748	27,895	28,186	28,012	28,310
경제활동참가율	63.2	63.1	63.3	62.5	62.8
취업자	26,725	26,822	27,123	26,904	27,273
고용률	60.8	60.7	60.9	60.1	60.5
실업자	1,023	1,073	1,063	1,108	1,037
실업률	3.7	3.8	3.8	4.0	3.7
물가동향(%)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97.6	99.0	99.5	100.0	102.5
생산자물가지수(2015=100)	101.6	103.5	103.5	103.0	109.6

* 출처: 한국은행(경제활동별 성장률, 소비지출, 수지, 물가), 관세청(수출입), 통계청(고용동향)

2021년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백신접종 확대와 정부지원 정책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및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따라 전년 대비 3.7p 상승한 100.6으로 집계되었다. 평균가동률 역시 전년 대비 2.5p 상승한 71.2를 기록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활동이 전반적으로 둔화된 2020년과 비교하면 점차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다. 창업법인수의 경우 제조업은 전년 대비 12.8%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 및 기술기반업종의 상승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다. 서비스업 창업은 금융 및 보험업(+34.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6.3%)을 중심으로 6.3% 상승하였고, 기술기반 업종은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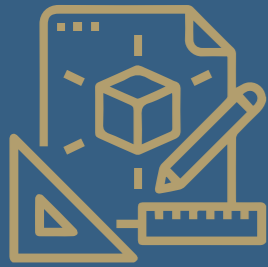
2021년 기업신용대출은 코로나19, 원자재가격 상승, 설비 및 부동산 투자 확대, 정책금융 지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경기 회복 및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조치 연장으로 2021년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년 동월 대비 0.08%p 하락하였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전년 동월 대비 0.09%p 하락하였으며, 이는 0.03%p 감소한 대기업 연체율보다 감소폭이 더 컸다. 중소기업 수출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류대란 등 어려움 속에서도 1,171억 달러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1,100억달러 선을 돌파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16.2% 증가한 수치로, 중소기업 수출증가율이 10% 이상 기록한 것도 역대 최초이다. 중소기업 수출은 특정 품목에 집중되지 않고 고루 성장한 형태이나, 이 중에서도 플라스틱·비닐·건설자재 원료 수요증가로 합성수지(+13.0억달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진단키트 수출 확대 및 IT제품 소비 증가로 의약품(+10.6억달러), 반도체(+10.3억달러)의 수출액도 크게 증가하였다.

【중소벤처기업 동향(2018년~2021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
제조업 생산동향 (2015=100 기준)					
제조업 생산지수	106.3	106.7	106.4	114.3	7.9p
대기업 생산지수	107.2	109.6	110.8	121.1	10.3p
중소제조업 생산지수	103.6	99.9	96.9	100.6	3.7p
산업활동 동향					
제조업 평균가동률(%)	73.8	73.2	71.1	74.4	3.3%p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73.0	73.3	68.7	71.2	2.5%p
창업 및 부도동향					
신설법인 수(개)	102,372	109,520	123,305	126,905	3,600
제조업 신설법인 수(개)	15,286	14,807	15,416	13,447	△1,969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개)	72,444	81,266	93,568	99,493	5,925
부도법인수(개)	469	414	292	183	△109
금융동향					
기업대출 연체율(12월) (%)	0.53	0.45	0.34	0.26	△0.08%p
대기업 연체율(12월) (%)	0.73	0.50	0.27	0.24	△0.03%p
중소기업 연체율(12월) (%)	0.49	0.44	0.36	0.27	△0.09%p
어음부도율 (%)	0.01	0.01	0.00	0.00	-
수출동향					
총수출액(억달러)	6,049	5,422	5,125	6,444	1,319
중소기업 수출액(억달러)	1,052	1,009	1,007	1,171	162
총수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	17.4	18.6	19.6	17.3	△2.3%p

* 출처: 통계청(생산동향, 산업활동동향, 창업 및 부도동향), 금융감독원(금융동향), 중소기업집진부(수출동향)

2021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추진 성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 Annual Report 2021

- ✓ 총괄
- ✓ 정책자금
- ✓ 글로벌화 및 수출마케팅 지원
- ✓ 인력양성 및 창업
- ✓ 지역산업 혁신

총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2021년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경제 대전환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발전 성과 창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코로나19 피해 연락처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D.N.A(Data, Network, AI),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혁신성장유망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인력 등의 지원사업을 전방위로 종합 연계 지원하였다.

정책자금 사업의 경우, 2021년 한해 60,100억원(당초 54,100억원, 증액 6,000억원)으로 총 22,592개 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였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수립하였다.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집합금지·제한시설 운영기업과 112개 경영위기 업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원자재 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안정자금 및 물류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난항을 겪는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플러스 자금을 2,000억원 공급하였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디지털 및 그린 뉴딜 분야와 비대면 유망산업을 대상으로 약 2조원의 예산을 집중 지원하였으며, 내부 프로세스 측면에서도 디지털 용자신청, 비대면 평가 등 정책자금 지원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금융 취약분야에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대상 1,117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여성기업 대상 금융한도 확대 및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등 포용적 금융 지원을 추진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중소기업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투융자복합금융 지원 시 상환전환우선주 투자방식을 대폭 확대('20년 65억원 → '21년 374억원)하였으며, 비대면 IR 및 유관기관 협업으로 민간후속투자 2,178억원을 유치하였다. 또한 탄소중립 및 ESG경영 환경 구축을 위해 ESG채권을 38회 62,413억원 발행하고, 탄소중립수준진단 및 ESG자가진단을 신규 개발하여 솔루션을 제시하는 등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였다.

글로벌화 및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은 2021년 국내외 인프라 및 정책자금 등 다양한 연계지원 수단을 기반으로 '유망내수기업 및 제품발굴 → 육성 →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해외진출'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애로 해소에 앞장섰으며, 총 66.8억달러의 수출지원성과(지원 후 수출액)를 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적선사 HMM과 협업으로 해상 상시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FedEx 등과 협업하여 글로벌 특송 서비스 등 항공 지원도 확대하였다. 수출바우처 사업에도 물류바우처를 신설하여 1,080개사 수출중소기업의 물류비를 109억 규모로 지원하였다. 또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개소하고, 적기납품을 위한 해상-내륙 연계 복합운송을 지원하는 등 물류지원체계를 고도화하였다.

혁신성장 분야 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 수출바우처 사업은 신산업·K-Bio 모집유형을 별도 신설하여 지원하였으며, 글로벌화지원플랫폼 사업은 전략시장별 현지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혁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을 위한 현지화 프로그램을 6개국 8개 운영하였다. 현지화 프로그램 참여기업 113개사는 2021년 180억원의 현지 투자유치를 받아 해당국가 수출이 66.4% 증가하였다.

인력양성 및 창업 사업은 '인력유입 확대 → 일자리 발굴·매칭 → 인적역량 강화 → 핵심인력 장기재직'으로 이어지는 인력양성 선순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215개 특성화고, 12개 기술사관 사업단, 13개 전문대학을 지원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69개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운영하였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280개사를 발굴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존경받는 기업인 12인을 선정하여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해 11,102개사의 구인기업(구인수요 28,659명) 및 45,117명의 구직자를 발굴하여 1,630개사에 3,080명의 취업을 연계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 총청연수원을 개소하여 전국 6개 연수원에서 50,976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지원하였다. 특히, 스마트제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스마트제조 분야 교육을 중점 진행하여 14,478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또한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성과보상공제기금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의 일몰을 1년 연장하였으며, 2021년 기준 누적 190,417개사 713,147명의 성과보상공제 가입실적을 달성하였다. 아울러, 청년창업자 양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21년 세종 청년창업사관학교를 개소하고 청년CEO 선발인원을 1,035명에서 1,065명으로 확대하였으며,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D.N.A 분야(Data, Network, AI) 60개사를 선발·지원하여 디지털 전환 시대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지역산업 혁신 사업은 지역 전문기관의 분절적인 지원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력산업 중점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균형뉴딜을 위한 집중지원체제를 수립하여 추진되었다. 전국 17개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28개 산업분야 1,449개 지역중소기업을 이어달리기식으로 지원하였으며, 규제자유특구 사업에서는 탄소중립특구 TF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5차 충남 탄소저감건설소재 특구를 지정하고 맞춤형 연계 지원을 통한 실증기술 개발을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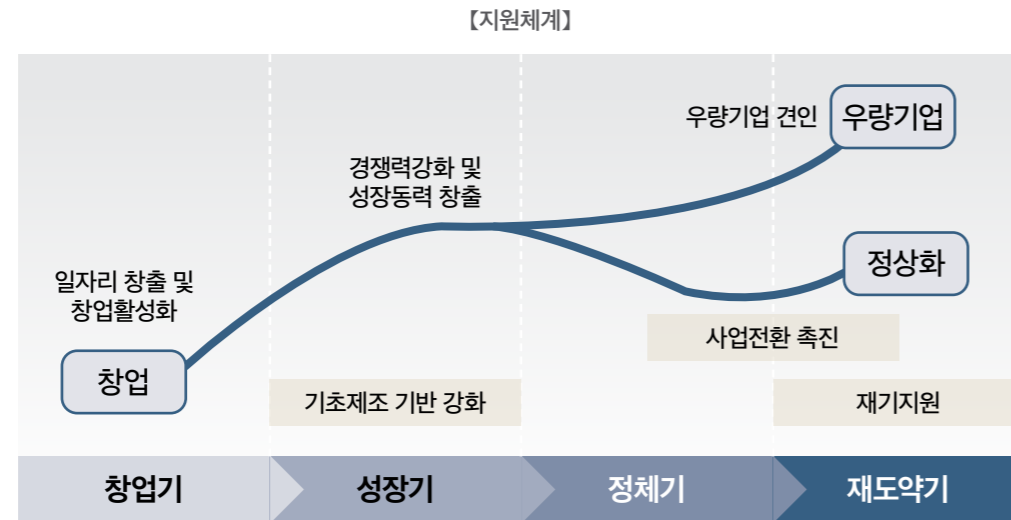
또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해 기술유망 소기업 1,672개사에 약 44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482건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여 지원기업 매출액 전년 대비 3.83% 증가, 1,579명의 고용 달성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은 32개사 대상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기정원과 협업하여 20개사 대상 시장친화형 기능개선을 지원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중소기업 R&D 추진을 적극 지원하였다.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역시 고부가가치인 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8개 과제 1,565백만원을 지원하여 특허 등록 및 출원 7건, 시제품 출시 7건의 실적을 달성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혁신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중진공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차 산업혁명, 디지털그린 전환 등 경제·산업구조의 신산업 전환에 대응하여, 정책자금·수출마케팅·인력양성·지역산업혁신 등 전방위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향후에도 중진공은 정부정책을 최일선 현장에서 수행하는 원스톱 종합지원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이 경제구조 전환의 주역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정책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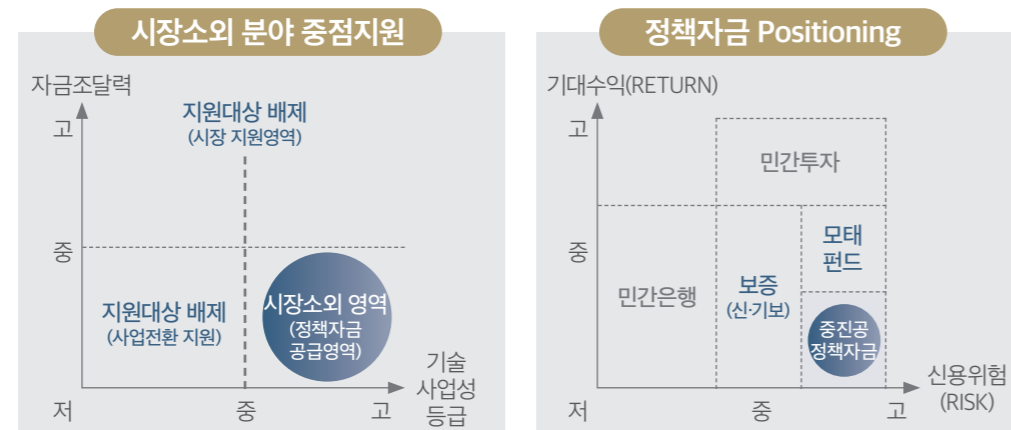
용자지원

1. 사업개요



[역할]

중진공은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시장소외영역의 중소기업 중 미래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집중 지원하여 우량기업으로 성장 견인 및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2.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2021년도 정책자금 규모(투용자 포함)는 **60,100억원**(당초 54,100억원, 증액 6,000억원)으로 **총 22,592개 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였다. 추경예산 편성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6,00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창업기업의 혁신성장과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여 팬데믹 시기에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ESG경영 확산에도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디지털 및 그린 뉴딜 분야와 비대면 유망산업을 대상으로 약 2조원의 예산을 집중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체질 개선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을 추진하였다.

지역 경제의 성장을 위해 전국 17개의 지역산업 성장 프로젝트 대상기업에 지역균형뉴딜자금 2,228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위기 지역 중점 지원을 위해 쌍용차 협력 피해기업 전용 예약창구를 개설하여 28개사 14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고용·산업위기지역(군산, 거제 등) 28개사에 36억원을 지원하였다. 정책자금 배분 시에도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예산 배정비율을 59% 이상 3년 연속 유지하였으며, 지역경제 및 현장여건을 고려한 지역기업수,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의 예산 배정지표를 15%에서 30%로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이처럼 지역주력산업, 특구, 프로젝트 등 지역 중심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3,783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수립하였다. 중소기업의 위기 상황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집합금지·제한시설 운영기업과 112개 경영위기 업종으로 세분화하여 확대 지원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촉발된 중소기업의 경영여로 해소를 위해 원자재 수급 안정자금 및 물류비를 신규 지원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용시장에 대응하여 일자리 안정과 고용 지원을 위한 고용유지플러스 자금을 2,000억원 지원함과 동시에 고용창출 기업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유지 및 창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아울러 정책지원 기관으로써 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용적 금융**을 추진하여 금융지원 취약분야에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1,11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여성기업의 경우 한도 확대와 금리 우대 등의 정책지원을 통해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용위기·취약기업의 위기 업종의 일자리 안정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정책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 28,728명을 창출하여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안정을 뒷받침하였다.

내부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글로벌 금융 트렌드에 맞춘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수립하였다.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와 AI챗봇 상담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무료 자문센터를 설립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정책자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고객의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던 용자 신청과 정책자금 평가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 부담을 대폭 경감하였다. 정책자금 접수와 평가 프로세스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여 디지털 용자신청서와 중진공 모바일 브랜치를 도입, 디지털·비대면 방식의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AI에 기반한 비대면 평가 모형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혁신하였다. 또한 대외기관과 정책자금 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협업 S&LB(Sales & Lease back) 프로그램 도입 및 민간 핀테크기업 협업 수요자 중심 정책자금 지원 서비스 신설 등의 성과를 내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증가하는 불안정성과 급변하는 사회구조로 인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진공은 2022년부터 중소기업의 지속경영환경 구축을 위한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 및 건전한 재무구조 기반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구조전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노동·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정책자금 용자 지원 실적】

사업명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실적
혁신창업사업화	25,500억원	창업 활성화 및 초기 일자리창출·성장 잠재력 확충	11,296개사
신성장기반	17,700억원	성장유망 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로 성장동력 창출	2,634개사
신시장진출지원	5,000억원	글로벌화 촉진, 수출 인프라 조성 등 수출 중소기업 육성	2,380개사
긴급경영안정	8,000억원	재해, 일시적인 애로 등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	5,007개사
재도약지원	2,500억원	실패경영인, 부실징후·위기기업 등 재기 지원	1,111개사
투융자복합금융	1,400억원	미래성장가치, 기술성 우수 중소기업 투융자 복합 지원	164개사

3. 세부사업 추진실적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창업 활성화와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자금이다. 1998년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재창업자금(재도약지원자금)을 도입하고, 2012년에는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설하였다. 2019년에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에서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편입하고, 고용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일자리 특화자금인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도입하였다. 2020년에는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지원자금과 혁신성장 분야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미래기술육성자금과 고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하여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

2021년에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예산 25,500억원(창업기반지원자금 14,000억원, 일자리창출촉진 자금 5,0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2,900억원, 미래기술육성자금 1,800억원, 고성장촉진자금 1,800억원)을 11,296개 업체에 지원하였다.

【2021년 총괄 지원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창업기반지원	1,400,000	9,078	2,060,827	7,263	1,400,000
일반	1,040,000	4,705	1,449,507	4,347	1,040,000
청년전용창업	210,000	3,556	392,117	2,147	210,000
시니어기술창업	50,000	249	71,324	237	50,000
비대면분야창업	100,000	568	147,879	532	100,000
일자리창출촉진	500,000	1,848	697,832	1,768	500,000
개발기술사업화	290,000	1,409	437,459	1,333	290,000
미래기술육성	180,000	508	245,907	490	180,000
고성장촉진	180,000	453	254,337	442	180,000
계	2,550,000	13,296	3,696,362	11,296	2,550,000

가.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1) 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조달력이 부족한 설립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지원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2021년도 창업기반지원자금 지원사업은 10,400억원을 조성하여 연 예산 100%를 집행하였다.

【2021년 창업기반지원자금 지원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1,040,000	4,705	1,449,507	4,347	1,040,000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은 업력별로 설립 1년 미만 1,847억원(17.8%), 설립 1년 이상~3년 미만 3,064억원(29.5%), 설립 3년 이상~7년 미만 5,488억원(52.8%)이 지원되어 창업기업 지원 목적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다.

【업력별 지원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신청		대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1년 미만	825	277,332	696	184,747
1년 이상~3년 미만	1,721	481,600	1,534	306,435
3년 이상~7년 미만	2,159	690,575	2,117	548,818
계	4,705	1,449,507	4,347	1,040,000

지원업체의 매출액 규모는 10억원 미만 기업이 47.9%(4,983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 전체 예산 중 93.6%(9,732억원)를 집행하였다.

【매출액 규모별 지원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대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비율
10억원 미만	2,865	747,355	2,584	498,261	47.9
10 ~ 100억원 미만	1,719	629,694	1,636	474,896	45.7
100억원 이상	121	72,458	127	66,843	6.4
계	4,705	1,449,507	4,347	1,040,000	100.0

3) 제도개선 사항

혁신성장 품목 영위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창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하였다. 또한 창업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를 적극 지원하여 설비자동화 및 디지털 시설 등의 디지털·비대면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나. 청년전용창업자금

1) 사업개요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만 39세 이하 청년층의 창업촉진을 위하여 청년창업자에게 저금리(2.0% 고정금리)의 창업자금(기업당 1억원 이내, 용자기간 6년 이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금과 함께 교육, 멘토링, 마케팅 지원 등을 패키지로 연계하여 창업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2021년도에는 2,147개 업체에 2,100억원을 지원하여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20년 청년전용창업자금지원 실적】 (단위 : 개사, 백만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210,000	3,556	392,117	2,147	210,000

또한,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이후 후속 연계지원으로 창업 초기기업의 사업화 애로 해결을 위한 1:1 멘토링을 2,998건 실시하였다.

3) 제도개선 사항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 및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2016년 2.5%에서 2017년 2.0%로 인하하였고, 정부의 연대보증 면제 확대 정책(창업 7년미만 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라 연대보증 면제를 시행('17년 7월)하였다. 또한, 사업화 준비가 완료된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및 입교자를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자금을 신설하였다. 2018년에는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상환하도록 하는 '기업자율상환제도'를 도입하여 청년층의 만기 일시 상환 부담을 완화하였다. 2020년에는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제조기업의 용자한도를 기존 1억원 → 2억원으로 상향하였고, 2021년에는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 산업에 대한 용자한도를 기존 1억원 → 2억원으로 상향하였다.

다.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1) 사업개요

기술노하우를 축적한 중년층 전문인력 창업지원 확대를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정부출연연구소 은퇴자 또는 기술사·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2020년 신설한 자금으로 2021년 237개 업체에 500억원을 지원하여 중년층 전문인력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21년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실적】 (단위 : 개사, 백만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50,000	249	71,324	237	50,000

라. 비대면 분야 창업자금

1) 사업개요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전용자금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중 비대면 분야 품목 영위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2021년 532개 업체에 1,000억원을 지원하여 디지털·비대면 산업분야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21년 비대면창업지원자금 실적】 (단위 : 개사, 백만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100,000	608	147,879	532	100,000

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1) 사업개요

설립 7년 미만의 창업기업 중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중소기업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집중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2021년 일자리창출촉진자금 5,000억원을 조성하여 연 예산 100%를 집행하였다.

【2021년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지원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500,000	1,848	697,832	1,768	500,000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자금지원을 받은 달 대비 해당 연도 말의 인원수 차이를 신규 일자리창출로 산정하여,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지원기업의 1억원당 고용인원수를 그 외 자금과 비교해본 결과,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은 0.60명/억원, 그 외 자금은 0.47명/억원으로 고용효과가 1.28배 높은 것으로 산출되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고용창출인원수(명)	지원금액(억원)	고용효과(명/억원)
일자리창출촉진자금	3,000	5,000	0.60
그 외 자금	25,728	55,100	0.47
계	28,728	60,100	0.48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등 2개 이상의 자금 수혜기업은 고용창출인원수에서 중복산정 제거

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한 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2000년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시중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위하여 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2021년도에는 1,333개사에 2,9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예정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여 우수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였다.

【2021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290,000	1,409	437,459	1,333	290,000

업종별 지원 실적을 보면 기계·금속 1,042억원(35.9%), 전기·전자 510억원(17.6%), 섬유·화학 437억원(15.1%) 순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68.6%인 1,989억원이 지원되었다.

【2021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업종별 지원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대여		비율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기계금속	488	142,712	468	104,156	35.92
전기전자	253	80,680	235	51,008	17.59
섬유화학	189	64,859	181	43,695	15.07
잡화음식료	178	51,710	171	38,917	13.42
기타	301	97,498	278	52,224	18.01
계	1,409	437,459	1,333	290,000	100.00

기술유형별로는 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록기술 1,748억원(60.3%),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술 587억원(20.2%),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술 188억원(6.5%) 순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기술유형별 지원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업체 수	금액	비율	
			업체 수	금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823	174,803	61.7	60.3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181	43,467	13.6	15.0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85	15,185	6.4	5.2
중기부 R&D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78	14,182	5.9	4.9
벤처기업	59	12,360	4.4	4.3
Inno-Biz기업	37	12,920	2.8	4.5
Main-Biz기업	23	4,970	1.7	1.7
중기부 외 R&D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22	4,500	1.7	1.6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11	4,183	0.8	1.4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6	1,280	0.5	0.4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5	1,550	0.4	0.5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2	400	0.2	0.1
특허청 IP-R&D 전략지원사업을 통해 개발을 완료한 기술	1	200	0.1	0.1
계	1,333	290,000	100.0	100.0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기술개발로 인해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시중 금융권의 자금 대출이 어려운 기술개발 기업에 신용대출(2,334억원, 80.5%) 위주로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하였다.

【2021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담보별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신용	지식재산권	부동산	계
담보별	233,370	31,852	24,778	290,000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사업추진체계】



사. 미래기술육성자금

1) 사업개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중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 제고 등 혁신역량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2021년도 1,800억원을 조성하여 490개사에 연 예산 100%를 집행하였다.

【2021년 미래기술육성자금 지원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180,000	508	245,907	490	180,000

아. 고성장촉진자금

1) 사업개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중소벤처기업 중 기술·경영성과가 우수한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창업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안정적인 성장기 진입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2021년도 1,800억원을 조성하여 연 예산 100%를 집행하였다.

【2021년 고성장축진자금 지원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180,000	453	254,337	442	180,000

■ 신성장기반자금

신성장기반자금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구조개선자금 내 구조개선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과 협동화사업을 통합하여 경영혁신자금이란 명칭으로 2007년부터 신규 추진되었다. 200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효율화 방안에 따라 명칭을 경영혁신자금에서 신성장기반자금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2010년에는 농공단지입주기업 지원사업을 신성장기반자금에 통합하였고, 2014년에는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을 도입하였다. 2015년에는 고성장(가젤형)기업 전용자금 및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을 신설하고, 2018년에는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을 도입하였다. 2019년에는 통합 개편하여 혁신성장지원과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으로 이원화하였다. 2021년에는 저탄소·친환경 제조기업을 지원하는 Net-Zero자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사업개요

혁신성장지원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과 초기 가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의 시설자금과 초기 가동비를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Net-Zero 유망기업 지원 그린기술영위기업 및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들을 위한 친환경 시설 도입기업의 시설자금과 친환경 전환에 따른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2021년 신성장기반자금은 예산 17,700억원의 100%를 집행하였다.

【2021년 신성장기반자금 지원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혁신성장지원	1,150,000	2,369	1,643,973	2,128	1,150,000
제조현장스마트화	600,000	458	838,951	416	600,000
Net-Zero 유망기업 지원	20,000	98	28,740	90	20,000
계	1,770,000	2,925	2,511,664	2,634	1,770,000

■ 긴급경영안정자금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애로, 대형사고 및 재해피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거 구조개선자금 내 특별경영안정사업의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재해복구지원사업과 수출금융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였다. 2009년부터 사업전환지원사업의 회생특례지원자금을 통합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개편하였으며, 2016년에는 수출금융을 신시장진출지원 자금으로 이관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고용유지플러스 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였다.

1) 사업개요

재해복구지원 자연재난 또는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벤처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을 지원하여 재해중소벤처기업의 사업정상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일시적경영애로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2021년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예산 8,000억원(재해복구지원 및 일시적경영애로지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펀셋지원과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코로나19 피해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영위기 대응을 통한 지역경제 및 산업 위기 극복에 기여하였다.

【2021년 총괄 지원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일시적경영애로지원	400,000	692	171,770	669	135,180
재해중소기업		10	2,390	10	2,150
코로나19 피해기업		1,959	410,560	1,851	262,670
고용유지플러스	200,000	1,503	309,845	1,411	200,000
코로나 피해(집합금지 및 제한시설)	200,000	1,112	276,600	1,066	200,000
계	800,000	5,276	1,171,165	5,007	800,000

3) 제도개선 사항

코로나19에 따른 고위험시설 운영업종을 21개 업종으로 세분화하여 피해 상황별로 핀셋지원하고, 경영위기업종*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는 발판이 되었다. 또한, 신속지원 평가모형을 적용하고 경영애로 지원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원 체계를 수립함과 동시에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급등으로 촉발된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원자재 수급 안정자금 및 물류비 지원자금을 신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과 수출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한 수출중소벤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1) 사업개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내수기업, 수출 초보기업(수출 10만달러 미만)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직접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역량을 보유한 수출 유망기업(수출 10만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증대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하의 수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급증기업 및 수출선도기업에 대한 전용자금을 신설하여 지원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용자금을 신설하여 집중 지원하였으며, 총 2,380개사에 5,000억원을 집행, 지원기업의 수출성장률은 22.9%로 중소기업 수출증가율 16.2% 대비 6.7%p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등 수출기업의 유동성 공급 및 수출 회복에 적극 기여하였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정책 시의성 및 지원성과를 감안한 효율적 자원배분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수출 호조세를 이끌고 있는 온라인수출 지원 강화와 미래성장 동력으로 수출을 이끌고 있는 '신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매출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지정(21.3, 중기부)

**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BIG3 신산업분야 및 혁신성장 분야

【2021년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지원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150,000	1,019	219,680	959	150,000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350,000	1,500	535,258	1,421	350,000	
계	500,000	2,519	754,938	2,380	500,000	

3) 제도개선사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원성과 향상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과 수출초기기업 공동지원과 지속성장을 위한 업무협약(21.3월)을 체결하고 지역별 수출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13개사 100억원을 공동지원하였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중소기업 성장단계별 공동지원을 위한 업무협약(20.11월)을 체결하여 교차 금융지원을 통한 지원한도 확대 및 해외소재 기업 신용조사를 무상지원하였다.

■ 재도약지원자금

재도약지원자금은 실패경영인, 부실징후 기업 및 위기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종전환 및 추가 기업, 사업재편 기업, FTA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자금, 실패경영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재창업자금, 부실징후기업 정상화를 목적으로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구조개선전용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중진공은 재도약지원자금 예산 2,500억원(사업전환 1,000억원, 재창업 1,000억원, 구조개선 500억원)을 1,111개 업체에 지원하였다.

【2021년 총괄 지원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사업전환(무역조정)	100,000	233	137,892	218	100,000	
재창업	100,000	811	171,825	654	100,000	
구조개선	50,000	261	79,867	239	50,000	
계	250,000	1,305	389,584	1,111	250,000	

가. 사업전환지원자금

1) 사업개요

사업전환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도록 용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사업 추진 현황

2006년 9월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21년까지 총 2,571개사의 사업전환 계획을 승인하여 총 19,354억원(3,851건)의 자금을 집행하였다. 2021년에는 114개사의 사업전환계획을 신규 승인하고, 910억원(179건)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2021년 총괄 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개)

예산	신청액	직접대출		대리대출		합계	
		업체 수	대여액	업체 수	대여액	업체 수	대여액
910	1,245	159	560	20	350	179	910

사업전환 승인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업종추가 사업전환계획 승인업체 114개사 중 97.4%인 111개사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업종전환은 2.6%인 3개사이다. 세부업종별 승인실적을 살펴보면 기계금속(29개, 25.4%), 유통(27개, 23.7%), 기타(22개, 19.3%)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경기(18개, 15.8%), 서울(16개, 14.0%), 부산(11개, 9.6%)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사업전환계획 승인실적】

● ● 유형별

유형	업종추가	업종전환	합계
업체 수	111	3	114
비율(%)	97.4	2.6	100

● ● 업종별

업종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보	화학	섬유	잡화	유통	식료	기타	합계
업체 수	29	9	7	7	2	4	27	7	22	114
비율(%)	25.4	7.9	6.1	6.1	1.8	3.5	23.7	6.2	19.3	100

● ●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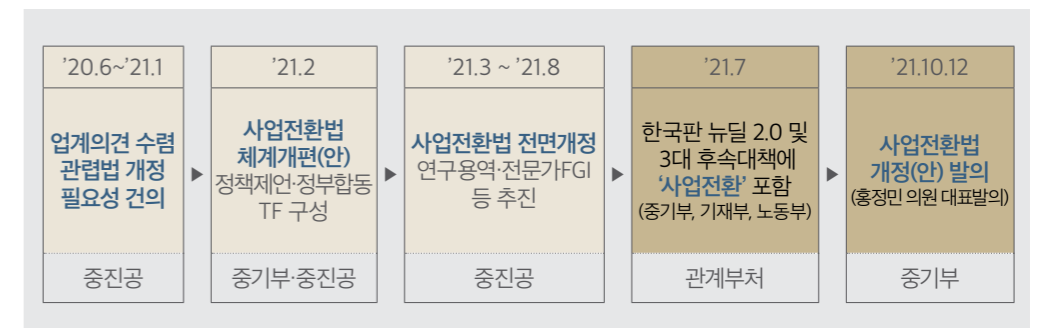
지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업체 수	16	8	18	11	5	9	4	3	2	4	9	1	2	4	5	11	2	114
비율(%)	14	7	15.8	9.6	4.4	7.9	3.5	2.6	1.8	3.5	7.9	0.9	1.8	3.5	4.4	9.6	1.8	100

또한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기업의 신속한 유류자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산거래 중개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전환 성공사례집 제작 및 사업 광고, 기획 홍보기사 보도 등을 통해 사업전환지원사업의 활성화와 관심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3) 제도개선 사항

사업전환사업을 현장 최일선에서 지원하는 기관으로 업체 상담, 이행실태조사 등을 통해 산업분류코드 기준으로 사업전환을 평가하는 현행 법제도*가 미래형 자동차 등 산업구조전환이나 융복합형 신산업이 출현하는 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업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기존 제품·서비스에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도 사업전환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전환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사업전환법 개정 추진 현황】



나. 무역조정지원자금

1) 사업개요

무역조정지원사업은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 용자 및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2007년 4월 무역조정지원법 시행 후 2008년부터 2021년까지 282개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약 950억원(누계)의 자금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39개사에 90억원을 지원하였다.

* 예)내연기관차 → 전기자동차 전환 시 생산기술·공정혁신 등이 필요하나 업종코드가 동일하여 사업전환 미해당

【2021년 총괄 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개)

예산	신청액	직접대출		대리대출		합계	
		업체 수	대여액	업체 수	대여액	업체 수	대여액
90	133	39	90	0	0	39	90

2007년 12월 제조업에 국한되었던 지원범위를 서비스업까지 확대하였고, 2012년 1월에는 지정요건을 완화(매출액 등의 무역피해지표 감소율 25% → 10%)하였으며, 2012년 7월에는 중진공이 신청서류 작성지원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연도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및 용자 지원 실적】 (단위: 개사, 백만원)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계
지정	2	3	2	0	8	24	26	17	24	39	28	38	49	22	282
용자	200	500	850	200	1,485	8,299	10,320	9,360	9,120	10,130	9,204	12,740	13,620	9,000	95,028

무역조정지원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언론홍보, 인쇄물 발간, 우수사례집 제작 등 종합적인 홍보를 하였다. 향후에도 FTA 확대에 대비하여 무역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3) 제도개선 사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에서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무역조정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일부 기업에 지원되던 경영 컨설팅에서 무역조정기업의 재무진단, 재무위험 관리 프로그램 중심으로 개편*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하였다.

다. 구조개선전용자금

1) 사업개요

구조개선전용자금은 부실징후 중소기업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조기 정상화 및 재도약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2015년 신설되었으며, 2021년에는 민간금융과의 협업을 통한 금융지원과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 (기존) 일반컨설팅 상담 프로그램 → (개선) 무역조정기업 특화 재무관리 프로그램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2021년 총 239개사에 5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부실징후기업의 조기 정상화에 기여하였다.

【2021년 총괄 지원 실적】 (단위 : 억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500	261	798	239	500

신청요건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 비중이 51.8%로 가장 높았으며, 진로제시컨설팅 연계지원 기업 32.4%, 회생절차 기업 8.6%, 캠프 추천 물납법인 2.6%, 은행권 추천 기업 2.3%,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기업 0.9%, 캠프 추천 S&LB 0.8% 순으로 높았다.

【2021년 신청요건별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	신청		대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비율(%)
은행권 추천 기업	13	3,750	10	1,150	2.3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기업	6	650	5	450	0.9
워크아웃기업	2	300	2	300	0.6
회생진행기업	39	10,280	30	4,300	8.6
진로제시컨설팅	126	22,360	123	16,200	32.4
캠프 추천 물납법인	2	1,300	2	1,300	2.6
캠프 추천 S&LB	2	700	2	400	0.8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71	40,527	65	25,900	51.8
계	261	79,867	239	50,000	100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비중이 85.4%, 유통·지식서비스업·기타 업종이 14.6%로 제조업 지원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며, 세부 업종별로는 기계가 21.8%로 가장 높고 금속 15.5%, 전기 8.4% 순으로 집계되었다.

【2021년 업종별 지원 실적】 (단위 : 개사, %)

구분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섬유	화학	잡화	식료	정보	유통	기타	합계
업체 수	52	37	20	16	14	20	19	14	12	20	15	239
비중	21.8	15.5	8.4	6.7	5.9	8.4	7.9	5.9	5.0	8.4	6.3	100

구조개선전용자금은 담보가 부족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영애로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리대출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예산 500억원 전액을 100% 신용대출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3) 제도개선사항

부실징후기업의 구조개선 등 경영정상화 지원 확대를 위해 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구조개선전자금의 신청자격 및 사업추진 방식을 다각화하였다. 4개 민간은행(기업은행, 농협은행, 수출입은행, 경남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및 S&LB(Sales & Lease Back)을 실시하였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라. 재창업자금

1) 사업개요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여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기업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금이다. 2021년도에는 654개 업체에 1,000억원을 집행하였다.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2021년도 재창업자금은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수요 발굴 및 제도개선 노력으로 집행실적을 100% 달성하여 실패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제공하였다.

【2021년 총괄 지원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100,000	811	171,825	654	100,000

담보별 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1,000억원 중 직접대출 지원액이 89.8%(898억원)이며, 이 중 신용 대출은 95.8%(860억원)에 달한다. 이는 기술·사업성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재창업기업이 원활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이다.

【2021년 담보별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합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소계	
담보별	10,250	85,970	1,270	2,510	89,750	100,000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신용애로자, 자금애로자, 저신용자, 법원의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자 순으로 지원 비중이 높았다. 이처럼 중진공은 민간 금융권 이용이 제한된 저신용자는 물론 파산면책, 개인회생자의 재기 지원을 지속 추진 중이다.

【2021년 신청자격별 지원 실적】 (단위 : 개사, %)

구분	신용애로 (770~906점)	자금애로 (620~769점)	저신용자 (619점 이하)	파산·회생	신용불량	기타	합계
업체 수	230	205	92	55	21	51	654
비중	35.2	31.3	14.1	8.4	3.2	7.8	100.0

업력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1년 미만(예비창업자 포함) 16.7%, 3년 미만 41.0% 등 재창업 초기기업 위주로 지원하여 창업초기 자금조달 애로 해소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2021년 업력별 지원 실적】 (단위 : 개사, %)

구분	1년 미만	3년 미만	3년 이상	합계
업체 수	109	268	277	654
비중	16.7	41.0	42.3	100.0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68.3%, 유통·정보·기타 업종이 31.7%로 제조업 지원 비중이 더 높은 편이며, 세부업종별로는 기계가 16.7%로 가장 높고, 금속 14.7%, 유통 12.5%, 정보 11.3% 순으로 높았다

【2021년 업종별 지원 실적】 (단위 : 개사, %)

구분	기계	금속	식료	전기	화학	전자	잡화	섬유	유통	정보	기타	합계
업체 수	109	96	45	43	40	40	40	34	82	74	51	654
비중	16.7	14.7	6.9	6.6	6.1	6.1	6.1	5.2	12.5	11.3	7.8	100.0

3) 제도개선사항

재창업자금은 민간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또는 공공정보 등록자를 대상으로 용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재창업자금 지원자의 공공정보 불량인드 및 연체기록 삭제를 통해 개인 신용등급 개선 및 민간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혁신성장분야 및 소재·부품·장비산업과 같은 신산업을 영위하는 재창업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재창업자 컨설팅을 신규 연계지원하여 재도전 성공 기업을 육성하는 등 정책성과 창출을 도모하였다.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1) 사업개요

경제침체 지속, 저성장 경제환경 하에서 위기 및 실패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바, 경영애로 극복과 원활한 재도전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 창구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를 위해 2014년 서울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2021년 12월 말 기준 전국 18개소가 운영 중이다. 중진공은 동 센터를 통해 사전 전문상담, 자금지원, 교육, 사후멘토링, 연계지원 등 재도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역동적 창업 분위기 조성을 주도하고 있다.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자금 및 컨설팅 상담, 실패경영인의 채무조정방안을 모색하여 재기지원의 발판을 마련하여 주는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 상담, 위기기업의 회생절차를 안내해주는 법인회생상담, 신속한 폐업 및 재도전을 위한 사업정리 상담 등 전문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총 2,991건 상담이 실시되었으며, 이 중 자금관련 상담은 60.8%, 경영애로, 회생·파산 등 자금 외 상담은 39.2%가 진행되었다.

【2021년 재기지원 상담실적】

일반상담		전문상담		상담방식			
항목	건수	항목	건수	방문	전화	출장	합계
경영애로진반	725	신용회복	34	369	1,569	221	2,159
재창업자금	1,415	법률상담	3				
재창업교육	12	개인회생,파산	28				
구조개선전용자금	403	M&A	-				
재기컨설팅	204	-					
세무상담	8						
기타(타사업연계등)	159						
소계	2,926	소계	65				

이와 더불어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 후 정례적(분기별) 사후 멘토링을 통해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 마케팅, 연수, R&D 등을 연계지원하여 지원기업의 생존율 제고를 도모하였다. 2021년 사후멘토링은 총 797건 실시되었으며, 경영전략, 대출금 점검, 경영애로 파악, 연계지원 안내 등을 지원하였다.

•MEMO•

정책자금(용자) 지원 현장을 찾아서

신성장기반자금 우수사례



성림첨단산업(주)

정책자금 지원으로 소·부·장 자립화 길을 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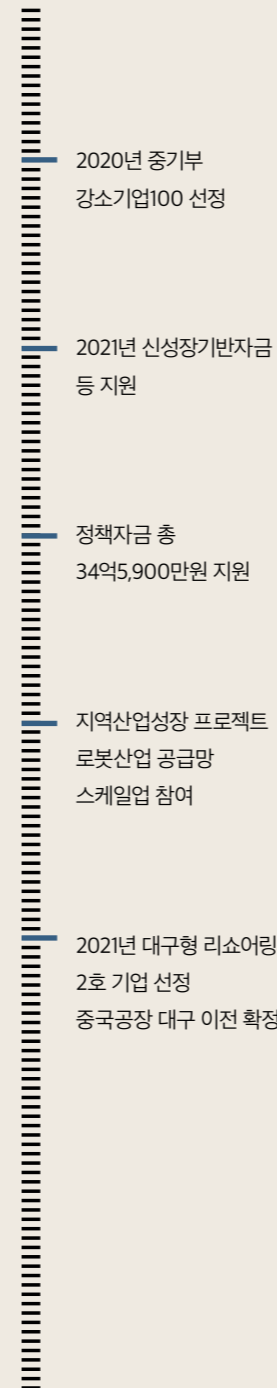
대표자 공군승
 설립 1994년
 주업종 희토류 영구자석 응용 분야
 지원사업 정책자금 지원
 지원현황 2021년 신성장기반자금 등
 34억5,900만원 지원

성림첨단산업(주)는 국내 유일의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업체다. 희토류 영구자석은 희토류와 금속을 혼합하여 만든 자석으로 주로 전자제품과 친환경 구동계(전기차, 하이브리드)에 널리 쓰인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자원의 무기화가 가속화되면서 희토류의 글로벌 공급망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희토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성림첨단산업(주)에도 어려움이 닦쳤다. 희토류 매입가가 오르고, 새로운 공급망을 구하기도 어려웠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중진공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설비를 도입하고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최소의 희토류로 기존 자석보다 높은 성능을 가진 기술 개발에 매진했다. 또한 중진공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인 로봇산업 공급망 스케일업 사업에 참가했다. 이를 통해 대구형



지원 타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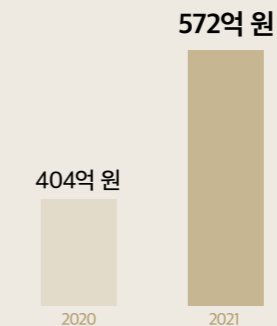


리쇼어링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대구에 새로운 공장을 착공했다. “전에 없던 위기였지만, 회사가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이때 필요한 자금을 중진공으로부터 적시에 지원받아 희토류 소재 기술을 국산화할 수 있었고,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를 통한 중국공장의 국내 이전도 추진하면서 위기를 넘기고 도약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군승 대표는 위기 속에서도 2020년 대비 약 40% 이상 매출이 상승하고 지역인재를 10명 이상 채용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인재 중 박사급 인력을 대거 채용하여 지역의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성림첨단산업(주)은 앞으로 소·부·장 자립화를 통해 한국을 전세계 희토류 강국으로 만든다는 포부를 이뤄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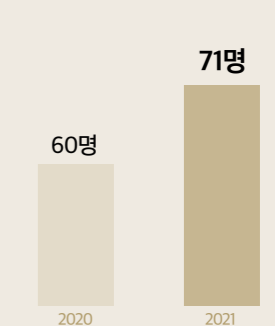
지원성과



매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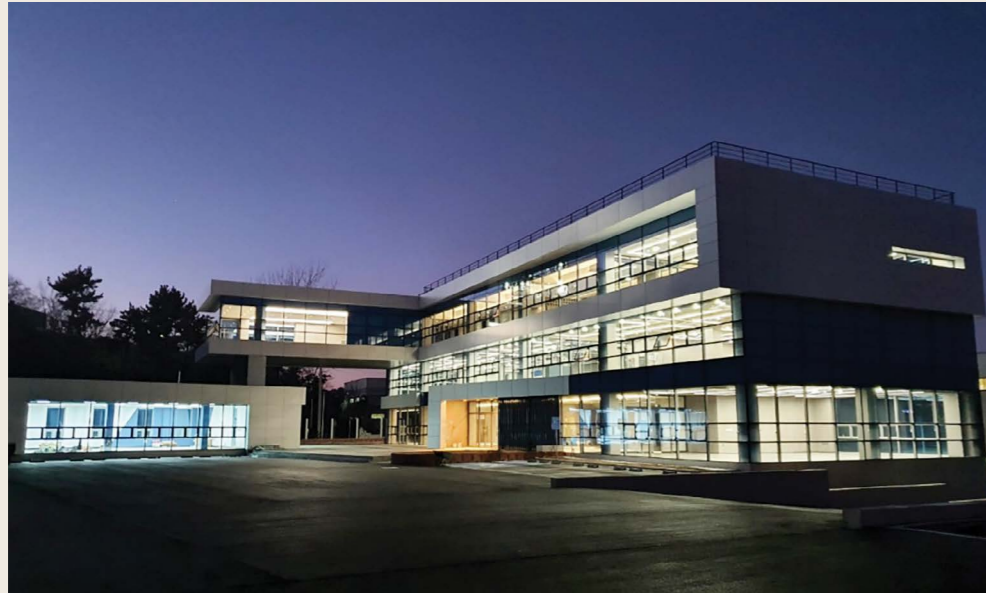


고용 증가



정책자금(용자지원) 지원 현장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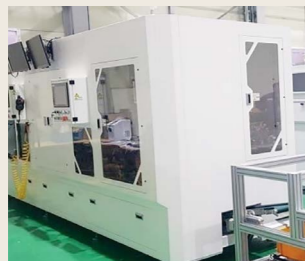
⚙️ 창업기업지원자금 우수사례



(주)엘프시스템

정책자금 지원 덕분에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우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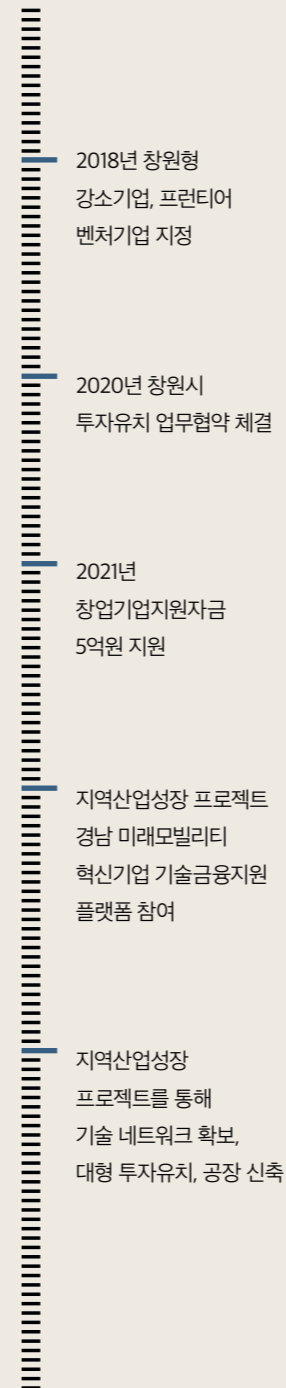
대표자 정병수
 설립 1998년
 주업종 레이저 용접 자동화 장비
 지원사업 정책자금 지원
 지원현황 2021년 창업기업지원자금 5억원 지원



레이저 용접 자동화 장비와 분리판 제조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주)엘프시스템은 문제에 봉착했다. 7건 이상의 특허와 ISO인증 등 관련 산업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20년간 축적된 수소연료전지 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소차를 비롯한 건물 발전용 제조 설비에 강점이 있었지만 창업 이후 수주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규모를 확대해야 했으나 자금수급 등에 애로가 있었다. (주)엘프시스템은 이 문제를 중소기업입진흥공단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지원받아 극복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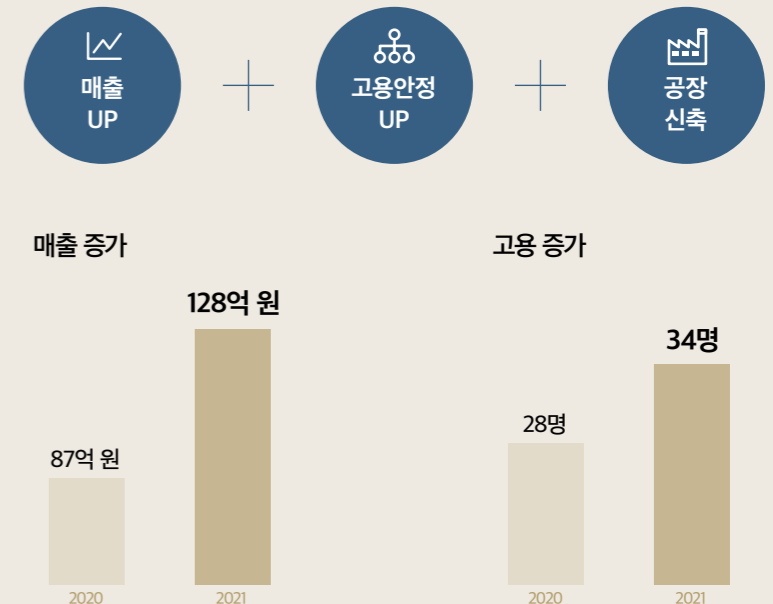
중진공의 정책자금을 통해 부족했던 운전자금의 숨통을 틔운 (주)엘프시스템은 이후 중진공의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중 하나인 경남 미래모빌리티 혁신기업 기술금융지원 플랫폼에 참여하게 되었다. 정책자금 지원과 더불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게 된 것이다. 정병수 대표는 경남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연관기술을

⚙️ 지원 타임라인



가진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대형 투자유치, 신축 공장 추진 등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용자뿐만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주고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알려줘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진공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매출과 신기술 확보에 매진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선도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엘프시스템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 업계의 화두이며 성장 잠재력이 크다. 신규공장 설립과 함께 중진공의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가 맞물리면서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등 밝은 미래를 그리고 있다. 특히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으로 수소연료전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산업기술평가원의 정부과제인 수소전기차용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개발, 경량화 대체소재 기반 고성능 분리판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약 50% 상승하였으며, 중진공 정책자금 등 종합지원을 기반 삼아 시장 확대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지원성과



투융자복합금융

1. 사업개요

성장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용자와 투자요소가 복합된 금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연계회사채(CB, BW) 또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직접 인수하여 지원하는 성장공유형 대출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 발행 회사채를 유동화하여 지원하는 스케일업금융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2011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후, 2012년부터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164개사에 1,400억원을 지원하였다.

【2021년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지원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성장공유형 대출	70,000	259	307,500	98	70,000
스케일업금융	70,000	-	-	66	70,000
계	140,000	259	307,500	164	140,000

3. 세부사업 추진실적

■ 성장공유형 대출

1)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전환우선주 등을 인수하는 대출방식으로 2008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민간투자에서 소외된 성장유망 창업초기기업에 공급을 강화하여 시장진입 및 데스밸리 극복을 지원한다.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2021년도에는 96개사에 700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70.7%, 정보 및 기타 업종이 29.3%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으며, 제조업 중에서 기계금속, 섬유화학, 전기전자, 잡화음식료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2021년 업종별 지원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대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비율
기계금속	71	84,300	28	23,549	33.6
전기전자	14	16,100	10	11,505	2.5
잡화음식료	14	12,300	4	1,750	16.4
섬유화학	19	19,500	11	5,849	18.2
정보	85	120,000	24	12,749	20.9
기타	56	55,300	21	14,598	8.4
계	259	307,500	98	70,000	100

3) 제도개선사항

기존 전환사채 방식의 투자에서 공동 및 후속투자 견인을 위해 상환전환우선주 투자방식을 대폭 확대('20년 65억원 → '21년 374억원)하였으며, 주식전환율을 상향하고 비대면 IR 및 유관기관 협업으로 민간후속투자 2,178억원을 유치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문화의 비대면 전환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대면 산업분야 혁신성장기업에 297억원을 지원하였다. 창업초기기업과 지역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새싹기업 SEED 투자와 규제자유특구기업에 대한 지원도 신규로 실시하였다.

【성장공유형 대출 사업추진체계】



스케일업금융

1)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이 신규로 발행하는 회사채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9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구조화하여 선·중순위증권(70~80%)은 민간에 매각하고, 후순위증권(20~30%)은 재정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미래성장산업 분야 유망기업을 지원하여 중견·유니콘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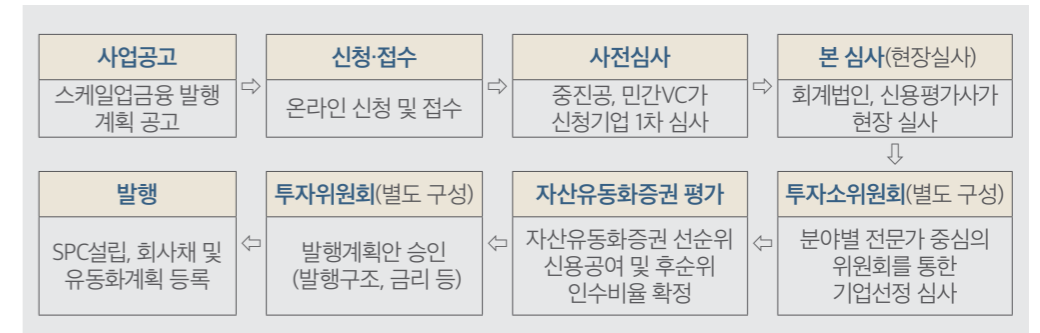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2021년도에는 66개사에 2,373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재정승수효과 3.4배)하여 중소벤처기업의 대규모 스케일업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91.0%, 정보 및 기타 업종이 9.0%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으며, 제조업 중에서 기계금속, 섬유화공, 잡화음식료, 전기전자 순으로 지원비중이 높았다.

【2021년 업종별 지원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21년 스케일업금융		
	업체 수	금액	비율
기계금속	29	103,200	43.9
전기전자	4	18,200	6.2
잡화음식료	12	45,100	18.2
섬유화공	15	49,500	22.7
정보	3	10,600	4.5
기타	3	10,700	4.5
계	66	237,300	100

【스케일업금융 사업추진체계】



3) 제도개선사항

기존 사모사채로 발행되던 유동화증권을 공모사채로 발행하였으며,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지역균형 뉴딜 추진 등의 정책목적으로 ESG채권 인증을 받아 사회적채권(1등급)으로 발행하였다. 이를 통해 투자자 확대로 업체의 조달비용을 절감했으며 유동화증권에 대한 시장신뢰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지원 업체 가운데 혁신성장분야를 영위하는 비중을 확대하여('20년 41.9% → '21년 50.0%) 혁신성장분야 지원을 강화했다.

모태조합 출자

1) 사업개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유망 창업·벤처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태조합 출자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중기부, 문체부, 과기부, 고용부 등 10개 부처(기관)가 참여하고 있으며, 부처 출자 목적 및 특성에 따라 펀드가 운용될 수 있도록 계정별로 운영('21년말 기준 19개 계정)하고 있다.

【계정별 예산현황】 ('21년 12월 말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중진	청년	엔젤	지방	혁신모험	소재부품장비	문화	특허	영화	과기정통	연구개발특구	보건	관광	스포츠	환경	교육	도시재생	국토교통혁신	해양	계
'05-'15	11,101	-	2,090	100	-	-	4,661	1,600	520	1,100	-	800	130	200	-	-	-	-	-	22,302
'16	1,000	-	-	-	-	-	360	-	100	370	-	-	100	200	-	-	-	-	-	2,130
'17	5,000	3,300	-	-	-	-	530	-	180	200	-	-	150	70	200	120	-	-	-	9,750
'18	575	-	-	-	4,000	-	540	200	100	150	-	-	170	100	130	150	-	-	-	6,115
'19	2,400	-	-	-	500	-	630	100	80	150	-	-	130	100	280	150	200	-	200	4,920
'20	5,100	600	-	-	3,700	600	1,130	200	240	150	95	-	300	100	200	150	200	300	200	13,265
'21	8,700	600	-	-	800	600	1,248	200	350	300	95	-	450	130	300	120	100	200	100	14,293
계	33,876	4,500	2,090	100	9,000	1,200	9,099	2,300	1,570	2,420	190	800	1,430	900	1,110	690	500	500	500	72,775

2021년 기준 모태조합은 7조 2,775억원을 출자하여, 총 1,015개, 32조 9,353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운영 중으로 출자금 대비 4.5배의 승수효과를 달성하였다.

정책자금(투융자) 지원 현장을 찾아서

투융자복합금융사업 우수사례



(주)엔캠

정책자금을 밑거름 삼아 한발씩 성장, 코스닥 상장까지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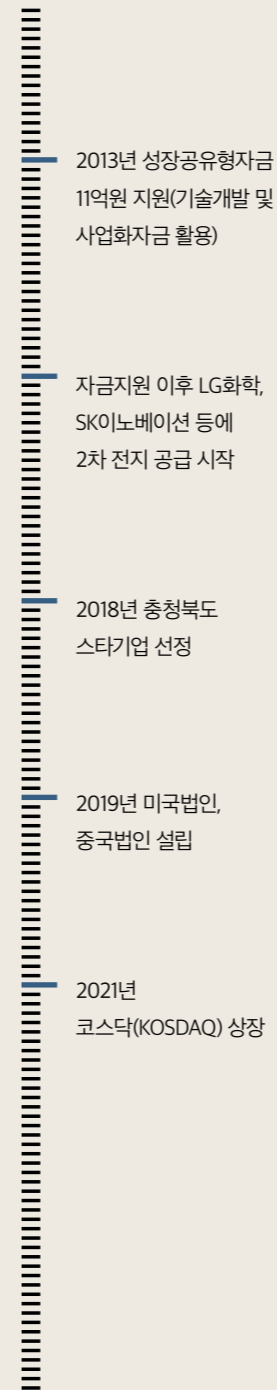
대표자 오정강
 설립 2012년
 주업종 축전지제조
 지원사업 정책자금 지원
 지원현황 2013년 투융자복합금융사업 11억원 지원

충청북도 제천에 소재한 2차 전지 전해액 제조기업 엔캠이 2021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하였다. 엔캠은 지난해 매출 1,371억원을 올렸다. 이는 창업 2년차였던 2013년 대비 68배 성장한 규모다. 2차 전지 전해액 업계에서 국내 1위, 세계 6위에 등극하였고 2019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소재·부품·장비 100대 강소기업'에 선정되었다.

엔캠의 성장 배경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이 있었다. 창업 2년차인 2013년 중진공의 성장공유자금 11억원을 지원받아 원·부재료와 분석 장비를 구입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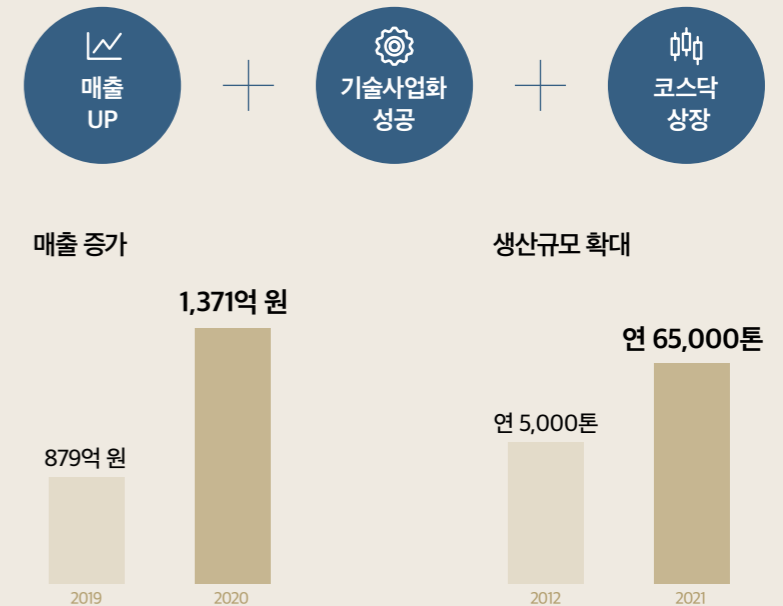
지원 타임라인



중진공 지원을 계기로 LG화학, SK이노베이션, CATL 등 주요 2차 전지 메이커에 양산공급을 시작하였다. 또한 연 5,000톤 규모에 머물렀던 생산능력이 천안공장, 폴란드공장, 중국공장을 증설하며 연 65,000톤 규모로 성장하였다.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2022년까지 생산규모를 연 125,000톤까지 증설할 계획이다.

오정강 엔캠 대표이사는 “기술사업성이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작은 외형과 담보 부족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미래성장가능성에 주목하여 투자하는 중진공의 정책자금 덕분에 성공적인 사업화와 후속투자 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원성과



정책자금(투융자) 지원 현장을 찾아서

스케일업금융지원 우수사례



오토앤(주)

스케일업금융 지원으로 성장 UP! 코스닥 상장 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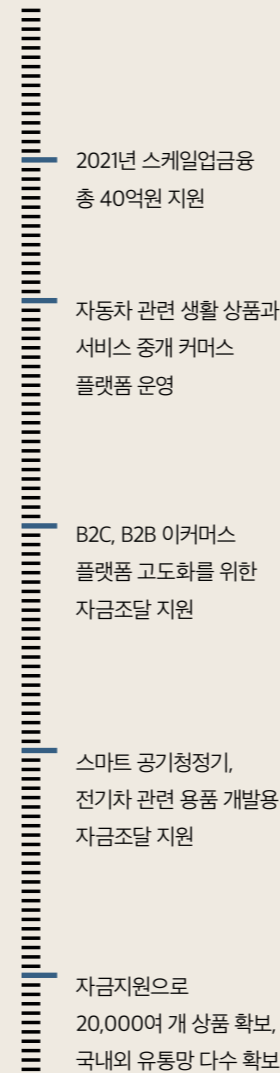
대표자 최찬욱
 설립 2012년
 주업종 자동차 애프터마켓
 지원사업 정책자금 지원
 지원현황 2021년 스케일업금융자금
 총 40억원 지원

오토앤(주)은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로 차량과 IT를 접목해 커머스 기반의 이동수단 전반에 필요한 상품·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라이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 창업 이후 자체 브랜드물, 현대자동차의 블루멤버스카 라이프몰 등의 커머스 플랫폼과 완성차에 적용되는 옵션품 등의 제품·서비스 플랫폼 두 가지를 핵심 축으로 꾸준히 성장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커머스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만큼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오토앤이 이처럼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중진공 정책자금의 역할이 컸다.



지원 타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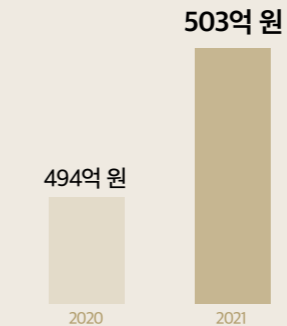
고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원부자재 매입과 플랫폼 고도화가 필수적이었는데, 이를 위한 대규모 자금이 필요했다. 이때 중진공의 스케일업금융 지원을 통해 4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에 성공할 수 있었고, 생산 안정화와 플랫폼 고도화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를 발판 삼아 2022년 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쾌거도 거뒀다.

내년에 전기차 등 완성차 신규 라인업이 발표되면 매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오토앤은 이를 기반으로 모빌리티 라이프의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스케일업금융을 지원받아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오토앤이 코스닥시장 상장에 이어 폭발적 성장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커 나가기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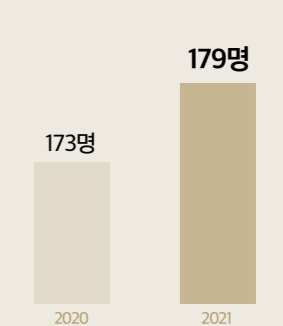
지원성과



매출 증가



고용 증가



기업진단

1. 사업개요

기업진단은 기술·경영 전문가가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분석한 후 개선 로드맵 제시하고, 정책자금, 마케팅, 인력 등 필요한 정책사업을 맞춤형으로 연계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책자금 용자 신청업체에 대한 사전진단 및 용자 후의 사후진단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부실의 발생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기금의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2006년부터 운영중인 기업진단시스템은 중소기업의 외부환경 및 사업성과분석, 기업경쟁력분석 등 7개의 필수모듈과 스마트팩토리 수준진단, 사회적가치 역량진단, 사후관리진단 등 21개의 옵션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단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에 최적화된 모듈을 선정·활용하여 진단을 실시한다.

2.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에 대응하여 신속 지원을 위해 전략적으로 표준진단을 2020년 대비 확대(2,067건→ 4,162건)하였고, 종합 진단은 축소(2,085→ 1,105건)하였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기반 비대면 진단 및 그린·디지털 분야 전문가 집중 컨설팅을 제공하는 챌린지 진단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고탄소 배출기업, 그린분야 기업, 디지털 전환 기업 등 103개사를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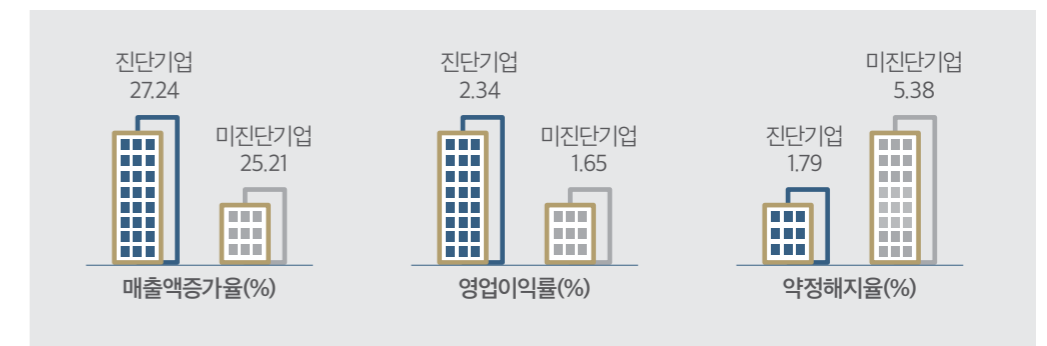
【21년 기업진단 실적】

(단위 : 건)

구분	표준진단	종합진단	챌린지진단	비대면진단
'21년	4,162	1,105	103	6,800
'20년	2,067	2,085	-	-
대상	정책자금 신청	심층분석, 잔액보유	탈탄소, 디지털전환	자가진단, 성과관리
특징	신속지원	종합지원	패키지지원	상시지원

2021년에는 비대면진단 외 총 5,370건의 기업진단(표준진단, 종합진단, 챌린지진단)을 수행하였으며, 정책자금 용자, 기술지원 등 10,799개의 지원 사업을 맞춤형 연계 지원하였다. 진단기업은 미진단기업 대비 매출액증가율이 (+)2.03%p, 영업이익률이 (+)0.39%p 높아지고, 약정해지율은 (-)3.59% 낮아지는 등의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2021년 기업진단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비대면 진단은 웹 플랫폼을 통해 시간, 공간 제약 없이 기업 스스로 진단에 참여하여 기존의 실사 기반의 기업진단 패러다임을 바꾼 차세대 진단 방식이다. 2021년에는 6,800개사에 비대면 진단을 통한 기업분석 결과 및 표준솔루션 제공하였다. 향후 3개년에 걸쳐 단계별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2년 전문가 솔루션 기능 추가, 2023년 인공지능 및 모바일 도입 등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규제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강화 및 ESG경영 전환을 돕기 위해 탄소중립 수준진단과 ESG자가진단을 신규 개발하였다. 탄소중립수준진단은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별, 장비별 에너지 사용현황을 분석하여 탄소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맞춤형 지원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1년 5월 경북 고령의 주물단지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여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ESG 자가진단은 비대면 방식을 통해 기업 방문 없이 기업이 스스로 ESG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ESG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 프로그램으로, 진단결과에 따른 ESG 항목별 수준 및 수준향상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한다. ESG 자가진단은 2021년 12월 개발 완료되어 동월 시범 운영되었다. 2022년부터 중진공은 탄소중립수준진단 및 ESG자가진단을 본격 도입하여 지원기업을 적극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업진단의 전문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기업진단평가아카데미(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기업 진단 및 평가 실무를 위한 생산관리, 재무제표 기초 학습 과정을 포함한 초급 교육과정과 진단 실무, 우수보고서 사례 연구 등의 중급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현장 중심의 진단 전문가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수료자에 대해서는 실무 역량평가(시험, PT평가)를 거쳐 기업진단평가사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데, 2021년에는 4회의 교육을 통해 총 27명의 기업진단평가사를 신규 배출하였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맞춤형 종합 지원기관으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진단 품질 제고를 통해 양질의 기업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MEMO •

기업진단 지원 현장을 찾아서

기업진단 우수사례



(주)클레버

일찍 찾아온 성장통, 중진공 기업진단이 보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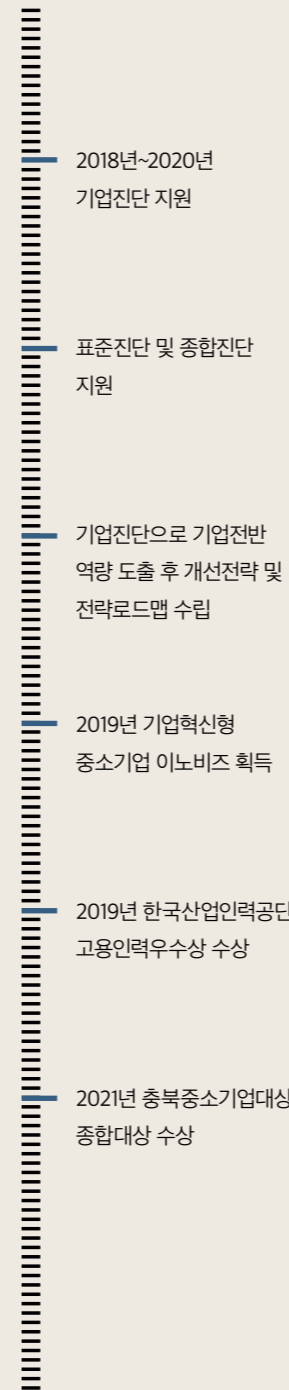
대표자 정중홍
설립 2014년
주업종 2차 전지 설비제조
지원사업 기업진단
지원현황 2018~2020년
기업진단 지원

충북 청주시에 자리한 클레버는 2차 전지 후공정 중 활성화 공정의 폴딩 설비를 만드는 자동화 장비 기업이다. 폴딩 과정에서 크랙으로 인한 2차 전지 배터리 불량 및 화재원인을 해결하는 2종의 파우치 폴딩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16년 국내 대기업이 배터리 양산 설비로 클레버의 롤러 방식 폴딩 설비를 선택함에 따라 매출과 생산규모가 대폭 늘었다. 이에 따라 20억원에 불과하던 매출은 2017년 82억원, 2018년 101억원에 이어 2019년 289억원으로 증가했고, 2020년엔 무려 588억원을 달성했다. 매출 증가만큼이나 인력도 매년 급증했다. 2016년 5명이던 직원 수는 2019년 86명에 이어 2021년 7월에는 114명으로 꺾총 늘었다.



지원 타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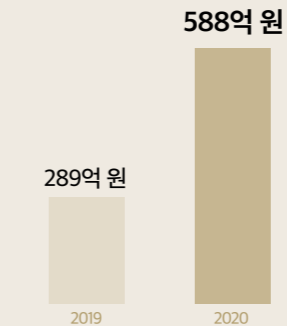
짧은 업력에 비해 기업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중홍 대표의 위기의식은 결코 작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일찍 찾아온 성장통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기업진단이 큰 힘이 되어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클레버는 2018년부터 중진공에서 표준진단과 종합진단을 이어오고 있다. 기업전반 역량 및 강약점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선전략과 전략로드맵 수립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개선활동을 추진한 결과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현재 엔지니어 40여명이 설비 현장 구축을 위해 해외에 나가 있으며 매출 다변화를 위해 다른 2차 전지 제조사와도 접점을 넓히고 있다. 또한 유럽 배터리 업체에서도 장비 수주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반도체 후공정 관련 제품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며, 2023년까지 매출 1,000억원을 올리는 것이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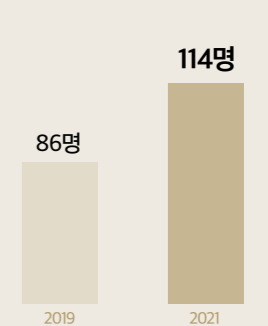
지원성과



매출 증가



고용 증가



기업진단 지원 현장을 찾아서

기업진단 우수사례



(주)다산주철

‘탄소중립수준진단’으로 에너지 비용도 줄이고, 경쟁력도 키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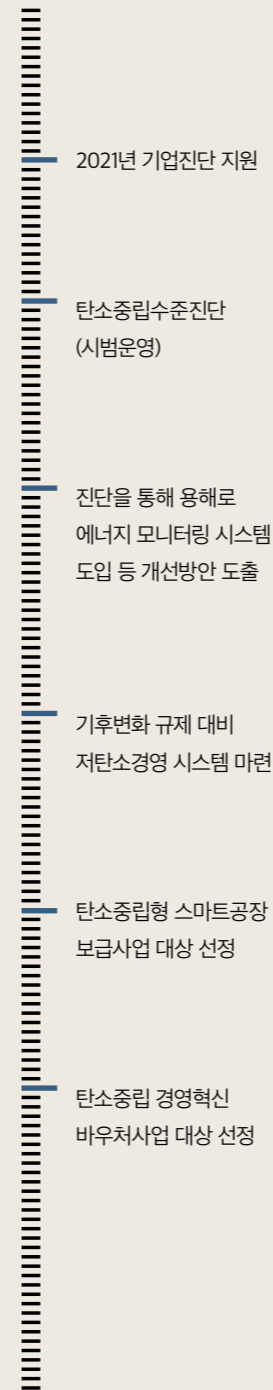
대표자 김종태
설립 2012년
주업종 자동차부품
지원사업 기업진단
지원현황 2021년 탄소중립수준진단 지원 (시범운영)

탄소중립이 시대적 사명으로 떠올랐지만 영세한 뿌리기업들은 고민이 쌓일 수밖에 없다. 날이 강화되는 환경정책과 에너지효율 향상 과제는 현실적으로 뿌리기업에 ‘규제’와 ‘비용’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북 고령의 자동차부품업체 다산주철 역시 이 같은 고민에 빠졌다. 상시 종업원 13명 규모의 다산주철은 업종 특성상 연매출의 10% 수준인 6억3,600만원에 달하는 에너지 비용을 쓰면서 연간 2,920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 다산주철은 자체역량으로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한계를 느꼈다.



지원 타임라인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탄소배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수준진단을 지원받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문을 두드렸다. 다산주철의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한 결과 제품 생산 시 에너지 사용비 개선을 통해 원가절감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위해 용해로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노후화한 쇼트기 교체, 고효율 인버터형 컴프레서 도입 등의 해결책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다산주철은 올해 에너지 사용비용을 4,300만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42톤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난해 에너지 비용 대비 6.7%, 탄소배출량 대비 4.9%를 줄이는 셈이다. 다산주철은 이처럼 중진공의 탄소중립수준진단을 통해 국내외 기후변화 규제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저탄소경영 전환의 기회를 얻고,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지원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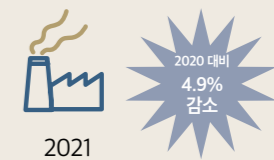
에너지 비용 절감

4,300만원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142톤



글로벌화 및 수출마케팅 지원

수출마케팅 지원

1. 사업개요

글로벌화 및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제74조에 추진근거를 두고 있다.

1979년 해외기술도입 및 중소기업 해외투자지원 등 해외산업협력지원을 시작으로 1996년 공공부문 최초 온라인 B2B사이트인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운영, 1998년 수출인큐베이터(BI)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8년 해외마케팅 지원 창구 단일화 조치 및 2013년 중소·중견기업 총력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현재의 수출마케팅 및 글로벌화 지원사업이 완성되었다.

글로벌화 및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은 32개 지역본·지부의 국내 지원 인프라와 정책자금 등 다양한 연계지원 수단을 통해 '유망내수기업 및 제품발굴 → 육성 →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타 기관과 차별화된 특징이다. 또한 지자체, 수출유관기관과 협업 및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원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수출마케팅사업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수출성공 및 향상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금리환급, 수출전용자금 지원규모 확대 추진을 통한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출성장단계별 (내수기업 → 수출초보 → 수출유망 → 수출성장)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선박 부족 등 물류 애로가 심화되었으며, 온라인 수출 및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확대, 코로나19 재확산, 미얀마 군부 쿠데타 등 수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어려움이 잇따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진공은 물류바우처사업을 신설하고 글로벌 특송사와 협업하여 물류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국내외 온라인수출플랫폼 연계강화와 VR, 3D 등 최신 기술 도입을 통해 온라인수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국내외 중진공 거점을 연계하여 수출 유망기업 발굴 및 사전시장테스트를 지원하는 Pre-BI를 신규 도입하였다. 이처럼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도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총력 대응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에 기여하였다.

【주요사업 및 추진체계】



2.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중진공은 유망 중소기업(제품) 발굴 및 테스트마케팅 강화, 수출성장단계별 맞춤형 수출지원,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출애로를 겪는 수출중소기업의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2021년 **총 66.8억달러의 수출성고**(지원 후 수출액)를 달성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 수급 불균형으로 물동량 증가율(6.7%) 대비 선박량 증가율(4.3%) 차이가 발생하며 전년 대비 평균운임이 3배 상승하고 선박이 부족해진 수출물류환경에 대응하고자 국적선사 HMM과 협업으로 해상운송 상시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FedEx 등 글로벌 특송 서비스 추가 등 항공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수출바우처 사업 내 물류바우처를 신설하여 1,080개사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범부처 협업구축으로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통해 원스톱 애로해소 체계를 구축하고, 해상-내륙을 연계한 신속한 복합운송 추진으로 적기납품을 지원하는 복합운송을 추진하였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단지 기반 마련을 위해 인천국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방위로 물류지원체계를 고도화**하였다.

이를 통해 총 86회 15,899TEU의 중소기업 선복지원을 달성하였으며, 물류거점 확대로 수출중소기업 물류비 794억원을 절감하였고, 1,080개 기업에 물류바우처를 지원하여 수출 5,536백만달러를 달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SM상선·농림부-HMM 협력 등 **정부·민간 협력을 통한 상생협력 선도모델**을 다수 도출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수출유망산업으로 부상한 **K-방역 및 백신 영위기업 집중지원**을 위하여 중진공 현장조직을 활용한 전담 케어 32명을 지정하였다. 전담 케어 운영을 통하여 영위기업 290개사를 발굴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이 가능한 255개사를 대상으로 품목별 맞춤형 사업 326건을 연계 지원하였다. 그 결과 255개사가 1,352백만달러의 수출을 달성하였다. 특히, 수출바우처사업은 진단키트,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혁신바우처에 신산업·K-Bio 모집유형을 신설하고, 혁신바우처 참여기업의 지원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일괄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방위적 백신 영위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주재 10대 유관기관 간 글로벌 백신 허브화 협약을 체결하였다.

3. 세부사업 추진실적

■ 수출바우처사업(내수, 초보, 유망, 성장)

1) 사업개요

수출바우처사업은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수출성장기업 등 수출성장단계에 따라 지원하는 성장바우처와 스타트업, 브랜드K,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글로벌강소기업을 지원하는 혁신바우처로 구성되어 있다. 수출역량강화 교육, 홍보 및 제품 디자인, 온라인 수출지원, 해외시장조사, 해외전시회 참가 등 수출 전 단계에 걸쳐 기업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수출규모별, 역량별 맞춤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저변 확대와 수출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

2021년에는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 혁신바우처 지원분야에 신산업·K-Bio 모집유형을 추가하는 등 지원분야를 세분화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총 109억원 규모의 하반기 추경예산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으로 운용하여 급격한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적극 대응하였다.

【수출바우처 서비스 지원유형】

분류	주요 지원내용
조사/일반 컨설팅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조사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통번역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역량강화 교육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진출 등 수출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재산권/시험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지재산권 분쟁지원등 특허/지재산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등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디자인 개발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BI 개발 등
홍보 동영상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	보험, 해외운송 지원 서비스(국내 및 도착국 비용 제외)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2021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을 개편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였다. 진단키트,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혁신바우처 내에 신산업·K-Bio 모집유형을 신설하고, 혁신바우처 참여기업의 지원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일괄 확대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물류애로를 반영하여 국제운송 지원서비스 메뉴를 신설하였다.

물류애로 장기화에 따라 2021년 추경예산 109억원을 편성하여 물류바우처를 신설하고, 국적선사(HMM)와의 장기운송계약 및 국제운송비를 1,080개사에 지원하여 물류애로 완화와 함께 수출 (+)31.0% 증대, 고용 (+)6.9% 확대 등 지원성과를 창출하였다.

아울러 수출바우처 매칭페어를 연 2회로 확대 개최하여 참여기업의 서비스 매칭을 활성화하고, 해외거점을 활용한 현지판매전을 통해 소비재 해외판매를 촉진하였으며, 수출지원사업 참여이력이 없는 탈락기업 중 일부를 추가 선정함으로써 수혜범위를 확대하였다.

【2021년 수출바우처사업 지원대상 및 한도】

구분	모집유형	지원 대상	지원한도 (백만원)
성장 바우처	내수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0'	30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달러 미만'	30
	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달러 미만'	50
	수출성장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달러 미만'	80
혁신 바우처	스타트업	창업 7년 이내 혁신 스타트업	30
	브랜드K	브랜드 K 선정기업	100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100
	스마트제조혁신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100
	신산업-K-Bio	Big3, 진단키트, 바이오-제약 등 관련 산업 영위기업	100
	글로벌강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및 수출 500만달러 이상의 소부장강소기업	100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 희망 중소기업		14

2021년 수출바우처사업은 수출역량과 잠재적 성장성이 높은 3,929개사에 총 1,173억원을 지원하여 전년 대비 24.5%의 수출성장과 7.2%의 고용증가를 달성하는 등 높은 지원성과를 창출하였다.

【2021년 참여기업 지원성과】

지원기업수 (개사)	지원금액 (억원)	수출성과(천불, %)		고용성과(명, %)	
		실적	증가율	실적	증가율
3,929	1,173	8,941,278	24.5*	101,445	7.2

※ 전체 수출중소기업 수출증가율 16.2% 대비 8.3%p 상회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지역중소기업 수출마케팅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등을 추진하여 지역중소기업의 해외판로개척과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 사업개요

2009년부터 중진공은 해외마케팅창구 단일화 조치에 따라 지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등을 지원하는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등에 지역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기업에 대해 방한 바이어 지원, 수출 상담 등 사후관리까지 제공한다.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전시회 등 현지마케팅이 전면 중단되자, 온라인 기반으로 해외전시회 2회, 무역사절단 39회, 수출상담회 13회, 지역특화해외마케팅 6회 등 비대면 사업을 60회 추진하여 972개사, 4,819회의 상담을 지원하였다.

【2021년 지역중소벤처기업수출마케팅 상담 성과】

유형	실적		성과	
	횟수(회)	참가기업 (개사)	상담금액 (백만달러)	상담 횟수
해외전시회	2	10	2	175
무역사절단	39	658	10,553	3,569
수출상담회	13	185	89	909
지역특화해외마케팅	6	119	1	166
합계	60	972	10,645	4,819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은 지원기업 582개사* 중 85.9%인 500개사가 비수도권 소재기업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정책자금, 연수, 기업진단 등 연계지원을 통해 정책자금 339건, 연수 658건, 기업진단 123건 등 총 1,120건을 지원하였다.

【2021년 지역중소벤처기업수출마케팅 연계지원 실적】

사업명	참가 업체 수*	연계지원(건수)			
		정책자금	연수	기업진단	계
해외전시회	8	4	1	1	6
무역사절단	343	243	406	80	729
수출상담회	161	52	139	19	210
지역특화	104	40	112	23	175
합계	616	339	658	123	1,120

※ 사업내 중복기업 제거한 기업 수임

* 총 지원기업 972개사 중 중복기업 제외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

1) 사업개요

청년글로벌마케터 사업은 청년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글로벌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청년기업 대상 교육 및 온-오프라인 수출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2021년 주요 지원내용】

세부사업	지원기업	주요 지원내용
교육 및 멘토링·컨설팅	93개사	• 집합교육·온라인 무역교육 90개사 수료, 사내 멘토링 지원(월12만원) 85개사, 수출 컨설팅 89개사 지원
해외현지 마케팅	13개사	• 현지 활동을 위한 항공료·체재비 13개사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수출지원 대체추진
화상상담회	83개사	• 중국, 홍콩·대만, 동남아, 미국, 유럽·중동 등 바이어 122개사 매칭 및 총 287회 화상상담 참여(업체당 3.4회) * 상담 27,141천달러, 계약예상 14,341천달러, 실계약 119천달러
비대면 해외마케팅	56개사	• 해외바이어 핀셋발굴 및 수출상담(41개사), 해외소셜플랫폼 수출지원(15개사) 지원
글로벌시장 진출 종합컨설팅	50개사	• 전문가 활용 기업진단, 주요 타켓 국가별 홍보동영상 제작, 맞춤형 1:1 컨설팅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등
청년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50개사	• 기업홍보자료 작성, 그룹 멘토링, PR동영상 제작, 수출마케팅 교육 등 수출 전문인력 양성 지원

2021년에는 총 162개사를 지원하였으며, 이 중 수출기업 123개사의 수출성장률은 19.2%로 중소기업 전체 수출증가율 17.6% 대비 1.6%p 높은 성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내수기업 39개사 중 8개사가 첫 수출에 성공하여 20.5%의 첫 수출성공률을 달성하였다.

【2021년 참여기업 수출 성과】

참여업체	구분 [※]	실적	대상기업
162개사	수출기업의 총 수출액 증가율	19.2%	123개사
	내수기업 중 지원년도 수출실적 발생기업	8개사(20.5%)	39개사

※ 전년도('20) 수출실적 0인 기업을 내수기업으로, 1달러 이상인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분류함

글로벌조달마케터사업

1) 사업개요

글로벌조달마케터사업은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21년 신규사업으로, 주요 지원내용은 국제기구 조달시장 종합컨설팅, 조달마케터 인력육성 지원이다.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최근 3년간 연 10건 이상의 입찰수요가 있고 한국기업이 수주 가능한 유형으로 8대 유망 품목을 지정하였으며, 해당 품목 관련 중소기업 4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국제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8대 유망품목】

순위	품목	순위	품목
1	소재·부품·장비	5	인프라
2	보건·의료	6	그린뉴딜
3	농업·식량	7	교육·컨설팅
4	물류·운송	8	시스템·통신

참여기업 40개사 모두 기본교육(8시간)인 “국제기구 조달시장의 이해와 성공전략”을 수강하였으며, 이 중 10개사는 심화교육(80시간)인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실무중심 교육”을 수료하였다. 교육 후에는 조달실무 및 입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 제공하였다. 그 결과 전원 UN조달 벤더등록에 성공하고, 8개사는 UNOPS Possibilities 승인을 취득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후에는 UNGM 및 UNOPS 입찰을 전방위로 지원하여 총 181건(UNGM 입찰 141건, UNOPS Possibilities 40건)의 투찰을 진행하였으며, 참여기업 1개사는 수주에 성공하여 23,800달러 규모의 조달계약을 체결하였다.

【참여기업 일반 입찰 내역】

구분	40개사	
	총 개수(건)	비중(%)
EOI(Expression of Interest)	93	65.95
RFI(Request for Information)	3	2.12
ITB(Invitation to Bid)	27	19.14
RFQ(Request for Quotation)	12	8.51
RFP(Request for Proposals)	3	2.12
Individual consultant	1	0.70
기타	2	2.12
총합	141	100

【참여기업 입찰 수주 성과】

기업명	발주기구	수혜국	발주물품	납품금액
(주)미코바이오메드	UNHCR(유엔난민기구)	에티오피아	PCR 진단키트	23,800달러

수출마케팅 지원 현장을 찾아서

수출바우처사업 우수사례



(주)쓰리아이

수출바우처로 메타버스 수출기반을 마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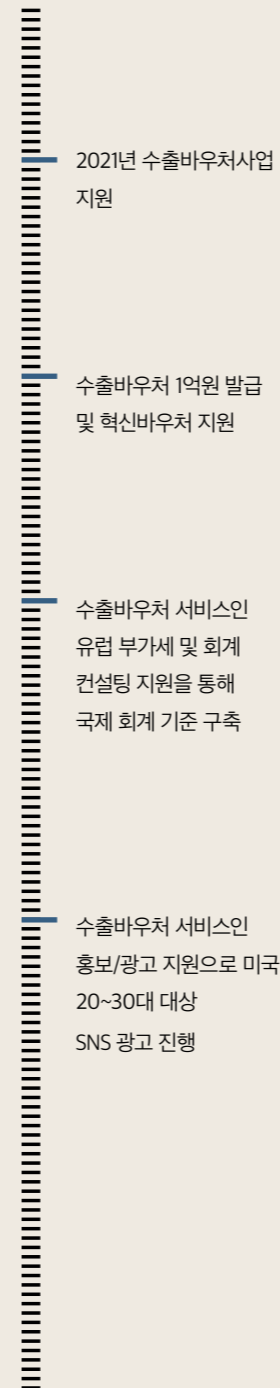
대표자 정지욱
 설립 2017년
 주업종 영상 콘텐츠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수출바우처사업
 지원현황 2021년 수출바우처사업 1억원 지원

(주)쓰리아이는 첨단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가상현실(VR) 영상 콘텐츠 솔루션 개발 전문기업이다. 360도 촬영이 가능한 영상 솔루션 '피보'와 기업용 가상현실 시설물 관리 솔루션 '비모'를 개발해, 해외시장 공략에 나섰으나 문제가 발생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 규모가 빠르게 커지다 보니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수출 관련 마케팅, 특허출원, FTA, 세금, 회계 등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챙겨야 했으나, 비용에서부터 전문가를 찾는 일까지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다. 쓰리아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바우처사업의 문을 두드렸다.

그동안 유럽에 수출하면서 애로를 겪었던 부가세 신고, 납부 등을 수출바우처와 함께 진행했는데, 덕분에 유럽 부가세 문제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미국, 유럽, 일본,



지원 타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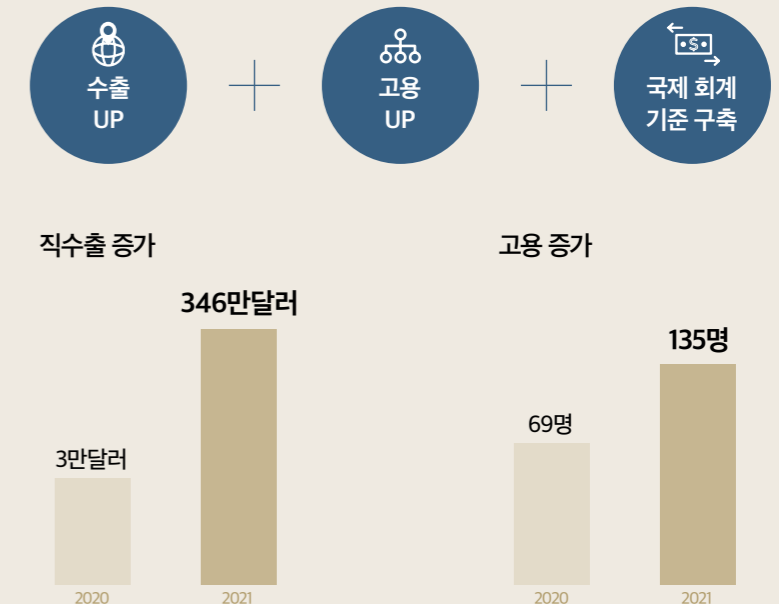


인도 등 8개국으로 늘어난 지사의 회계 처리를 글로벌 기준으로 맞추는 작업도 병행했다. 국내법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회계 시스템을 국제 기준으로 통일하는 컨설팅을 지원받은 결과 내부에 회계팀을 신설하고, 회계분야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정지욱 대표는 “수출을 하다 보니 해외 특허출원, 세금, 회계, FTA 등 많은 부분과 부딪쳤는데, 수출바우처는 자력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이런 부분을 내실 있게 채워준 유용한 지원사업”이라며 “자금 지원을 넘어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깨닫게 해주는 튼튼한 수출 발판”이라고 수출바우처에 감사를 표했다.

(주)쓰리아이는 2022년을 본격적인 도약의 해로 삼았다. 주력 서비스인 피보와 비모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전세계인에게 더욱 풍성한 디지털 가치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것이 정지욱 대표가 꿈꾸는 메타버스이자 기업의 최종 비전이다.

지원성과



수출마케팅 지원 현장을 찾아서

수출바우처사업 우수사례



(주)타누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로 꽉 막힌 바닷길을 뚫고 수출 고공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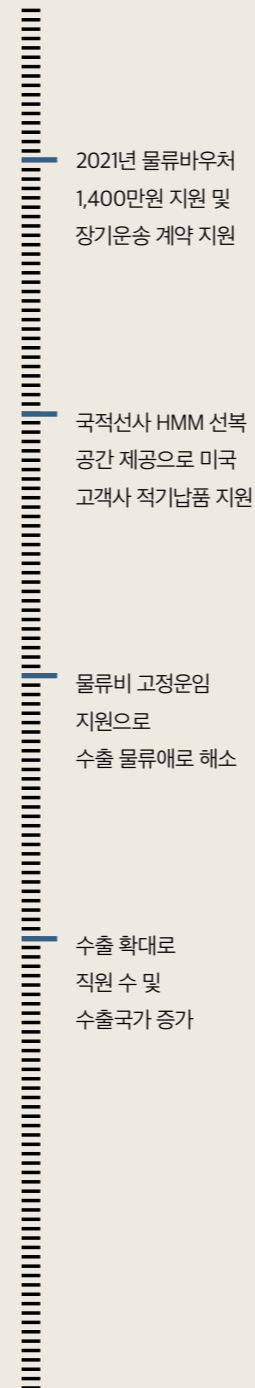
대표자 이영기
 설립 2011년
 주업종 에어리스 타이어
 지원사업 수출바우처사업
 지원현황 2021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1,400만원 지원

(주)타누스는 에어리스 타이어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자전거 부문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60%를 자랑하며 글로벌 1위를 달리는 성장기업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물류대란으로 물류가 삐걱거리자 문제가 잇달아 불거졌다. 미국 로스앤젤리스항과 롱비치항에서 화물선 하역 대기기간이 길어지고 컨테이너 화물선이 줄면서 바닷길이 막히자, 수출물량이 쌓이고 물류 창고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외부에 다른 공간을 확보했으나, 대여 비용이 한 달에 수천만 원을 웃돌았다. 또 제품을 보낼 수 없으니 매출로 이어지지 않아 현금 유동성까지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수출바우처사업의 문을 두드렸으며, 다행히 수출바우처 지원으로 물류애로 위기를 무사히 넘길



지원 타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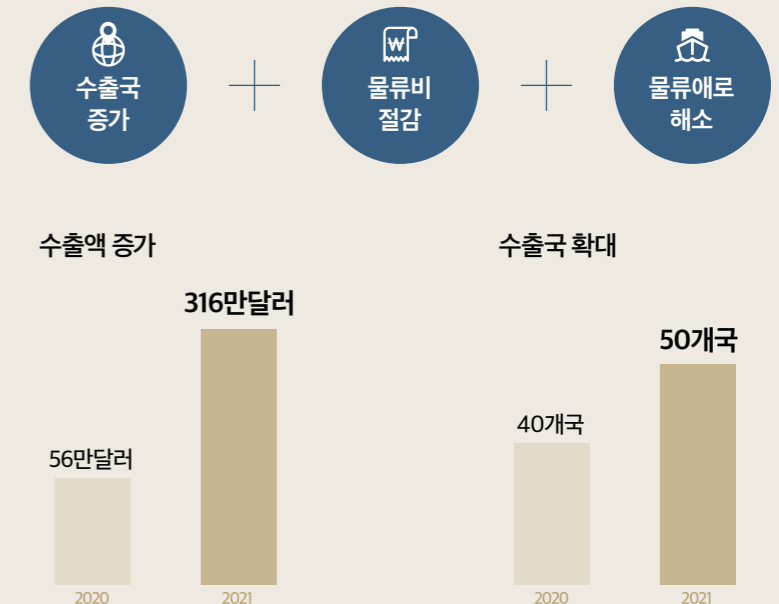


수 있었다. 국적선사 HMM에 자사 공간을 제공받아 막힌 바닷길을 뚫고 미국 고객사에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했으며,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류비도 고정운임으로 지불해 부담을 덜었다.

“수출바우처로 물류비를 지원받고, 고정운임으로 비용 부담을 해소한 것도 큰 도움이 됐는데, 무엇보다 대기업도 구하기 어려운 선복을 확보해준 게 정말 유용했습니다. 바닷길을 뚫을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 된 거니까요. 그 덕분에 4개월가량 밀렸던 수출물량을 일정 정도 해소했습니다.”

이영기 대표는 이 같은 수출바우처 지원에 힘입어 2020년 56만달러이던 수출이 2021년 316만달러 규모로 뛰었으며, 직원도 2021년에 10명 더 추가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타누스는 고관절 보호대 의료기기 인증을 위한 임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신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등 사업다각화와 더불어 해외 총판을 확대해 글로벌 자전거 브랜드 및 대형유통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지원성과



온라인수출지원

1. 사업개요

온라인수출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 진출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교육·인력양성, 온라인몰 및 자사몰을 활용한 판매·마케팅 등 온라인수출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수출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2.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은 2,502개사에 온라인수출 인프라 구축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여 128백만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온라인수출대행 사업은 국내외 협력 플랫폼을 확대하고 시장별 특화 전문 셀러를 활용하여 수출대행 방식을 다양화하였으며, 자사몰 진출사업은 D2C, IT서비스 등 보조금 사용범위 확대 및 국내외 온라인플랫폼 전담 집중 육성 트랙 설치를 통해 163백만달러의 실적을 창출하였다. 이외에도 수출중소기업의 장기운송 지원을 위해 HMM(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EMS정상가 대비 68.6% 물류비 할인률을 달성하는 등 물류 애로해소 및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3. 세부사업 추진실적

온라인수출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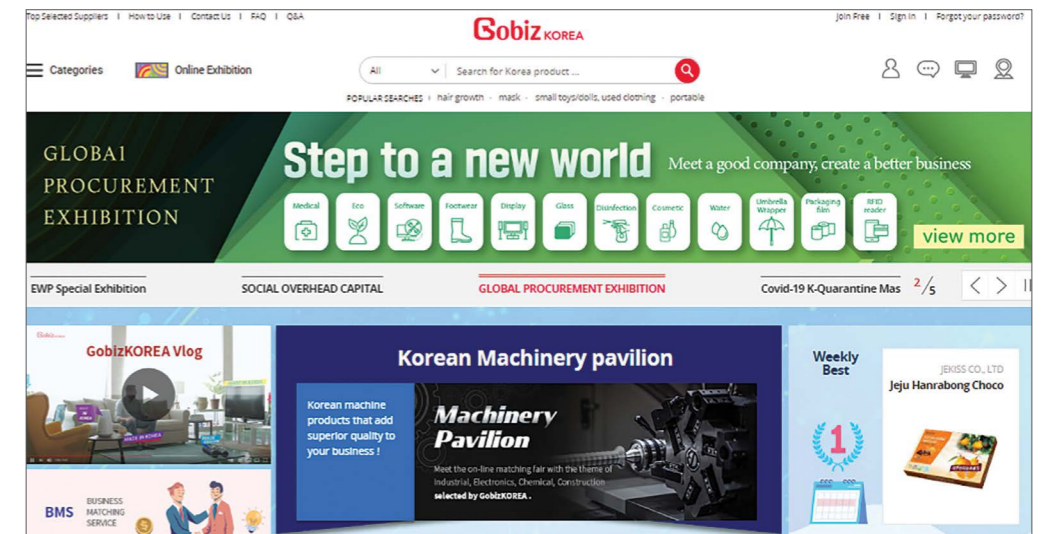
1) 사업개요

온라인수출플랫폼(Gobizkorea) 사업은 온라인 수출기업 육성 및 수출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1996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대표적인 온라인 수출사업이다.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 온라인마케팅 지원, 온라인 거래알선 및 사후관리 등 온라인 수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고비즈코리아 플랫폼(www.gobizkorea.com)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 및 온라인마케팅 지원

고비즈코리아(www.gobizkorea.com) 내에 동영상, 4D 등을 활용한 상품페이지와 기업이 자체 홍보용 홈페이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관(Seller's store)을 제작하여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유명포털사이트(구글, 야후 등)에 중소기업들을 상위 노출시키기 위한 검색엔진최적화(SEO) 및 키워드 광고를 지원하여 신규 바이어 유입과 유효 인과이어리 발굴도 지원한다. 또한 기업 및 상품 특성에 따라 리뷰동영상 제작, 해외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21년 약 1만6천개의 신규 수출 유망상품을 발굴하였고, 총 128백만달러의 온라인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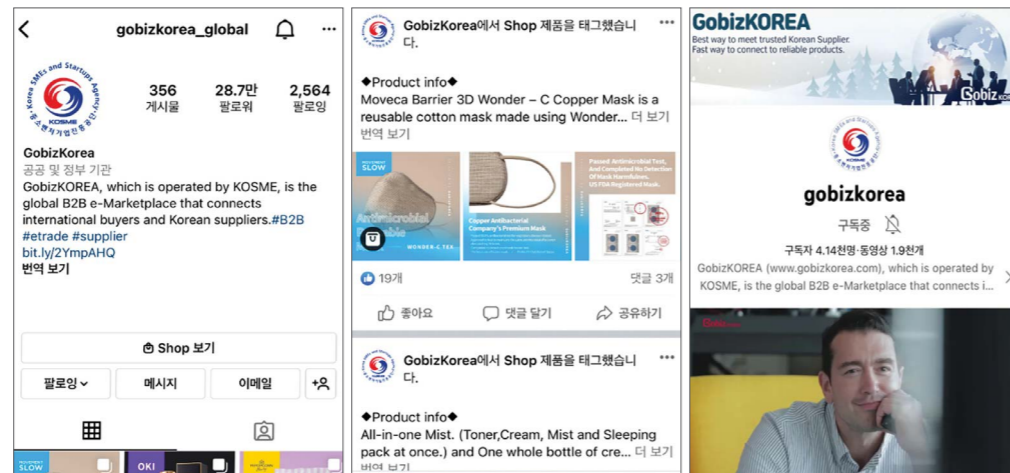


● 온라인 거래알선 및 사후관리 지원

고비즈코리아 등을 통해 유입되는 해외바이어의 구매오퍼에 대해 「인콰이어리 검증 → 對 바이어 협상 → 수출계약 체결 → 사후관리」의 수출 쏠단계를 지원하는 구매오퍼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총 35,498건의 사후관리를 지원하였다. 특히, 무역전문가를 활용하여 해외바이어의 유효한 구매오퍼를 적극 발굴하여, 수출유망 중소기업과 3,084건을 매칭, 온라인 수출 거래성사를 지원하였다.

●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온라인수출플랫폼 활성화

고비즈코리아에 축적된 데이터(국내기업 상품정보, 해외바이어 관심품목 등)를 시화하여 최적의 국내기업 추천하고 뉴스레터를 발송하여 홍보를 추진하였다. 또한, 고비즈코리아 SNS 채널(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활성화하여, 국내 우수기업 및 상품 홍보, 자체이벤트, 정책 홍보 등을 통해 팔로워 수 60만명, 페이지뷰 53백만뷰를 기록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비즈코리아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위해 SNS 활용도가 높은 대학생과 일반 소비자 40명을 선발하여 고비즈 서포터즈를 운영, 총 346건의 홍보 및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이외에도 최대 70% 이상의 할인과 무료샘플 등을 제공하는 고비즈Week 프로모션을 실시하여 104개사 173개 제품에 대해 총 674건의 인콰이어리를 획득, 958천달러의 수출을 달성하였다. 그 결과 2021년에는 22백만명이 고비즈코리아에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비즈코리아 SNS채널



고비즈 서포터즈 운영

고비즈 Week

● 전자상거래 동향 등 온라인 수출 정보제공 강화

국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비즈코리아(한글사이트) 내에 온라인수출지원사업 소개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동향, 해외바이어 정보, 수출관련 교육자료 등을 함께 제공하였다. 아울러 반응형 모바일 버전(국문)을 신규 오픈하여 실시간으로 수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의 고비즈코리아 사용 편의성을 확대하였다.

【최근 3개년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실적】 (단위 : 건, 개사, 백만달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입점기업수(누적)	61,218	68,021	72,634
구매오퍼	20,374	32,271	35,498
수출성과	53	114	128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성공사례】

<p>(주)샘시크코스메틱</p>	<p>고비즈수출지원 _ 일본 270,000달러 수출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수출플랫폼에 등록된 일본 바이어를 활용, 일본 현지인 피부에 특화된 제품의 강점을 부각하여 거래성사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상품리뷰 동영상 등을 활용, 차년도 신규 시장(중국) 진출 예상
<p>(주)오렌지몽키코리아</p>	<p>고비즈수출지원 _ 중국 1,200,000달러 수출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수출플랫폼에 등록된 중국 바이어를 활용, 화상 미팅 진행 및 샘플 테스트 후 첫 오더 실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활용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여러 국가 E-Commerce 플랫폼에 입점 검토 중
<p>(주)라이프투게더</p>	<p>구매오퍼사후관리 _ 중국 2,861,552달러 수출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비즈코리아를 통한 구매오퍼 수신 및 무역 전문가를 활용, 화장품 샘플 발송 후 본 발주를 통한 거래성사 중국바이어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 280백만달러 수출 성사 및 현지 유통망 확장으로 차년도 수출 확대 예상
<p>(주)안마지엔에스</p>	<p>BMS _ 홍콩 1,000,000달러 계약 체결 및 납품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바이어 알선(9건)을 통해 최종 1개의 홍콩 바이어와 거래성사로 수출계약 및 납품 진행 중 세계 최초로 에스컬레이터 자동살균기(클리어원)를 개발,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차년도 수출 확대 기대

전자상거래활용 진출지원 사업

1) 사업개요

전자상거래활용 진출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온라인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온라인수출대행, 직접수출, 자사몰 진출 등 단계별 육성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온라인수출대행, 온라인직접수출, 자사몰 진출, 온라인전시회, 온라인공동물류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2021년에는 총 7,837개사를 지원하여 462백만달러의 판매실적을 달성하였다.

● 온라인수출대행 사업

온라인 수출대행 사업은 글로벌 쇼핑물 판매경험이 풍부한 기업을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수출 및 판매에 필요한 과정을 대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 및 중진공이 공동모집·선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북미, 중국, 신남방 등 전자상거래 주요 시장별로 지정된 전문셀러를 통해 온라인수출에 필요한 상품페이지 제작부터 입점, 마케팅, 해외배송까지 대행한다. 2021년에는 지원방식 다양화를 위해 국내외 협력 플랫폼을 확대하고, 시장별 특화 전문셀러를 활용하는 등 수출대행 방식을 다양화하였으며, 일본, 러시아 등 현지 쇼핑물 내 한국관 구축 및 라이브 커머스를 지원하였다. 그 결과 지원기업 3,658개사가 31백만달러의 판매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온라인수출대행 성공사례 (주)굿지앤

(주)굿지앤은 주력제품인 커큐민 건강식품 '나노큐민'을 미국에 출시하기 위해 아마존에 입점하였으나, 수출경험과 역량 부족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온라인 수출대행 사업 참여 후, 상품에 대한 정확한 번역과 알고리즘을 활용한 키워드 광고, 제품의 장점을 살린 이미지 제작 지원 등을 통해 전년 수출액 대비 260% 증가한 36,000달러의 수출실적을 이뤘다.

● 온라인직접수출 사업

온라인직접수출 사업은 전문기업을 활용한 글로벌 쇼핑물 입점 교육·컨설팅, 테스트마케팅 및 유망기업 후속마케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기업과 참여기업을 매칭하여 교육을 포함한 단계별 컨설팅 및 테스트마케팅 등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1,003개사가 83백만달러의 판매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온라인직접수출 성공사례 (주)이지앤트리

B2C 수출 경험이 없었던 천연화장품 제조기업 (주)이지앤트리는 미국 아마존에 입점하였으나 아마존의 알고리즘 파악 및 노하우 부족으로 특별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온라인직접수출 사업에 참여 후, 체험단마케팅, 키워드광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에 투자하여 전년 수출액 대비 174% 증가한 318만달러의 수출실적을 이뤘다.

● 자사몰 진출 사업

자사몰 진출 사업은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의 자가쇼핑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온라인을 통한 자사 쇼핑물 홍보·마케팅 비용뿐만 아니라 쇼핑물 리뉴얼, IT서비스 활용, 결제 서비스 등 쇼핑물 운영 전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2021년에는 직접판매, IT서비스 등 보조금 사용범위를 확대하였고, 국내외 온라인플랫폼 전문기업 집중 육성 트랙을 신설하고, 우수 자사몰 비대면 IR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을 다양화하였다. 그 결과 지원기업 84개사가 163백만달러의 판매실적을 달성하였다.



자사몰 진출 성공사례 (주)에이치엠인터내셔널

(주)에이치엠인터내셔널은 세계최대 규모의 케이팝 커머스 플랫폼인 '케이타운포유' 운영사로, 전 세계 소비자들의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사몰 서버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자사몰 진출 사업에 참여 후, 클라우드 서버구축비용 등 IT서비스 지원을 받아 지난해 15개국이던 수출국이 올해는 157개국으로 늘고, 99명이던 직원은 155명으로 증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이뤘다.

● 온라인전시회 사업

온라인전시회 사업은 중소기업 수출 비즈니스 연속성 유지를 위해 AR, VR 등 IT기반 콘텐츠를 활용하여 오프라인의 '물리적·시간적·비용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전시회를 연중 상시 개최하고, 원격오프라인 수출상담과 연계한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수출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는 동영상 콘텐츠 제작과 보유 콘텐츠 활용 마케팅의 2-Track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926개사에 상설 전시관 구축 및 브랜딩을 통한 전시관 활성화 마케팅과 콘텐츠 제작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은 다품종·소량 물량을 취급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특성상 물류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의 물량을 집적하여 물류비 절감 및 해외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2021년에는 글로벌 플랫폼(6개사) 및 전자상거래 특화 민간물류사(8개사)와의 협업을 통한 원스톱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최저 물류단가 제공, 국내 및 해외 물류창고 지원, 국가·시즌별 물량집적 프로모션을 지원하였다.

2021년에는 총 2,166개사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하였으며, EMS 비용을 기존 할인율 목표(50%)보다 18.6%p 높은 68.6%로 할인 제공하고, 물류거점 지원 및 물량집적 프로모션을 통해 185백만달러의 판매실적을 달성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온라인전시관



자사물 비대면 IR

• MEMO •

온라인수출 지원 현장을 찾아서

온라인수출대행 우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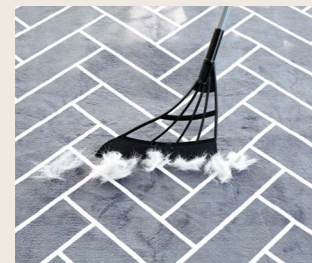
(주)큐어라이프

온라인수출대행 사업 덕분에 일본 수출 판로를 찾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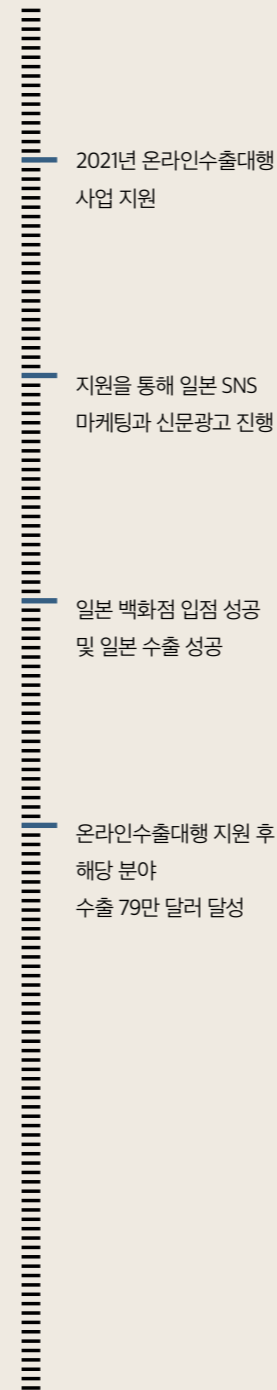
대표자 양혜정
 설립 2018년
 주업종 빗자루 등 청소용품
 지원사업 온라인수출
 지원현황 2021년 온라인수출대행 사업 지원

(주)큐어라이프가 선보인 기능성 빗자루 '쓰리잘비'는 출시 직후부터 많은 이들의 호응을 받았다. 일반 빗자루와 달리 먼지, 쓰레기, 앞질러진 액체를 말끔히 청소할 수 있는 데다가 마루, 카펫, 거울, 유리, 타일 등 생활 속 모든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던 때문이다.

국내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 선보인 쓰리잘비 J01이 성공적으로 데뷔하자 (주)큐어라이프는 빗자루의 크기와 길이를 키운 '쓰리잘비 J02'를 출시해 연타석 흥행을 쳤다. 국내에서 높은 제품력을 인정받은 만큼 (주)큐어라이프는 해외로도 눈을 돌렸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해외 수출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가 전무했으며, 고민 끝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졌고 동물시장이 활성화된 일본을 첫 수출국으로 택했다. 이를 위해



지원 타임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온라인수출대행 사업에 참여, 일본 수출의 문을 열었다. 이를 통해 일본의 대표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진출해 목표 대비 11,000%에 달하는 금액을 모으며 해외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 초에는 일본 최대 홈쇼핑 기업 QVC에서 하루 종일 진행되는 특집 방송의 주인공이 되어 10만 개에 달하는 판매고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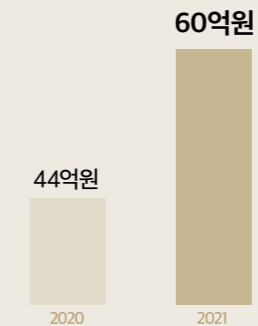
“온라인수출 판매 확대를 위해 일본 내 SNS 마케팅과 신문광고를 진행하였고, 일본 시부야 백화점에 입점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쓰리잘비에 대한 미국 클라우드 펀딩도 진행해 성공리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온라인수출대행 사업이 든든하게 지원해 줬기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양혜정 대표는 온라인수출대행 사업이 (주)큐어라이프의 수출 증가를 견인했으며, 이를 통해 얻은 경험은 수출 경쟁력이 되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전했다. 큐어라이프는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후속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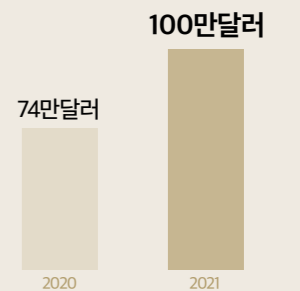
지원성과



매출 증가



수출 증가



온라인수출 지원 현장을 찾아서

자사몰 진출 우수사례



(주)에이피알

자사몰 지원에 힘입은 싱가포르 맞춤형 전략이 빛은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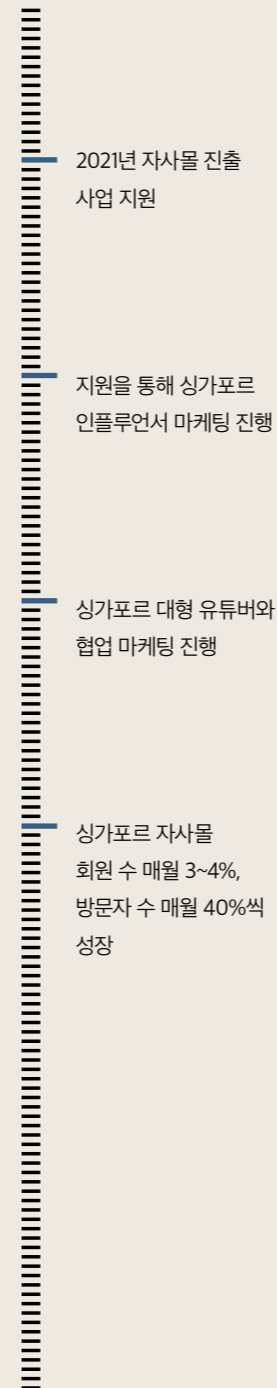
대표자 김병훈
 설립 2014년
 주업종 화장품
 지원사업 온라인수출
 지원현황 2021년 자사몰 진출 사업 지원

(주)에이피알의 김병훈 대표는 코스메틱 아이템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기반을 다졌다. 이후 창업 7년여 만에 메디큐브, 오리진 등 6개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싱가포르, 미국, 홍콩 등 6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했다.

에이피알은 2017년부터 해외시장으로 보폭을 넓히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홍콩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대만, 미국, 일본 등에 자사몰을 론칭했다. 특히 싱가포르 자사몰은 해외시장 개척의 모범사례로 꼽힐 만큼 성장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급변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더욱이 4개국에 동시에 자사몰을 론칭했던 터라, 판매 관리비 등에 대한 자금 압박이 적지 않았다.



지원 타임라인



“자사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금 압박이 더해졌기에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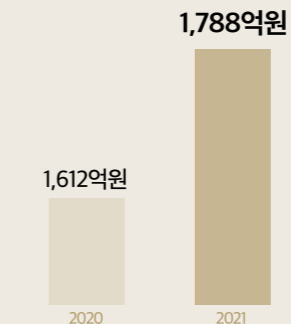
김병훈 대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사몰 진출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해 자사몰로 고객을 유입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구독자 100만 명 단위의 대형 유튜버를 섭외해 광고 영상을 제작했으며, 이를 SNS 광고에 활용했다. 유명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마케팅은 기대 이상의 결과로 돌아왔다. 자사몰 회원은 매월 3~4%씩, 방문자는 매월 40%씩 꾸준히 상승했다. 이는 고용 창출로 이어져 2020년 말 249명이던 직원이, 2021년 332명으로 늘었다.

“온라인수출 지원 사업 덕분에 싱가포르 자사몰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 점유율을 강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사몰 회원 수와 방문자 수가 늘고, 잠재적인 충성 고객을 확보한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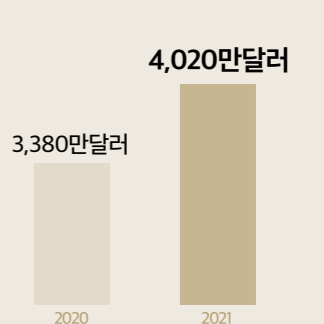
지원성과



매출 증가



수출 증가



글로벌화 지원

1. 사업개요

글로벌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독립 사무공간 제공에서부터 회계·법률 자문 서비스, 현지 창업생태계 진입 및 투자유치, 해외기술교류, 해외지사화사업 등을 통해 현지시장 진입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선언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춰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현지화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하였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 전 사전테스트를 지원하는 사전입주제 Pre-BI를 도입하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 맞추어 신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개도국 산업화 협력지원을 위해 ODA 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신시장 개척의 기회를 다지게 되었다.

2.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글로벌화지원플랫폼사업은 급변하는 글로벌 대외환경에 발맞춰 전략시장별 현지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혁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였다. 6개국 8개 현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기업 113개사가 180억원의 현지 투자유치를 받아 해당국가 수출증가율 66.4%를 달성하였다. 이는 2021년도 국가전체 중소기업 수출증가율 16.2% 대비 50.2%p 높은 성과를 거둔 것이다.

또한, 수출유망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거점과 해외거점을 연계하여 사전 시장테스트를 지원하는 사전입주제인 Pre-BI를 도입하여 수출유망기업 549개사를 발굴 및 지원하였다. 지원기업은 해당국가 수출액 583백만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사업수요와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2년 신규예산 10억원이 편성되었다.

글로벌협력기반구축사업은 국제기구 및 해외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과 MOU체결, 신남방·신북방 국가 네트워크 강화, 산업협력관 교류, 매칭상담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협력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제무역센터(ITC) 등 국제기구와 협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 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한-중국 기술교류센터(CKTEC)를 신규개소하고 기술교류국 협업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기술계약 19건, 업무협약(MOU) 123건 체결 등의 교류성과를 창출하였다.

3. 세부사업 추진실적

글로벌화지원플랫폼

가.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1) 사업개요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은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운영하였고 특성화·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외진출희망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주기업에는 현지정착을 위한 독립된 사무공간, 법률·회계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현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제품 현지화 및 판로 개척의 특화사업을 지원한다.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2021년에는 현지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시제품 제작, 바이어 테스트 등 제품 현지화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수출 현지화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유럽·중국·일본·베트남·UAE 진출을 희망하는 현지 유망산업 분야 중소기업 113개사를 지원하여 약 180억원의 투자유치, 인증 획득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향후 운영 성과가 우수했던 프로그램은 확대하고, 현지 유망산업과의 연계성 및 기업 수요를 고려하여 제품 현지화 외에도 마케팅, 계약,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등 프로그램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진출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수출인큐베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수출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전입주제(Pre-BI)를 실시하여 549개사를 지원, 583백만달러 수출성과를 창출하였다.

2021년 말 기준, 수출인큐베이터는 미국(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중국(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시안, 충칭), 일본(도쿄),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러시아(모스크바), UAE(두바이), 멕시코(멕시코시티), 카자흐스탄(알마티), 칠레(산티아고), 태국(방콕), 미얀마(양곤) 등 12개국 20개소 260개실이 운영되고 있다.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지역 및 입주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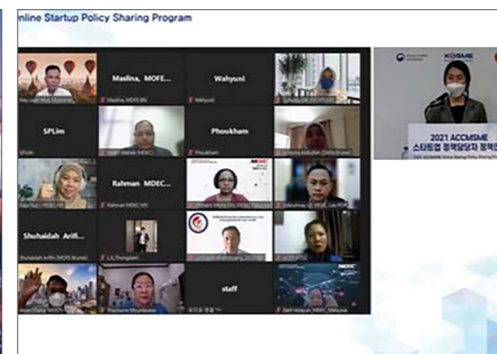
국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지역	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프랑크푸르트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시안	충칭	도쿄
규모	16	20	10	19	15	17	14	22	7	8	18
베트남		러시아	UAE	멕시코	카자흐스탄	칠레	태국	미얀마	계		
호치민	하노이	모스크바	두바이	멕시코시티	알마티	산티아고	방콕	양곤			
15	15	8	11	9	7	9	10	10	260		

【2021년 해외협력기반 조성】

구분	실적	비고
MOU 체결	13건	카자흐, 인도, 미국, 러시아, UAE 등 6개국 13개 기관
산업협력관 교류	29명	중국, 베트남, 독일, 인도 등 7개국 29명
세미나 및 설명회	6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경영전략 세미나 등 6회
B2B 온라인 상담회	17회	인도, 태국, 우간다 등 15개국과 17회 B2B 상담회 제공
해외 정책담당자 연수	3회	ACCMSME, 케냐 스타트업 정책담당자 연수 등 3회



우간다 혁신창업 컨퍼런스



ACCMSME 스타트업 정책담당자 연수

특히, 국제기구와 협업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기반 조성에 앞장섰다. UN 해비타트와 협력하여 혁신창업 컨퍼런스 및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케냐 진출을 지원하였으며, 국제무역센터(ITC)와 LOI체결로 우간다에 청년창업사관학교 모델전수 ODA를 추진하여 협력기반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중국, 베트남대사와 면담 등 주요 수출국가 대사관과 교류하여 중국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확대 이전 및 하노이 한류타운 오픈 추진 등 우리기업의 진출 교두보를 강화하기 위한노력을 지속하였다.



우간다 청년창업사관학교전수 관련 신문 보도



싱하이밍 중국대사 면담

또한, 중국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에서는 지역별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였다.

구분	주요 추진사업
중국 중소기업지원센터	'21.2 센터 확대이전을 통해 O2O 판매, 왕홍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여 전년 대비 30% 이상 수출 증대 기여 • SNS를 통해 매주 1200명의 바이어에 30개 제품에 대한 홍보(42회) • 온라인 수출지원 성과제고를 위해 100개사 대상 시장보고서 작성 및 마케팅계획 수립 지원 • 왕홍라이브 방송을 통해 108개사 제품에 대해 27회 홍보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를 통해 투자관련 정책방향, 근로기준법, 세법 등 정보제공(인니 진출기업 관계자 80명 참석) • 한-인니 기술교류 상담회 개최(상담 64건, 상담액 2,720천달러)
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	• 투자현황 및 그린사업 세미나(10개사 참가) • 코웨이(취) 말린지사 MOU를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도모 (텀블러, 마스크패치 등 국내기업 우수제품 110천달러 상당 말레이시아 수출)

나.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

1) 사업개요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는 제12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2005) 공동선언을 통해 설립제안이 채택되었다. 2006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내 최초 설립되었으며, 2009년 중진공으로 이관되었다.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는 APEC 역내 회원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제고시키고, 21개 회원국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및 산업협력 기회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2021년은 APEC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을 목표로 역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국내 중소기업의 APEC 시장 진출 지원에 힘썼다. 7년 연속 APEC 프로젝트 기금을 획득하였으며, 2020년에 확보한 기금(100천달러)을 활용하여 APEC 전략과제 중 하나인 '역내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APEC 중소기업 상시위기대응전략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 워크숍을 통해 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공유·확산하였다. 15개국 229명의 APEC 중소기업인, 정책 담당자, 유관기관 관계자가 현장 참석 또는 온라인 시청 방식으로 참가하여 상시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APEC 중소기업 상시위기대응전략 워크숍

아울러, APEC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기술진단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및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하여 역내 회원국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정보 공유 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2021년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 운영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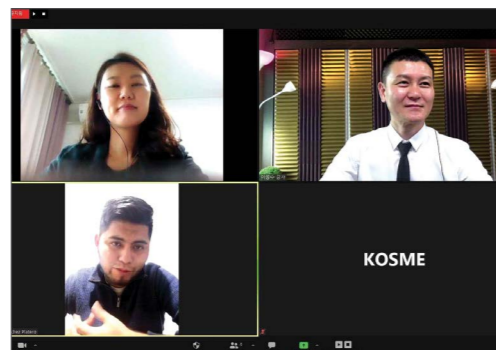
분야	세부사업명	실적
동반성장	APEC 중소기업 상시위기대응전략 워크숍	•APEC 회원국 및 국내 연사 18명 참가 •국내기업인 및 유관기관 211명 참가
	APEC 혁신센터 웹사이트 운영	•APEC 혁신활동 및 정책정보 제공
혁신역량 강화	APEC 혁신 컨설팅	•2개국 10개사 •컨설팅 결과 활용률 100%
정책전파	제51차, 제52차 APEC 중소기업 실무그룹회의 참석	•제51차 실무그룹회의(캐나다, 온라인) •제52차 실무그룹회의(뉴질랜드, 온라인)



제51차 APEC 중소기업 실무그룹회의(캐나다, 온라인)



제52차 APEC 중소기업 실무그룹회의(뉴질랜드, 온라인)



APEC 혁신컨설팅(페루, 온라인)



APEC 혁신컨설팅(베트남, 온라인)

2021년에 확보한 APEC 기금(100천달러)은 2022년 상반기 APEC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포럼을 개최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의 글로벌 의제화에 따라 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식 및 모범사례 공유,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글로벌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 해외지사화사업

1) 사업개요

해외지사화사업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이 2017년도부터 산업부 해외지사화사업과 통합되면서, 중진공, kotra, OKTA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진공은 해외마케팅·컨설팅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민간 컨설팅 기업을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해외지사화 사업의 수행사로 활용하고 있다. 2021년에는 총 37개국 123개사의 해외민간네트워크를 지정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협력파트너 발굴, 법률자문, 기술수출, 현지법인 설립, 국제조달시장 진출 등 다양한 해외진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해외민간네트워크 현황】

(단위 : 개사)

중국	동남아 대양주	북미	유럽	서남 아시아	러시아 CIS	중남미	일본	중동	아프 리카	계
32	35	16	9	8	9	2	8	3	1	123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동 사업은 기업의 해외진출 단계를 '진입', '발전', '확장'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필요한 서비스를 특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진입' 단계는 기초 시장조사, 수출가능성 점검, 로컬마케팅 등 기초적인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발전' 단계는 전사·상담회 참가지원, 출장지원, 물류통관 자문 등 수출 및 성약지원을, '확장' 단계는 기술수출, 해외 투자유치, 조달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등 기업의 타깃국가 현지화를 지원하고 있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발전단계 및 확장단계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0년 중진공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한 실적은 총 370건이며, 수출실적 221백만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21년 사업은 2022년 9월에 종료되며, 총 370건의 수출유망기업을 지원하여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250백만달러 수출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 실적(2015~2020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원기업 수(건)	282	235	475	370	370	370	370
수출실적(백만달러)	279	272	902	353	379	221	
투자유치(백만달러)	14.01	13.1	3.6	-	-	-	
현지법인(지사)설립(건)	17	12	11	7	2	3	
기술협력 계약체결(건)	10	6	4	5	-	-	

* 사업기간 : ('19년)19. 1월~'20. 8월 / ('20년)20. 1월~'21. 8월 / ('21년)21. 1월~'22. 8월

【2001~2019년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 실적(누계)】



■ 해외기술교류사업

1) 사업개요

해외기술교류사업은 한국과 신흥국 정부간(G2G) 협력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을 해외 현지기업에 수출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기술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국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수요·공급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매칭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기술교류단의 현지파견 및 사후지원을 통해 기술수출을 촉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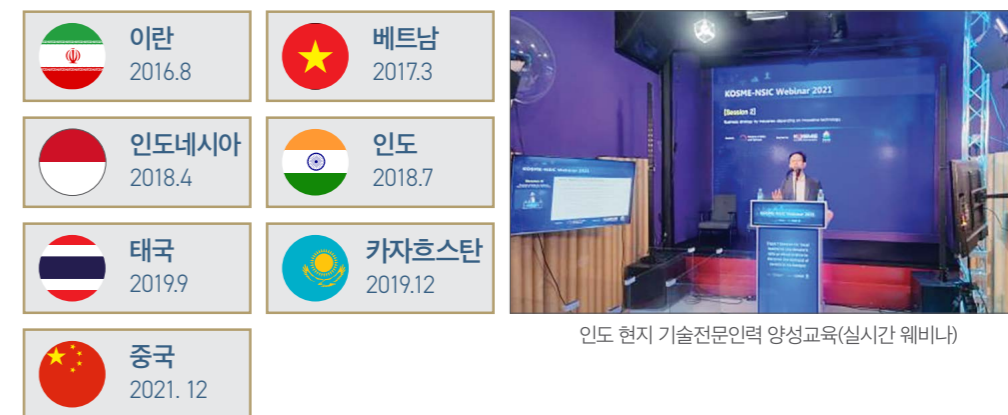
【주요 기술수출 유형】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2021년 기준 이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카자흐스탄, 중국 7개국에 현지 정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교류센터를 운영 중이며, 현지여건, 기술수요, 정부기관의 협조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아울러 2021년에는 협력 국가의 수요기술(바이어) 발굴 강화를 위해 인도에서 현지 기술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4차 산업시대 혁신기술과 경영전략” 웨비나를 진행하였으며 135명이 참여*하였다.

【기술교류센터 개소 현황】



인도 현지 기술전문인력 양성교육(실시간 웨비나)

또한, 수출을 위한 신규 국내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업종별 전문 코디네이터 배정 및 기술진단을 지원하여 해외기업에 제공 가능한 217건(누계 1,105건)의 신규 기술 DB를 구축하였다. 이에 더해 해외기술교류 온라인 플랫폼(G-TEP)을 개선하여 선정평가 절차를 온라인화하고, 해외 수요기업 발굴 및 매칭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기능(관심기업 담아두기 등)을 추가하였다.

【기술교류 플랫폼(G-TEP) 고도화】

기존(20년)	개선(21년)	고도화(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G-TEP을 통한 접수창구 일원화 산업분류별 검색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선정평가 실시 바이어 매칭 일정관리 전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쏠단계 온라인화 추진 사후관리 연계성과 추적기능 개발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기술수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의 기술교류상담회를 개최하였다. 21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40회의 온라인 기술교류상담회를 기획·운영하고, 현지 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국내 기술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국내 공급기업 376개사와 1,617개의 현지 수요기업을 매칭하여 123건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개최국가, 상담횟수 확대 등 사업의 외형 확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였다.

* 태국·카자흐스탄·이란 기술교류센터에서도 사전수요조사를 진행하여 4개국 공동참여

【2021년 온라인 기술교류상담회 운영 실적】 (단위 : 개사, 건)

국가	회차	국내기업	해외기업	상담	MOU	현지 협력기관
카자흐스탄	1	10	53	53	2	중소기업개발공사
일본	1	10	47	47	3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2	1	1	1	-	KISTA
말레이시아	1	10	57	57	16	투자개발청
	2	2	3	3	-	MEKONGLINK
인도	1	10	56	56	1	중소기업공사
중국	1	9	42	42	-	섬서성 상무청
	2	8	14	14	-	KTR 중국지원
	3	10	35	35	2	상하이과학기술교류중심
	4	7	13	13	-	KTR 중국지원
	5	15	78	78	4	중국과학기술교류중심
UAE	1	15	61	61	-	샤르자경제개발부
태국	1	15	69	69	5	중소기업진흥청
	2	5	18	18	-	MEKONGLINK
몽골	1	13	99	99	-	몽골상공회의소
러시아	1	10	51	51	-	첼랴빈스크주국제협력기구
	2	10	49	49	13	러시아 경제개발부
	3	9	13	13	-	KHITROV
	4	10	18	18	-	
	5	10	50	50	6	러시아 경제개발부
베트남	1	10	52	52	7	베트남 기술이전센터
	2	5	5	5	-	KTR 베트남지원 등
	3	6	6	6	1	
	4	9	43	43	3	베트남 기술이전센터
인도네시아	1	10	86	86	16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
	2	15	76	76	9	투자조정청
	3	10	82	82	2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
캄보디아	1	10	65	65	4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부
터키	1	12	59	59	-	터키 중소기업청
	2	9	31	31	-	
우즈베키스탄	1	9	35	35	-	우즈베키스탄 혁신개발부
	2	9	29	29	2	
필리핀	1	10	49	49	-	필리핀 중소기업청
벨라루스	1	10	49	49	12	벨라루스하이테크파크
아르메니아	1	10	48	48	12	아르메니아 경제부
캐나다	1	19	48	48	3	주한 캐나다 대사관
독일	1	16	16	16	-	프라운호퍼 한국대표사무소
	2	2	2	2	-	KTR 유럽지원
콜롬비아	1	2	3	3	-	콜롬비아상무관
사우디아라비아	1	4	6	6	-	사우디 지식재산권청
계	총 40회	376	1,617	1,617	123	



G-TEP 온라인 기술교류상담회 세미나



G-TEP 온라인 기술교류상담회

글로벌화 지원 현장을 찾아서

수출현지화사업 우수사례



(주)젠다카디언

수출현지화사업 덕분에 미국 진출의 성공적 발판 마련

대표자: 조현아
 설립: 2018년
 주업종: 비접촉식 심박 호흡 측정장치
 지원사업: 수출현지화사업
 지원현황: 2021년 수출현지화사업 지원, 수출비 신규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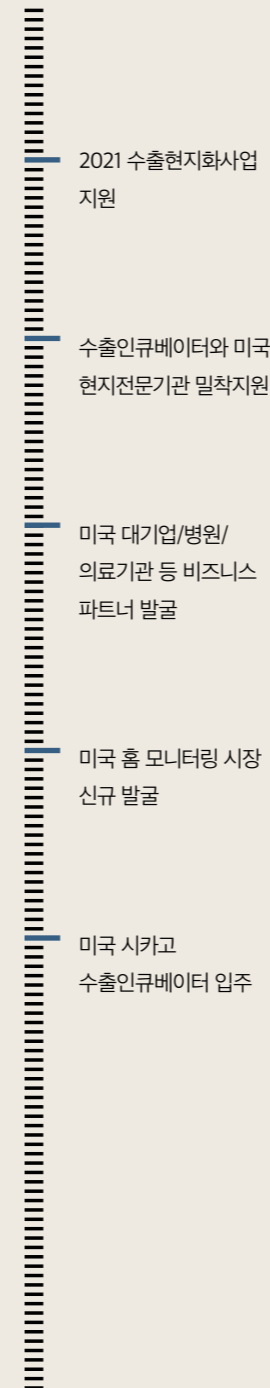
(주)젠다카디언은 환자의 심박과 호흡을 레이더로 측정해 24시간 내내 환자를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비접촉식 심박 호흡 측정장치를 개발했다. 이는 심박과 사람의 음성 및 생활소음을 구별해낼 수 있을 정도로 정확도와 안전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처럼 획기적인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영문 브로슈어와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북미에 법인까지 세웠지만 진입장벽이 높았다. 특히 거대한 미국시장에서 구체적인 유효시장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였고, 어렵게 찾았다 하더라도 만남의 기회를 잡기 힘들었다.

이 때 큰 지원군이 된 것이 바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현지화 사업이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현지 해외거점



지원 타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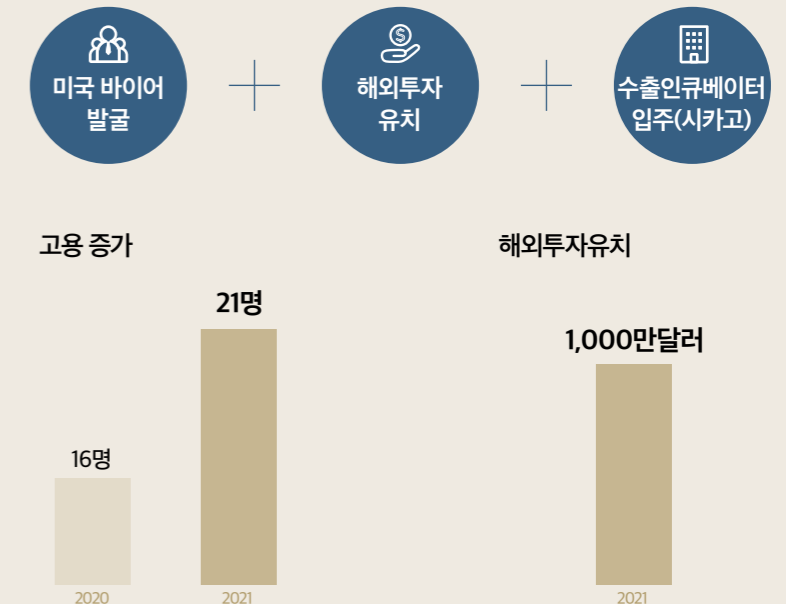


(수출인큐베이터)과 미국 현지전문기관이 6개월간 밀착해 현지시장정보 획득에서부터 시장진입전략 구축, 제품개선, 바이어 발굴 등 시장진입을 위한 전 분야를 심도 있게 지원하였다.

수출현지화사업을 통해 미국 대기업·병원·의료기관 담당자들을 소개받고 만날 수 있었으며, 제품의 정확한 시장포지션과 진입전략, 신규시장 개발, 의료보험제도 활용, 제품 파일럿 테스트 기회까지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중환자실, 양로원 등의 타깃시장 외에 Home Monitoring 시장을 신규 발굴하여 시장을 확대하였다. 또한 투자유치 미팅에 참여해 투자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며, 1,000만달러 투자유치라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중진공 미국 시카고 수출인큐베이터에 입주해 본격적인 미국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지원성과



글로벌화 지원 현장을 찾아서

🔧 해외기술교류사업 우수사례



(주)누보

법률지원 사업을 통해 기술 수출의 길을 열었습니다

대표자 이경원, 김창균
 설립 2007년
 주업종 복합비료
 지원사업 해외기술교류사업
 지원현황 2021년 해외기술교류사업 600만원 지원

(주)누보는 작물별 시비량 및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CRF(Controlled release fertilizer, 용출 제어형 코팅 비료) 제조 기술을 보유한 기술기반의 농업전문기업이다.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출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여러 국가와 기술 제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주)누보는 2021년 말 국내 최초로 말레이시아와 CRF 기술 이전 계약을 앞두고, 기술 이전 수출과 관련된 문제에 당면하였다. 비료생산 기술 수출에 대한 선례가 거의 없었고, 말레이시아의 여러 회사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각 회사와의 의견 조율 및 해당 국가의 법률 사항 검토 등이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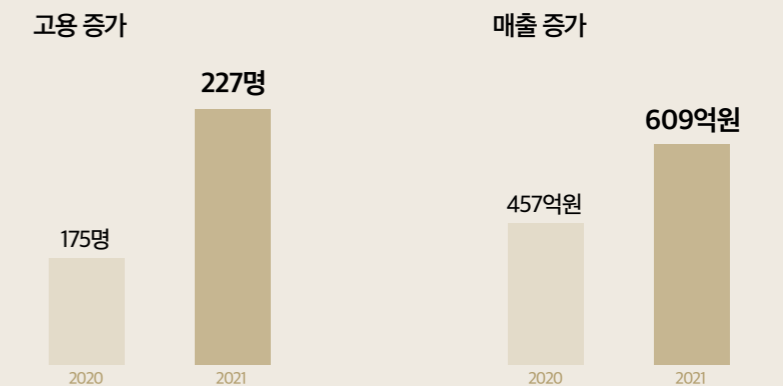
🔧 지원 타임라인



이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기술교류 사업의 역할이 컸다. 해외기술교류 사업을 통해 현지 유력 법무법인과 연계하여 지식재산권 이슈, 설비납품 책임소재, 현지 세무 등 자사에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이나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꼼꼼하게 수정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심층 컨설팅을 받았으며, 컨설팅 비용 일부도 지원받았다.

앞으로도 (주)누보는 말레이시아 기술 이전 사례처럼 해외기술교류 사업을 활용해,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 및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지원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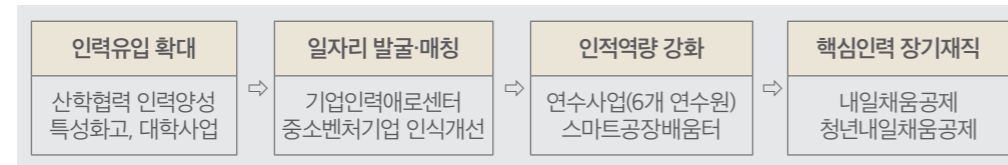
인력양성 및 창업

인력양성

1. 사업개요

인력양성사업은 중소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인력 부문에 있어 기업으로의 원활한 유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통하여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주역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진공은 신산업, 신기술 인력 양성,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한 선순환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맞춤형 HRD를 구현하고 있다.

【인력양성 선순환 지원체계】



인력양성사업은 1982년 중소기업연수원(경기도 안산) 개원과 함께 연수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14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산학협력 인력양성 사업을 이관받고, 성과보상공제기금이 출범하면서 확대되었다. 2018년에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주-근로자 성과공유 확산사업 및 청년일자리 대책에 따른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이 추가되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사업】

구분	인력유입		일자리 발굴·매칭	인적역량 강화	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 사업	산학협력 인력양성	중소벤처기업 인식개선 및 성과공유	기업인력애로센터	연수	성과보상공제
주요 내용	맞춤형 인력 양성·공급	우수 중소기업 지정·홍보 및 성과공유 문화 확산	취업컨설팅, 취업매칭	단기 집합연수, 웨비나연수, 이리닝연수	성과보상금 형태의 공제기금 운영

6개 연수원을 거점으로 한 광역별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국 33개 지역본·지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중소기업 현장 접점에서 맞춤형 인력 지원과 인력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사업)간 연계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수원 현황】

구분	중소벤처기업 연수원	호남 연수원	대구경북 연수원	부산경남 연수원	글로벌리더십 연수원	충청 연수원
개원	1982	2001	2003	2004	2014	2021
위치	경기 안산시	광주광역시	경북 경산시	경남 창원시	강원 태백시	충남 천안시

2.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인력양성분야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기술사관 육성,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을 추진하여 215개 특성화고, 9개 기술사관 사업단을 지원하였으며 70개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인식개선분야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280개사를 발굴하여 우수사례집 제작 및 전용채용관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의 존경받는 기업인 12인을 선정하여 TV방영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인식개선 노력**을 이어나갔다.

기업인력애로센터는 지역본·지부 등을 통해 11,102개사의 구인기업(구인수요 28,659명) 및 45,117명의 구직자를 발굴하여 1,630개사에 3,080명의 취업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를 집중 지원**하였다. 또한 AI추천 등 매칭기능을 고도화한 일자리매칭플랫폼을 신규 구축하여 구인·구직 매칭 기능을 강화하였다.

연수분야는 2021년 충청연수원을 신규 개원하여 전국 6개 연수원에서 50,976명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2022년까지 6만명의 **스마트제조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스마트제조 분야 교육을 중점 진행하여 14,478명의 수요자를 배출시켰으며 누적 5.1만명을 달성하였다.

성과보상공제기금은 2021년 누적기준 성과보상공제(4개 사업)에 190,417개사 713,147명의 가입실적을 달성하였다. 아울러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의 일몰을 1년 연장하고, 공제상품간 연결형 신규 상품을 출시하여 공제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과 자산형성 효과를 제고**하였다. 또한 신규 대외 협업을 통한 교육바우처 발급, 근로자휴가비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직무역량강화, 단체상해보험, 온라인복지물 등 제도를 확대하여 공제가입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이외에도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를 통한 공(대)기업 및 지자체들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납입금 지원 등 협업모델을 확대·강화하여 **대·중·소벤처기업 동반성장 및 지역균형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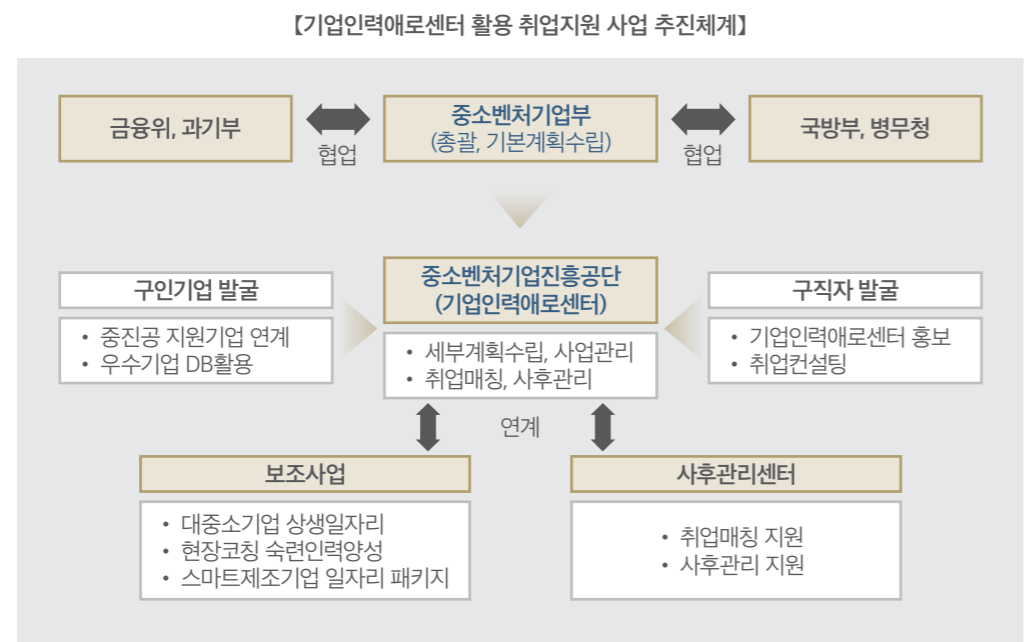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21년 세종 청년창업사관학교를 개소하고 청년CEO 선발인원을 1,035명에서 1,065명으로 확대하는 등 청년창업자 양성 및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D.N.A 분야(Data, Network, AI) 60개사를 선발하여 국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이와 함께 AI 실무 인력을 육성하고, 개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사업(이어드림 스쿨)을 신설하여 청년인재 100명을 선발하는 등 **휴먼 뉴딜 정책실현**에 기여하였다.

3. 세부사업 추진실적

기업인력애로센터

1) 사업개요

기업인력애로센터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인력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One-Stop지원사업이다. 증진공은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구인애로 기업을 발굴하고, 채용조건을 확인하여 특성화고, 전문대, 직업전문학교 졸업생, 청년장병 등의 구직자와 맞춤형 취업매칭을 진행한다. 동 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 17개 기업인력애로센터가 개소되었으며, 중소기업 구인수요를 상시 발굴·접수하여 실시간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고 있다.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2021년에는 청년 중심의 일자리 지원을 중년·신중년으로 확대하여 연령별로 맞춤형 생애주기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11,102개사의 구인기업을 발굴하여 1,630개사에 3,080명을 취업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구인·구직 매칭고도화를 위해 일자리매칭플랫폼을 신규 구축하였다.

【중소벤처기업 구인수요 발굴 및 취업매칭 실적】

구분	구인기업	구인인원	구직인원	취업
2017년	1,430개사	5,821명	1,327명	1,048명
2018년	8,223개사	21,434명	14,082명	2,657명
2019년	8,513개사	49,185명	33,462명	3,520명
2020년	8,626개사	42,814명	48,248명	3,626명
2021년	11,102개사	28,659명	45,117명	3,080명
계(누적)	37,894개사	147,913명	142,236명	13,931명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매칭플랫폼(job.kosmes.or.kr)】



3) 제도개선사항

보조사업의 정책목적성 제고 및 맞춤형 지원강화를 위해 현장 숙련기술 전수가 필요한 제조업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품질 관리 및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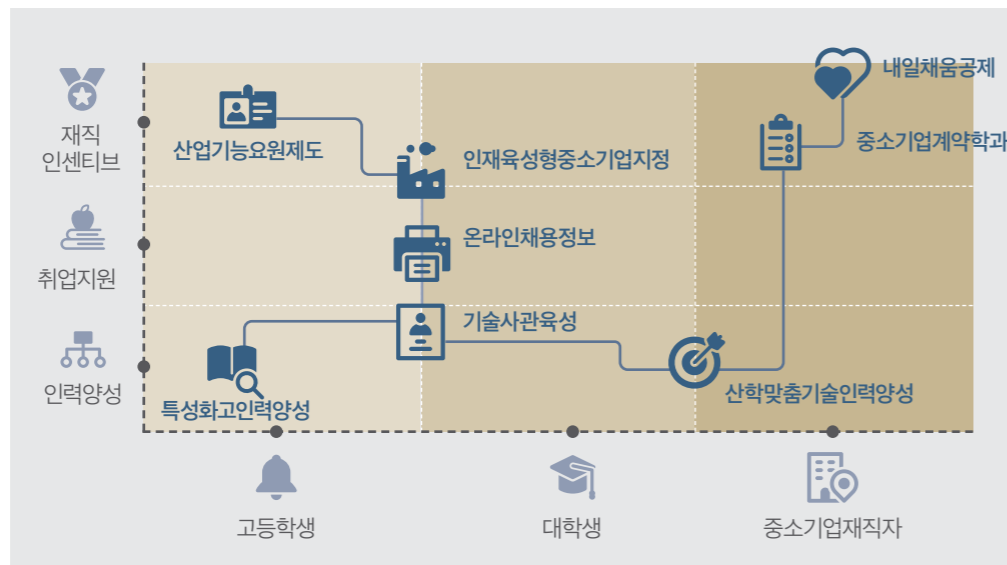
2022년에는 취업매칭 및 통계관리 기능이 고도화된 일자리매칭플랫폼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일자리 매칭 효율을 극대화하고, 신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증진공은 현장조직을 활용한 우수 중소기업 발굴, 취업컨설팅을 통한 구직자 발굴, 온라인 취업박람회 지원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일자리 미스매칭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은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맞춤형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특성화고·대학을 통해 우수 기능·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중진공은 선취업·후진학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일·학습 병행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우수인재의 유입, 양성 및 장기재직을 견인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인력지원 체계도】



인력양성사업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사업 등 총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2015년 4월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이관되었다.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사업이관 후 중진공의 인력지원 목표인 「중소기업 인력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중진공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였으며, 이에 따라 채용부터 장기재직 유도, 기업 역량강화까지 이어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체계의 틀이 마련되었다.

【이관 전·후 주요 개선 실적】

구분	이관 전	이관 후
사업 활성화	• 주관부서중심의 업무수행	• 중진공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 적극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한 능동적 사업 추진 - 지역거점을 활용한 사업 연계 및 확대
사업 내실화	• 4개 인력양성사업 개별수행 - 사업별 방식, 매뉴얼 등 제각각	• 사업효율성을 위한 통합 관리 - 인력양성사업 발전방안 연구 추진 - 체계적인 사업 DB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특히,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2021년 215개 특성화고를 지원하였다. 핵심 프로그램인 취업(산학) 맞춤형 과정을 통해 8,732명을 지원하여 8,473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으며, 이 중 5,416명(63.9%)을 취업 연계하였다. 이와 함께, 스마트공장 거점학교 18개교를 지정하여 스마트제조 인력양성 관련 교육운영을 지원하였다.

【2021년도 사업별 주요 추진실적】

구분	추진 실적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 전국 215개 특성화고에 8,732명이 참여하여 중소기업 맞춤형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프로젝트 수업, 진로지도 및 연수에 소요되는 사업비 평균 1.4억 내외 지원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	기술사관 육성	• 9개 사업단(1,172명)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2,593백만원 지원 및 관리
	중소기업 계약학과	• 48개 대학, 70개 계약학과의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에게 학과 운영비 및 등록금 지원(2,065명, 11,603백만원 지원) • 인공지능(AI) 분야 3개 학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2개 학과 등 총 5개 학과 신설

중소벤처기업 인식개선 및 성과공유

가. 중소기업 인식개선

1)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 인식개선 사업은 우수 중소기업 지정 및 홍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을 유입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280개사 지정, 존경받는 기업인 12인 선정 및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중소기업 인식개선 노력을 이어나갔다.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5항에 의거한 '기술능력, 연구개발 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으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1,889개사가 지정*되었다.

중진공은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전용자금(일자리창출 촉진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가점, 연수비용 50%할인 등 지정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지정기업에 대한 우수사례집(19개사 수록)을 발간하여 특성화고, 유관기관 등에 2,000부를 배포하였다. 아울러,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전용채용관'을 개설, 상·하반기에 걸쳐 284개 기업의 일자리 정보를 구직자들에게 제공하여 구직-구인 간 정보 mismatch 해소에 기여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기업과 근로자가 동반성장하는 기업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모범기업인을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59명을 선정**하여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KBS 1TV <사장님이美쳤어요(총 7편)> 방영을 통해 존경받는 기업인의 우수사례를 소개하였으며, 그 결과 평균 시청률 2.9%로 지상파 및 종편 동시간대 방송 중 평균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대국민 중소기업 긍정인식 확산에 기여했다.

나.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1) 사업개요

국정과제 41. 대·중소벤처기업 임금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과제목표** 성과공유 확산 등으로 대·중소벤처기업 임금격차 완화
- **주요내용** '17년부터 기업 성장 후 주식·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 확산 캠페인, 도입기업 우대 등을 통해 '22년 10만개사 달성
- **기대효과** 미래성과공유제 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임금격차 축소

* 연도별 지정 ('14)100 → ('15)150 → ('16)229 → ('17)376 → ('18)250 → ('19)224 → ('20)280 → ('21)280

** 연도별 선정 ('16) 12 → ('17) 14 → ('19) 10 → ('20) 11 → ('21) 12

국정과제 41번 목표 달성을 위해, 대·중소벤처기업 임금격차 축소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우수인력 유입을 확산하고자 <중소벤처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성과공유기업의 정의, 성과공유 유형,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미래성과공유기업 72,222개사를 지정*하였다.

【성과공유기업 정의 및 유형】

성과공유기업이란 성과공유 유형*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 1항]을 말한다.

* ①성과급 ②성과보상공제 ③임금수준 상승 ④우리사주 ⑤사내근로복지기금 ⑥스톡옵션 ⑦정부인증제도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중진공은 성과공유기업 확산을 위해 국내 최초로 사업주-근로자간 미래성과공유 협약서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공유 도입증빙자료 제출 창구인 성과공유기업 정보관리시스템을 개설하였다. 또한 성과공유기업 확인기준 등을 규정한 고시를 개정('20.4)하고, 2021년 8월부터 복지플랫폼 활용 우수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편입하여 성과공유기업의 유형을 확대하였다.

성과공유 문화 확산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사전 협조한 9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전광판 176개소를 활용하여 홍보도 적극 수행하였다. 특히 성과공유 유형별 우수기업 6개사를 선정하여,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홍보('21.8~'22.1)를 진행했고, 누적조회 수 3.6만회를 달성하였다.

또한 성과공유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 참여 시 일자리평가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가점,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과공유기업 유인을 강화해왔다. 이와 같은 성과공유 문화 확산에 대한 노력으로 2021년 신규 지정기업은 20,947개사에 달했다. 2022년에는 성과공유기업 10만개사 양적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성과공유제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통해 수립한 성과공유제도 발전모델을 적극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연수사업

1) 사업개요

1982년 중소기업연수원(본원 안산) 개원을 시작으로 호남연수원(2001년, 광주), 대구경북연수원(2003년, 경산), 부산경남연수원(2004년, 창원), 글로벌리더십연수원(2014년, 태백), 충청연수원(2021년, 천안) 등 6개의 지역 연수원이 개원하였다. 중진공은 연수원을 통해 임직원 역량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연수사업을 운영하였으며, 39년간 중기재직자를 포함하여 총 160만여명의 인력양성에 기여하였다.

* 연도별 누적 기업 수 ('18) 10,794 → ('19) 31,171 → ('20) 51,275 → ('21) 72,222개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2021년에는 전국 6개 연수원에서 50,976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국정과제인 스마트제조인력 6만명 양성을 위해 스마트공장 배움터,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160H/1인), 스마트랩 등의 과정을 운영하여 14,478명, 누적 5.1만명 스마트제조인력 양성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특히 스마트랩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스마트공장 이론교육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1,058명을 교육하였고, 스마트공장 배움터는 VR, AI 등 다수의 첨단기술을 도입·활용하여 9,178명을 교육하였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중단없는 교육지원을 위한 비대면 연수과정을 고도화하여 이력 17,613명, 웨비나 21,886명을 교육했으며, 웨비나 연수 전용 스튜디오 구축 및 연수만족도 조사결과를 통한 강의 개선, 수강률이 저조한 과정의 콘텐츠 정비 등 비대면 연수의 질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스마트혁신러닝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 계획(ISP)을 수립하였고 마이크로러닝 방식으로 기술, 경영/직무, 인문/소양 분야 1,066개 과정 신설 및 시범운영으로 1,237명을 교육하였다. 중소기업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탄소중립, ESG, 신기술, 환율변동, 주52시간 등 202개 과정의 특화연수를 추진하여 4,957명을 교육하는 등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중소벤처기업 재직자들의 교육 접근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총청연수원을 신규 개소하였고, 신규연수원 추가 구축을 위해 전복연수원 건립부지를 확정하고 전남연수원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구축 예산을 확보하였다.

또한 국내 대기업 창업주 다수를 배출한 진주시 지수면에 위치한 지수초등학교에 기업가정신센터 전시관을 구축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CEO 등 중소기업 CEO들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교육수요를 연수운영에 반영하고 연수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교육투자액 적극적이고 활동 의지가 높은 기업 55개사를 연수원 패밀리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연수원(본원 안산)과 호남연수원(광주)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여 감염환자 5,668명의 완치를 지원하는 등 국가적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재난극복에 크게 기여하였다.

【연수사업 주요 실적(2019년~2021년)】

(단위: 명)

과 정		'19년	'20년	'21년
직무역량향상연수	스마트공장	11,046	12,100	14,478
	뿌리·생산기술	4,031	1,171	2,897
	경영·품질	5,968	3,145	13,336
	소계	21,045	16,416	30,711
정책연수		11,643	8,303	20,265
온라인연수		17,656	18,483	-
맞춤연수		3,194	1,786	-
계		53,538	44,988	50,976

*'21년부터 온라인연수와 맞춤연수는 연수 내용에 따라 직무 또는 정책연수로 분류하여 실적 산출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1) 사업개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및 잦은 이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4년도 8월에 출범하였다. 동 기금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한다.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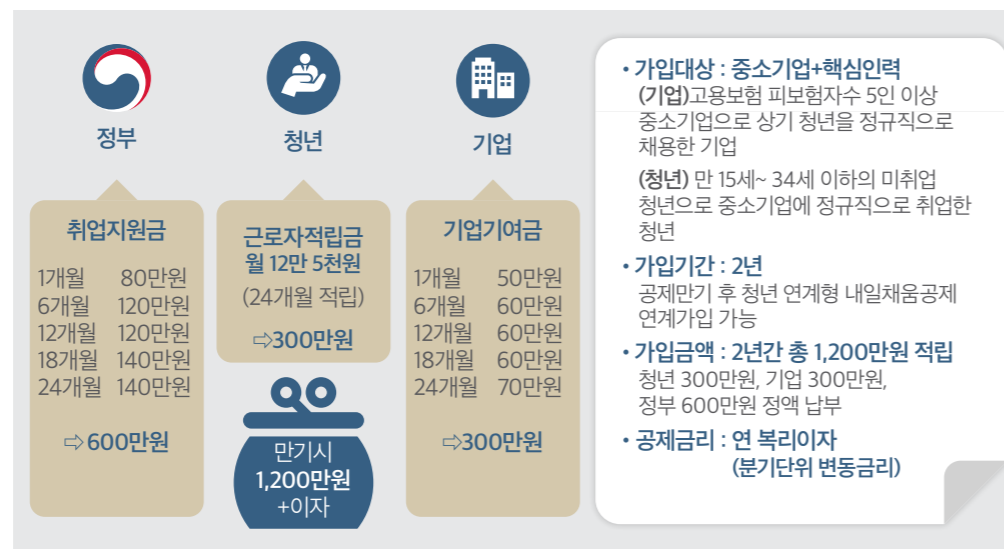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 시 공동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내일채움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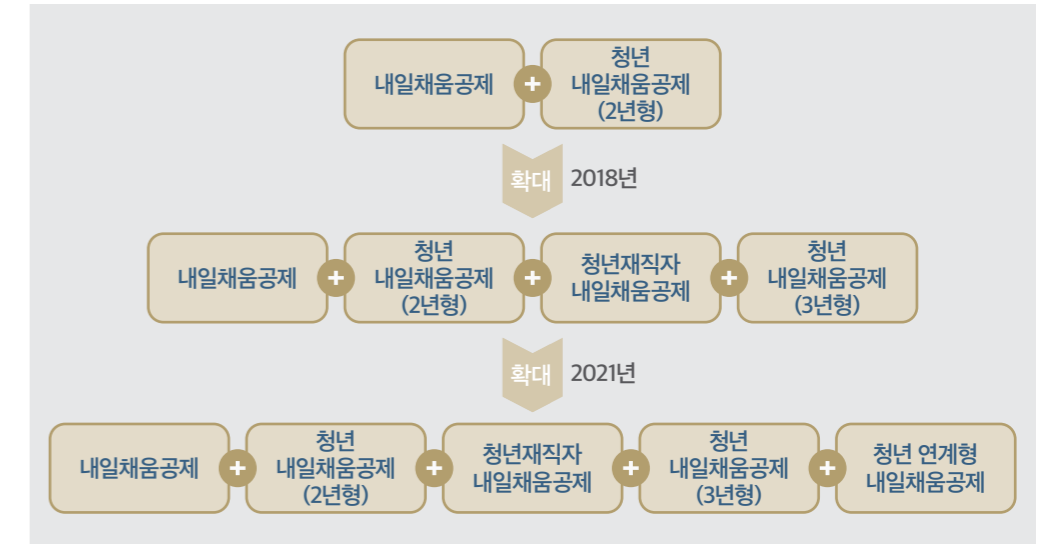
2016년에는 내일채움공제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를 연계한 신규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여 청년취업에서 장기재직까지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청년과 사업주, 정부가 각각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을 적립하여 만기 재직 시 근로자에게 1,200만원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2018년에는 청년일자리대책 및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공제사업을 기존 2개에서 재직청년 대상 신규 사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4개로 확대하였으며, 2021년에는 공제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장기재직과 청년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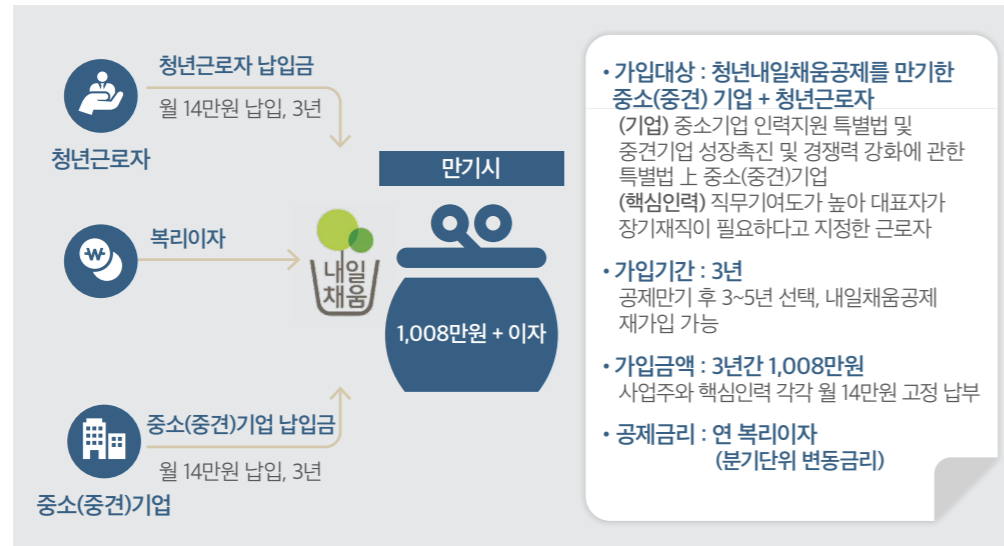
【공제사업 확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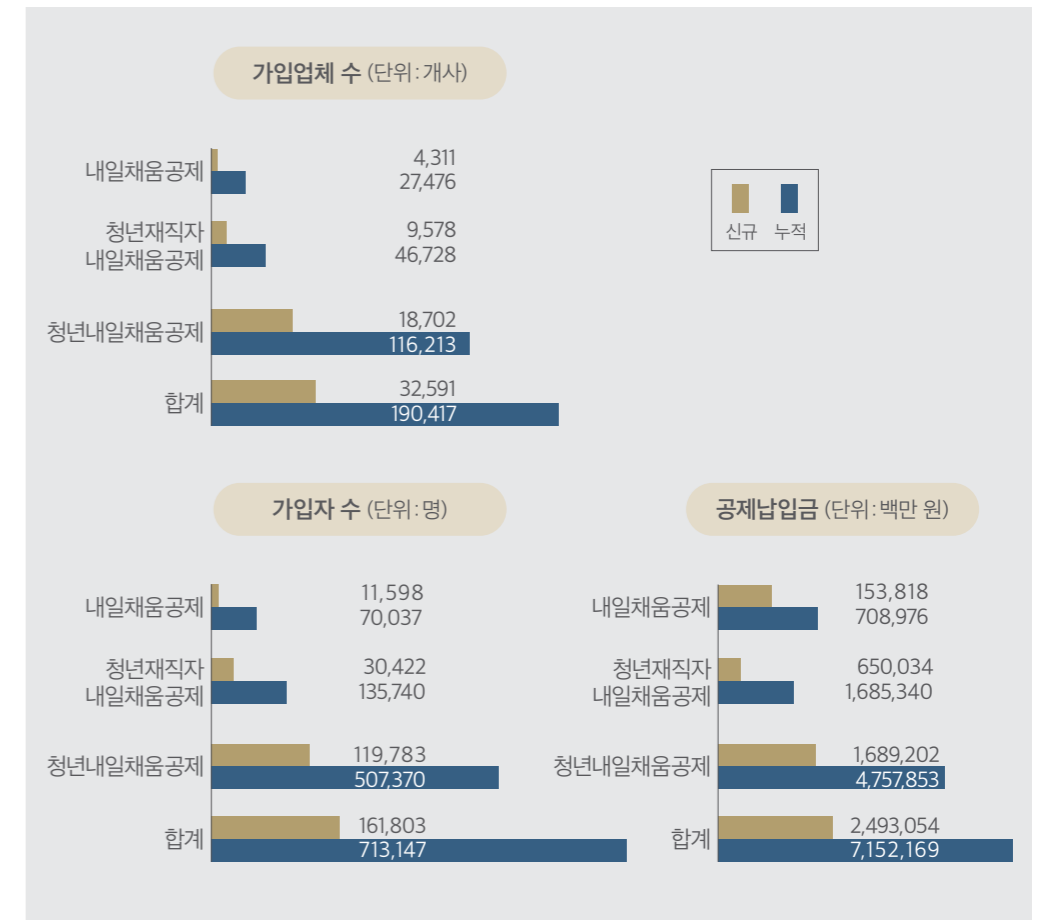
【청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성과보상공제사업은 출범 후 2021년 말까지 190,417개사 713,147명(누적기준)이 가입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2021년 공제가입실적】

구분	가입업체 수(개사)		가입자 수(명)		공제납입금(백만 원)		
	신규	누적	신규	누적	신규	누적	
내일채움공제	일반	4,311	27,476	11,598	70,037	153,818	708,976
	청년재직자	9,578	46,728	30,422	135,740	650,034	1,685,340
	소계	13,889	74,204	42,020	205,777	803,852	2,394,316
청년내일채움공제	18,702	116,213	119,783	507,370	1,689,202	4,757,853	
합계	32,591	190,417	161,803	713,147	2,493,054	7,152,169	



한편, 지자체 및 공·대기업과 내일채움공제 상생협력형 협업모델을 구축하여 공·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및 지역균형 일자리 창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였다. 특히 장애인고용공단과 신규협업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5개 발전사 및 지자체와 탄소중립기업 지원 협업을 통해 정책연계를 강화하였다. 2021년에는 민간기업인 현대엔지니어링(주)을 유치하여 총 179명을 신규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경상북도, 영천시, 쉼케이스씨 등 지자체 5곳과 공·대기업 7개사를 신규 유치하고 관내·협력 중소기업의 공제 납입금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2021년 공기업·지자체와 내일채움공제 간 연계 협업 실적(누적)】

구분	업체 수(개사)	지원인원(명)	지원액(백만원)	
공기업 및 대기업	한국남동발전	109	237	1,422
	한국서부발전	85	204	1,401
	한국가스공사	28	70	420
	한국전력공사	18	50	658
	CJ제일제당	53	114	821
	한국동서발전	15	42	252
	한국중부발전	20	42	252
	한국수력원자력	27	91	546
	인천항만공사	12	18	108
	한국수자원공사	32	39	234
	한국남부발전	28	70	420
	한국토지주택공사	37	229	1,374
	한국항공우주산업	20	79	284
	부산항만공사	20	44	264
	한국가스기술공사	10	15	90
	울산항만공사	9	30	180
	한국국토정보공사	10	10	6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	2	12
	인천국제공항공사	4	4	24
	한국교통안전공단	2	4	24
	KT	6	21	101
	여수광양항만공사(21)	9	31	186
	현대엔지니어링(주)(21)	32	179	2,500
	(주)케이씨씨(21)	2	3	15
	농업기술실용화재단(21)	1	1	2.4
	국가철도공단(21)	11	11	66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	1	3	0.9	
한국장애인고용공단(21)	5	8	48	
지자체	강원도	219	881	8,556
	대전시	270	594	5,346
	울산시	162	285	683
	충북도	870	1,408	8,448
	계룡시	12	29	209
	제주도	887	1,619	14,480
	포항시	126	259	310
	부천시	143	252	1,058
	산청군	6	15	108
	김해시	27	55	79
	익산시	17	48	137
	양주시	78	201	868
	완주군	13	41	295
	군포시	46	100	600
	시흥시	65	101	581
	진주시	102	284	93
	포천시	67	152	656
	인천서구(21)	34	50	450
	금천구(21)	33	50	450
	영천시(21)	32	50	180
	김포시(21)	17	28	161
경북도(21)	28	73	438	
소계	3,861	8,226	55,951.3	

3) 제도개선사항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자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및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상품 매력도를 향상시켰다. 복지부문에서는 공제계약대출을 확대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협업으로 근로자의 휴가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단세상해보험의 경우 기존 상해사고 3천만원 보장 외 추가 특약가입을 무상 지원하였다. 온라인 복지몰도 수요 기반의 혜택 강화로 이용자수가 4.4만명에서 6.3만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교육부문에서는 우수기업 근로자 대상 외부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바우처를 신설하였다. 직무역량 강화 교육은 금융교육의 중급·심화과정을 신설하고 온라인 이러닝 교육과정도 확대(746개→817개)하였다.

성과보상공제사업은 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2021년 4월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추가하여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포함되었으며, 6월에는 부동산업을 추가하여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10월에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기존 공제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공제 만기 후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50% 수준이던 소득세 감면율을 90%(청년대상) 수준으로 확대하였으며, 규정 및 지침 개정을 통해 갑질, 부당행위 등 기업 귀책에 따른 피해 청년근로자를 위한 구제대책을 마련하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동반성장 업무협약



한국서부발전 내일채움공제 5년 만기 기념행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국가철도공단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 업무 협약식



청년내일채움공제 출범 5주년 및 만기금 수령자 10만명 배출 기념행사

창업성공패키지

1. 사업개요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유망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고 창업 쏠단계를 원스톱 패키지방식으로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인 D.N.A(Data, Network, AI) 분야의 글로벌 역량 보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AI 실무인재 양성 및 혁신 벤처 스타트업과의 매칭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이어드림 스쿨)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고용·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 집약 업종 위주로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방 및 토스(주)비바리퍼블리카 등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우수 스타트업을 육성하였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개요】

사업목적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쏠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창업 기업 육성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기업 대표자
운영현황	전국 18개 지역 운영, 청년창업가 1,065명 선발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공간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창업준비공간(개별, 공동)을 제공 • 창업교육 기업가정신과 창업실무역량 등 체계적인 기술창업 교육 실시 • 창업코칭 전문인력을 1대1 배치하여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 사업비지원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지적권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등 지원 • 기술지원 제품설계부터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 연계지원 정책자금 연계, 투자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가능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사업개요】

사업목적	우수한 사업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글로벌 수준의 기술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여 글로벌 혁신기술 스타트업으로 육성
지원대상	업력 3년 미만의 D.N.A 분야 창업팀
운영현황	글로벌창업사관학교(구로 G-TOWER), D.N.A 60개 팀 선발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공간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창업준비공간(개별, 공동)을 제공 • 기술교육 글로벌 기업과 D.N.A 기술 분야별 전문가의 특화교육 및 멘토링 • 글로벌보육 글로벌 탑 티어 액셀러레이터의 현장 상주 밀착보육 및 워크숍 • Kaggle 경진대회 글로벌 최대 AI 경진대회 'Kaggle' 활용 실전형 교육 및 참여 • 사업비지원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지적권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등 지원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이어드림 스쿨) 사업개요】

사업목적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실무인력 양성 및 채용연계를 통한 청년인재와 벤처스타트업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지원대상	학력·전공 무관의 만 29세 이하 청년
운영현황	이어드림 스쿨 전용 교육장(스파크플러스 홍대점), 100명 선발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공간 전용 교육장 및 M1 Mac 장비 등 학습 인프라 제공 • AI 교육 기초 이론부터 심화, 실습까지 단계별 맞춤 교육 • 전문가 특강 현업 개발자 및 HR담당자의 AI 분야 실무자 특강 제공 • Kaggle 경진대회 'Kaggle' 플랫폼 활용 모의·실전 경진대회 참가 • 채용연계 AI 개발자 채용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Pool 구축을 통해 교육생과 매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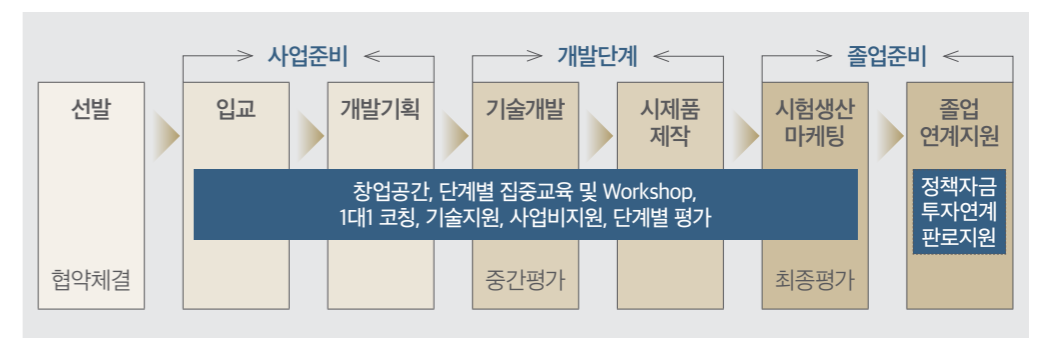
2.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 ●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청년의 기술창업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2011년 경기도 안산에 설립되었다. 2017년에는 혁신 창업자 육성 강화를 위해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쏠단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범위를 확대·개편하였다. 2018년 12개 지역 및 2021년 1개 지역(세종)의 추가 개소를 통해 현재 전국 18개 지역에서 지역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유망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사업화 지원금, 교육·코칭, 창업 및 시제품 개발 공간, 판로지원까지 청년창업 원스톱(one-roof) 시스템으로 일괄 지원한다. 졸업 이후에는 창업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5년간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인력양성 등 사업을 후속연계지원하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체계】



2021년에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 제조융복합 분야**의 청년창업자 선발을 지속 확대하여 제2벤처 붐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지역주력산업***을 우대하여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 4차 산업혁명 분야 선발비중 : ('20년) 57.0%(590명) → ('21년) 68.4%(731명)

** 제조융복합 분야 선발비중 : ('20년) 80.5%(833명) → ('21년) 80.6%(858명)

*** 지역주력산업 분야 선발비중 : ('20년) 41.5%(255명) → ('21년) 54.6%(35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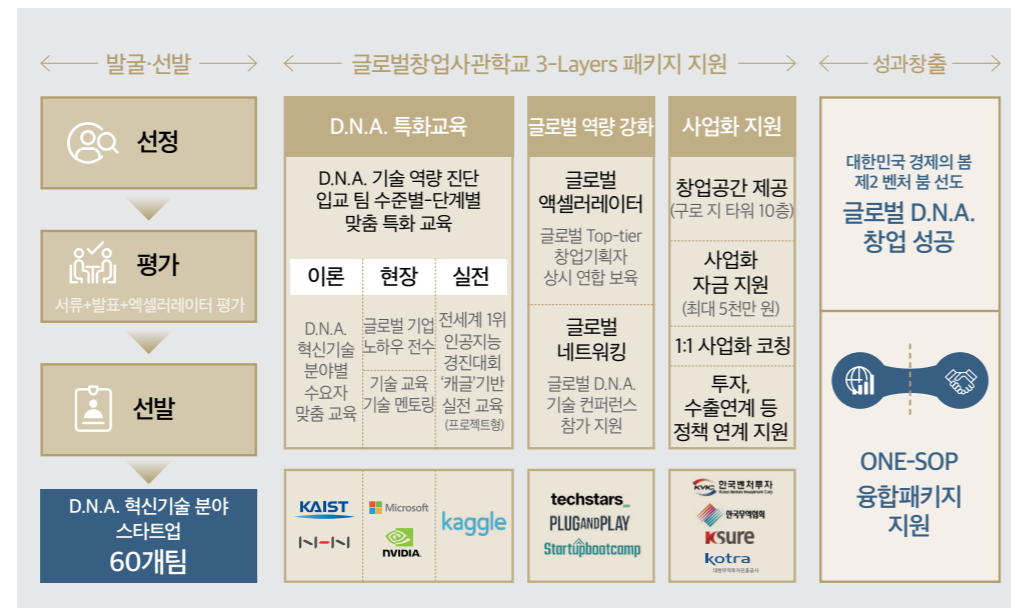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1년 개교 이후 총 5,842명의 청년CEO를 양성하고, 매출액 77,991억원, 일자리창출 17,308명, 지식재산권 등록 19,475건의 지원성과를 거두었다.

●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2020년 신규 개소하여, 디지털 뉴딜 등 정부 정책 실현을 위해 2021년 D.N.A로 지원분야를 확대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혁신기술 보유 창업팀을 대상으로 글로벌 수준의 기술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였다.

기술역량진단을 통한 D.N.A 분야·수준별 2Track 교육, KPI 기반 사업화 멘토링, 글로벌 대기업의 기술교육 및 특화 프로그램,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의 현장 상주보육 및 워크숍, 실전 Kaggle 경진대회 교육 및 참여 등을 통해 기술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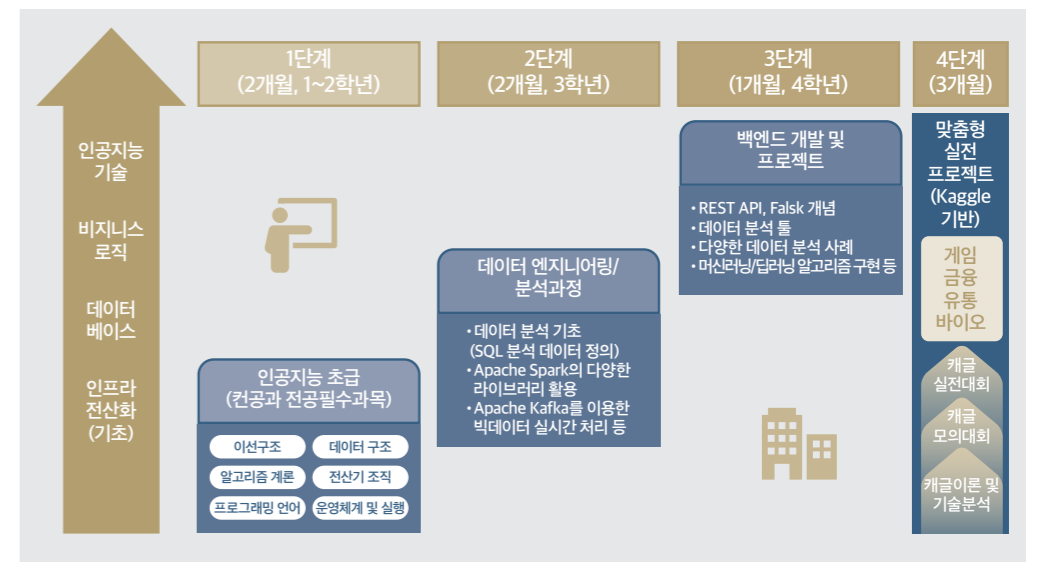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개교 후 현재까지, 혁신 창업자 118팀을 양성하여 매출액 203억원, 고용 657명, 투자유치 153억원, 수출액 24억원, 국내외 AI 경진대회 9개사 수상 등의 지원성과를 거두었다.

● ●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이어드림 스쿨)

이어드림 스쿨은 2021년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청년의 구직난과 개발자가 부족한 스타트업의 구인난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학력·전공과 무관하게 청년인재를 선발하고, 특화 커리큘럼을 신설하여 교육 종료 후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AI 실무인재를 양성하였다.

벤처스타트업 현업 전문가(개발자 및 HR담당자 등) 특강, 역량별 스터디 운영, 현직 개발자 협업 톨 활용, 주기적 역량평가를 통한 추가과제 제공 및 보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청년 AI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교육생 채용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Pool을 확보하고 매칭 데이 등을 통해 채용연계도 지원하였다.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이어드림 스쿨) 교육과정】



* 이어드림 스쿨 1기 교육기간 : 21.8월 ~ 22.3월

인력양성 및 창업 지원 현장을 찾아서

내일채움공제 우수사례



가스캠테크놀로지(주)

내일채움공제로 인재도 키우고! 고용안정도 이루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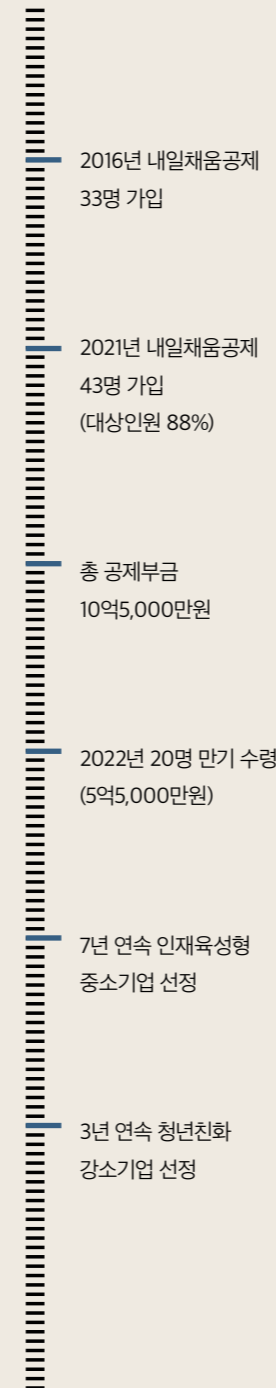
대표자 조창현
 설립 1992년
 주업종 가스 제품 제조-엔지니어링
 지원사업 내일채움공제
 지원현황 '21년 내일채움공제 43명 가입

충남 천안에 본사를 둔 중부권 최대의 고압가스충전업체인 가스캠 테크놀로지(주)의 조창현 대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2015년 진천공장을 준공하고, 2016년에는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여 희망 직원 전원이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인재육성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으로, 가스캠테크놀로지(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었다.

조 대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기나긴 경기침체 속에서는 인재육성 및 고용안정 기반 조성이야말로 불황을 극복하는 열쇠"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회사도 성장할 수 있다"고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필요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지원 타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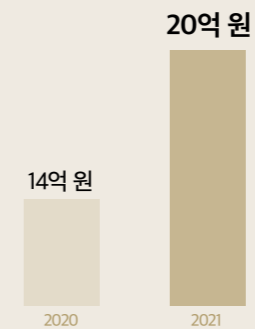
가스캠테크놀로지(주) 직원들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월 30만원씩 5년간 납입하였고, 직원과 회사가 각각 납입한 금액에 이자까지 합해 올해 4,740만원을 수령하였다.

2017년에는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내일채움 우수기업'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2021년 4월 14일에는 중소기업부 장관과 중진공 이사장이 내방해 청년재직자 애로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부 장관은 "기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일채움공제 도입 및 활성화로 근로자 중심의 모범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기업의 인재육성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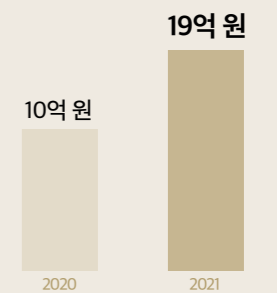
지원성과



영업이익 증가



당기순이익 증가



인력양성 및 창업 지원 현장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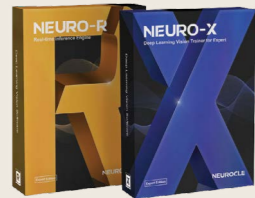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사례



(주)뉴로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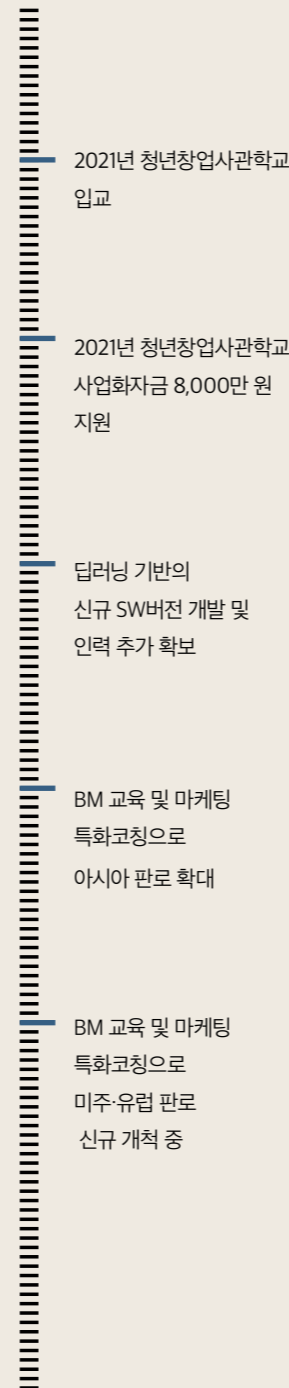
청년창업사관학교와 함께 딥러닝계의 어도비를 꿈꾸다

대표자 이홍석
 설립 2019년
 주업종 딥러닝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현황 '21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화자금 8,000만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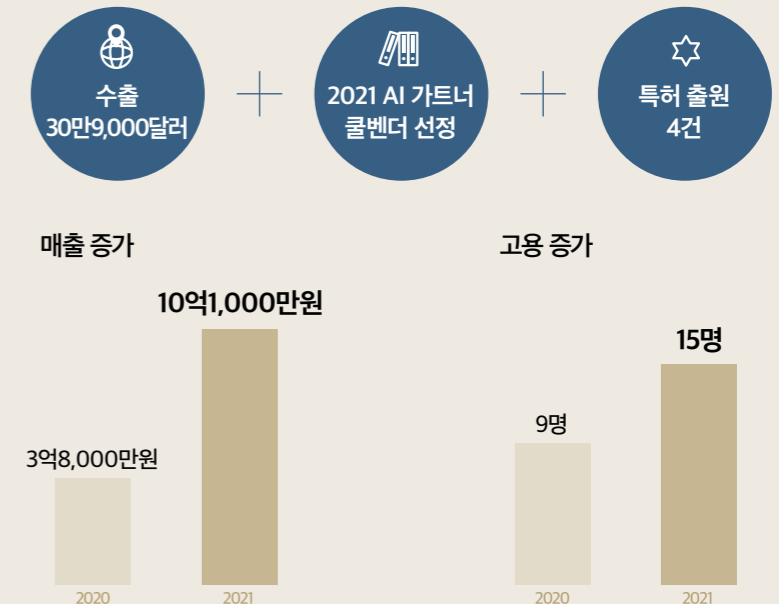
뉴로클은 요즘 국내외 AI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IT 전문 엔지니어가 아니어도 사용이 가능한 범용 딥러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첫 창업이 어렵듯 뉴로클도 마찬가지였다. 창업 후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하나둘씩 R&D에 합류하면서 제품개발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경영전략은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 대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이하 "청창사")의 문을 두드렸다. 청창사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서 딥러닝 모델을 생성하는 학습용 소프트웨어 '뉴로티(Neuro-T)'와 AI 모델을 원하는 분야나 시스템에 탑재할 수 있는 실시간 구동용 소프트웨어 '뉴로알(Neuro-R)'을 출시했다. 관건은 마케팅이었다. 제품을 사용할 사람이 각 분야의 도메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제품을 이해시키는

지원 타임라인



게 가장 어려웠다. 이에 따른 비용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뉴로클은 청창사에서 다양한 교육과 코칭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인력 확보와 마케팅 기반을 다졌고,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아 비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뉴로클은 전문가용 딥러닝 비전SW '뉴로엑스(Neuro-X)'를 선보였는데, 전문가의 데이터 관리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줄여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아시아 및 유럽 8개국으로 수출돼 글로벌 시장 선점도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IT 리서치 기업 가트너로부터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뉴로클은 2021년 컴퓨터 비전 분야의 AI 쿨 벤더(Cool Vendor)로 선정됐다. 세계적으로 가트너의 영향력이 큰 만큼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의 보증수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청창사의 지원을 통해 난관을 극복한 뉴로클은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며 딥러닝계의 어도비가 되겠다는 포부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지원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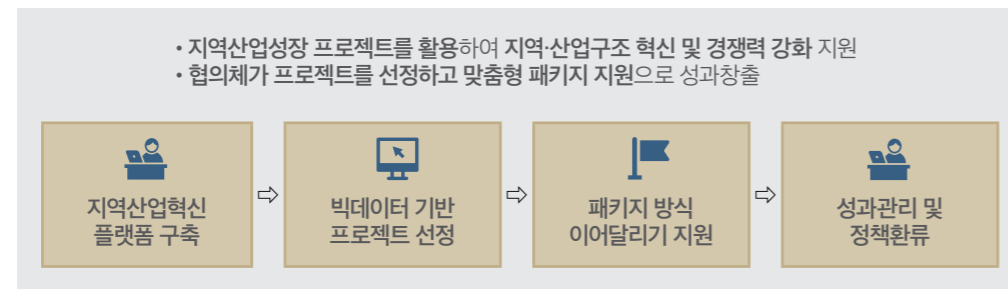
지역산업 혁신

1. 사업개요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는 지역주력산업 중점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중소기업 대상으로 종합적인 연계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중진공 본부에 기획부서인 지역산업성장처를 신설하고, 각 지역본부에 지역사업 전담팀인 지역산업혁신팀을 조직하였다. 이 중 17개 지역본부에서는 중기부, 지자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점 육성 산업 분야 지정, 지원기업 선정, 기관 간 연계지원 등을 추진한다.

중진공은 지역산업 혁신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널을 구축하여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의체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보증, 수출, 인력, 기술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연계지원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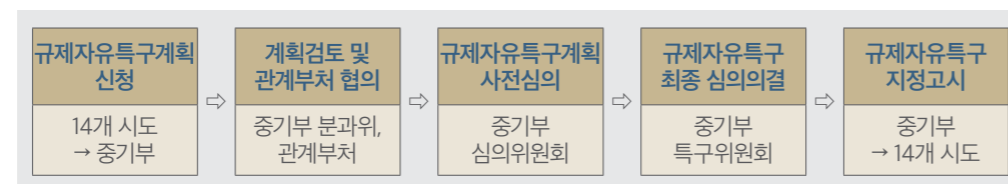
【프로젝트 운영 프로세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에서 신기술 및 신사업 기반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면제하고, R&D 보조금 등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2019년 4월 제도 시행 후 1차부터 6차까지 총 29개 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의 '규제혁신 3종 세트', 총 201개의 특례를 특구 운영에 적합한 형태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확정하는 '메뉴판식 특례'를 제공한다. 중진공은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1년부터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탐다운 과제 발굴, 홍보, 사후관리, 운영성과평가, 사업화 연계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진단기반의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기술·경영역량 부족으로 대외환경 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전문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금액의 50~90%를 매출액별 차등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를 별도 트랙으로 마련하여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 규모 및 지원 내용】

예산규모	• 52,605백만원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사업대상	•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재기컨설팅 바우처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수행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지원금액	•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 한도를 적용				
보조율	• 혁신바우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50~90%)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50%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90% 일괄 정부 지원			
		• 재기컨설팅 재기컨설팅 중 회생컨설팅 및 pre-회생컨설팅은 신청기업 자산기준으로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고, 진로제시컨설팅은 별도지침에 따라 자부담(10%)을 적용			
		자산 구간	회생컨설팅 정부지원 비율	Pre-회생 자기부담 비율	
		50억원 이하(간이회생)	90%	10%	-
	50억원 초과 80억원 미만	72~90%	10~28%	90%	10%
	8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62~90%	10~38%	85~90%	10~15%
	1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52~77%	23~48%	72~90%	10~28%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43~63%	37~57%	59~88%	12~41%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37~54%	46~63%	51~76%	24~49%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33~49%	51~67%	46~68%	32~54%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은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사업화 지원, 시장검증 및 기능개선(R&D)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는 공모접수를 통해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및 기술보증기금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기업의 기술유형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 사업화 기획 및 시장 검증 지원을 사업화 지원(사업화기획, 제품성능테스트, 시장마케팅)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였다.

[2021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 규모 및 지원 내용]

2021년 예산	• 4,350백만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기업 (단, 신청일 기준 해당 기술을 통한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부 R&D지원을 받고 완료 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②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사권)를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의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완료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강화·보완토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양산화가 되지 않은 경우 기술사업화 진단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기술완성도, 시장성, 사업화역량)하고 기업별 사업화 지원방안 도출 사업화 지원 기술의 시장성 보안을 위해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시장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기술개발(R&D) 자금지원 기술이전 기술이전 희망 기술을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을 통해 마케팅을 지원하고, 특허등록기술은 기술신탁을 통해 기술거래·보호 추진 			
지원규모	구분	지원기업 수	정부지원 비율	정부지원금
	기술사업화 진단	85개사	100%	최대 150만원
	사업화 지원	32개사	75%	최대 8,000만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20개사	65%*	최대 1억원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38호)에 따라 기술개발 정부지원비율 한시적 확대('20~)(65%→90%)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은 경륜·경정법 및 산업발전법에 의거,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레저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 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과 맞춤형 사업화 부문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개발” 부문은 품질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맞춤형사업화” 부문은 기술개발 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하여 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등을 맞춤 지원한다.

[2021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규모 및 지원 내용]

2021년 예산		• 1,768백만원
기술 개발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산업 분야 : 2년 이내 해양레저장비산업 분야 : 2년 이내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산업 분야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해양레저장비산업 분야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지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개발사업비의 75%* 이내(일괄협약 후 연차별 지급)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산업부 고시 제2022-3호)에 따라 '22년은 정부지원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75%→80%)
맞춤형 사업화	지원기간	• 당해연도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화지원 5,000만원 사업화 코칭 300만원
	지원비율	• 사업화지원 75%, 사업화 코칭 100%

2.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2021년 지역산업 정책에 발맞춰 중진공의 이점을 살린 전국 17개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를 구축하였고, 28개 산업분야 1,449개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어달리기식 지원을 하여 **지역산업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촉진**에 앞장섰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에서 중진공은 탄소중립특구 TF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5차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특구 Top-down 지정('21.7)에 성공하였으며, 다양한 정책수단을 특구사업자에게 맞춤형 연계지원(정책자금 416억원, 바우처 40건 등)함으로써 실증기술 개발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정책과 연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기술유망 소기업 1,672개사에 약 44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482건의 서비스(컨설팅분야: 414건, 기술지원: 938건, 마케팅: 808건, 탄소중립: 322건)를 제공하였다. 지원 전후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 3.83% 성장하는 등 지원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혁신바우처 사업의 주요 수요자인 영세소기업과 지방소재 소기업을 중점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했다.

중소벤처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은 고객중심의 신속지원 및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평가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출연금 비중을 한시적으로 상향(65%→90%)하였다.

* (기준) ①요건검토 → ②서류평가 → ③사업화진단 → ④국민심사 → ⑤발표평가 (3개월 소요)
(개편) ①서류평가 → ②사업화진단 → ③발표평가 (2개월 소요)

또한, 기술사업화 진단의 단가 확대(1→1.5백만원)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였으며, 사업화 지원을 개선하여 수요자가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2021년에는 사업화 지원 32개사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20개사(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협업)를 지원하였으며, 발표평가 시 한국형 뉴딜(디지털, 그린) 관련 과제에 가점(2점)을 부여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 분야, 친환경 분야를 중점 지원하였다.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은 2021년 기술개발 부문 지원으로 특허등록 및 출원 7건, 시제품 출시 7건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맞춤형사업화 부문 지원을 통해 지원금액 대비 신규매출액 71.4%의 실적을 달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레저장비산업 육성**에 기여하였다.

3. 세부사업 추진실적

지역주력산업 성장촉진 프로젝트

1) 사업개요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는 지역주력산업 중점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중소기업 대상으로 종합적인 연계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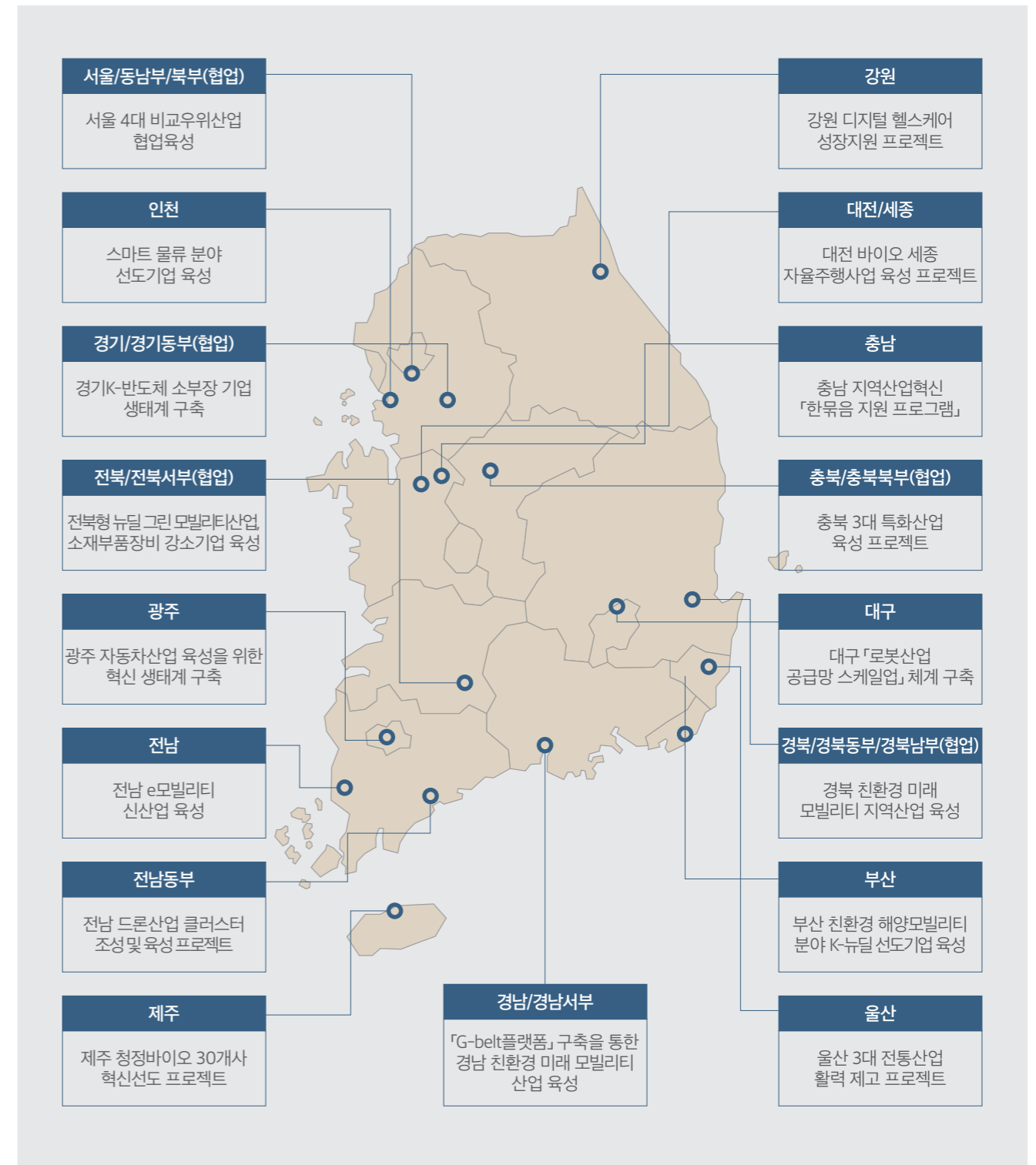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2021년 지역별 지역산업 정책에 중진공의 특성을 입힌 전국 17개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를 구축하였고, 28개 산업분야 1,449개 기업을 지원하였다. 지원기업은 프로젝트 참여 이후 전년 대비 매출액(82%), 고용인원(8%), 투자유치(87%), 특허 취득실적(16%) 등이 증가하였으며, 신기술, 신제품 개발(82%), 핵심인력 확보 및 고용유지(77%) 등 다방면으로 성과를 내었다. 또한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는 2021년 12월까지 누적 4,679명의 신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핵심과제 유형 】

유형	주요내용
신산업 육성형(10개사)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지역 신산업육성 과제
주력산업 육성형(24개사)	인프라, 지자체 정책 등을 고려한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제
정부정책 연계형(5개사)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 지역) 관련 산업육성 과제
청년기업 이전형	수도권 소재 유망 청년기업의 지역이전 추진 과제

【전국 17개 지역 프로젝트 추진 현황】



■ 규제자유특구

1) 사업개요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현재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신기술 및 신사업 기반의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면제하고 재정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크게 ①규제혁신 3중 세트(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②메뉴판식 특례(총 201개 특례 자율선택) ③재정지원(실증R&D, 사업화 지원, 실증기반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2021년 중진공은 정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친환경 관련 신기술 분야 특구를 발굴하였다. 탄소중립특구 TF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5차 충남 탄소저감건설소재 특구 Top-down 지정(21.7)에 성공하였으며, 다양한 정책수단을 특구사업자에게 맞춤형 연계지원(정책자금 416억원, 바우처 40건 등)으로써 실증기술 개발을 지원하였다.

또한, 사업화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규제자유특구 챌린지를 통해 특구사업과 관련된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사업화 멘토링, IR 영상 제작, 성장공유형 자금 지원 등 사업화의 초기 기틀을 마련해주었다. 그 결과, 1~6차 29개 특구에서 2,261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차수	특구사업
1차 (19.7.23)	①(부산)블록체인 ②(대구)스마트웰니스 ③(세종)자율주행, ④(강원)디지털헬스케어 ⑤(충북)스마트안전제어 ⑥(전남)e-모빌리티 ⑦(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2차 (19.11.12)	①(광주)무인저속특장차 ②(대전)바이오메디컬 ③(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④(전북)친환경차 ⑤(전남)에너지신산업 ⑥(경남)무인선박 ⑦(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3차 (20.7.6)	①(울산)계몽서비스산업 ②(강원)액화수소산업 ③(경북)산업용헵프 ④(전북)탄소융복합산업 ⑤(대구)이동식협동로봇 ⑥(충남)수소에너지전환 ⑦(부산)해양모빌리티
4차 (20.11.13)	①(광주)그린에너지 ESS 발전 ②(경남)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③(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5차 (21.7.1)	①(강원)정밀의료산업, ②(충북)그린수소산업, ③(충남)탄소저감건설소재 ④(경북)스마트그린물류
6차 (21.11)	①(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가. 혁신바우처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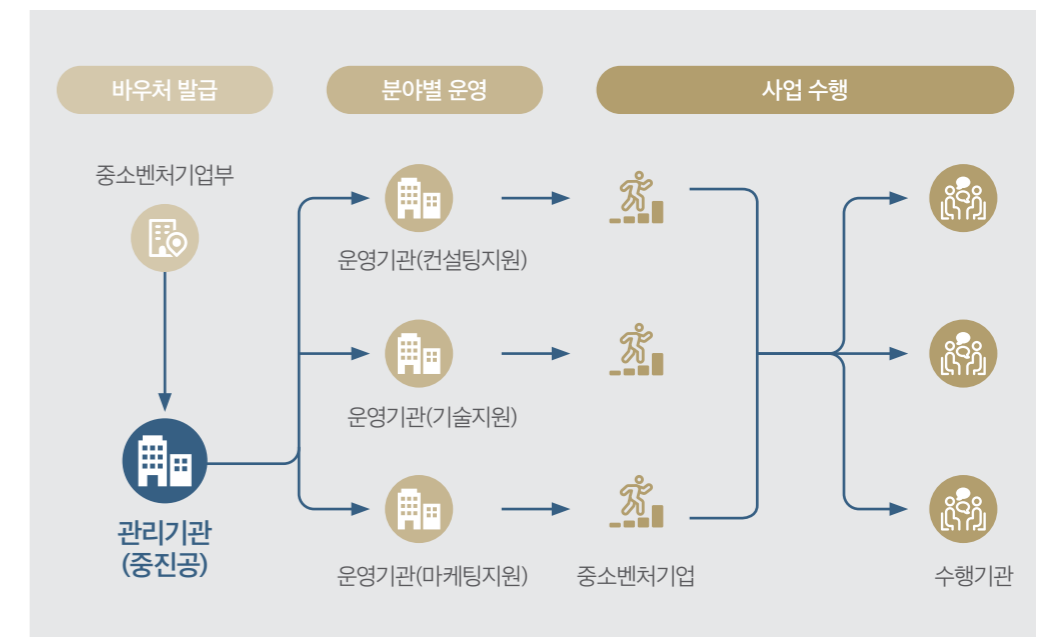
1) 사업개요

혁신 바우처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2020년 코로나19 영향 및 경기둔화로 위기에 직면한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진단과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분야별 전문 역량을 갖춘 수행기관을 통해 메뉴판 내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최대 50백만원 이내에서 3개 분야 1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총 2회 모집공고에 걸쳐 5,723개 기업이 신청하였고, 서면심사 및 진단·평가를 통해 1,672개사를 선정 및 지원하였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체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세부지원 서비스】

지원 분야	지원 프로그램
컨설팅	경영기술전략, 스마트공장추진전략, 규제대응, 산업안전, 융복합, 탄소중립*, 재기지원 * 별도 트랙 지원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구축, 기술이전 및 지적권 획득, 규격인증, 제품시험, 설계
마케팅	디자인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지원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세부지원 서비스】

지원 분야	지원 프로그램
컨설팅(필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기술지원(선택)	시제품 제작, 에너지효율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탄소 저감 관련 설계

2021년 한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을 통해 기술유망 소기업 1,672개사에 약 44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482건의 서비스(컨설팅:414건, 기술지원:938건, 마케팅:808건, 탄소중립:322건)를 연계했다. 아울러 고탄소 배출 10대 업종 기업을 39.3% 비중(716개사)으로 지원하여 제조 소기업의 탄소저감에 힘썼다. 또한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기업을 전체 지원기업의 83% 비중(1,385개사)으로 지원하여 영세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지원기업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 3.83% 성장하여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하였고, 1,579명의 고용 실적을 달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3) 제도개선사항

2021년에는 “2050 탄소중립” 정책 분위기에 발맞춰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의 탄소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기술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여 기업의 저탄소 경영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썼다. 이와 더불어 컨설팅 분야에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안전, 융복합 컨설팅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시켰다.

나. 재기컨설팅 바우처

1) 사업개요

재기컨설팅 바우처 사업은 경영위기 기업들의 자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기 및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기 기업에게 진로를 제시해주는 진로제시컨설팅 사업과, 회생절차 이행을 돕는 회생컨설팅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2021년도에는 중소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해 309건의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 ●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사업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사업은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기업에 대해 전문가 심층진단으로 기업에 필요한 진로를 제시하는 사업이다.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정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회출을 유도하여 시장 내 명맥만 유지하는 ‘좀비기업’의 양산을 막고,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조기진입을 유도한다.

2021년에 5억원 규모로 총 23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로제시컨설팅을 지원하였다. 이 중 181개사에는 “구조개선” 판정으로 수출마케팅, 워크아웃, 자금 등 지원정책을 연계하였고, 14개사에는 “회생지원” 처방을 통해 회생컨설팅을 연계하였으며, 이외 3개사에는 “사업정리” 처방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폐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재창업자 컨설팅을 신설하여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35개사에 실패원인 분석을 통한 재기성공전략 수립과 종합진단을 통한 사업계획 점검 및 솔루션을 제공하였다.

【2021년 진로제시컨설팅 처방 현황】

(단위 : 개사)

구분	회생컨설팅 지원	사업정리	구조개선 등	재창업자 컨설팅	합계
지원기업(개사)	14	3	181	35	233

● ●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은 법원 회생절차 이행이 필요하나 회생절차 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회생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원 조사위원 경험을 보유한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등 전문컨설턴트를 통해 법원 회생개시신청서 작성, 조사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등 회생절차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2013년 57개사, 2014년 65개사, 2015년 51개사, 2016년 55개사, 2017년 90개사, 2018년 92개사 2019년 95개사, 2020년 95개사, 2021년 76개사 등 총 676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법원 회생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회생인가율을 제고하고 있다.

【2013~2021년 회생컨설팅 지원 실적】

(단위 : 개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지원기업 수	57	65	51	55	90	92	95	95	76	676

2020년 회생컨설팅 완료기업 73개사 중 60개사는 회생인가결정이 완료('22.3월 기준)되어, 82.19%의 인가율을 달성하였다. 최근 5년('16년~'20년)간 법원의 회합사건 회생인가율 40.9%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이다. 이는 역량이 우수한 컨설턴트를 선정·관리하여, 신청부터 인가 시까지 컨설팅 전 과정에 걸쳐 수요자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수행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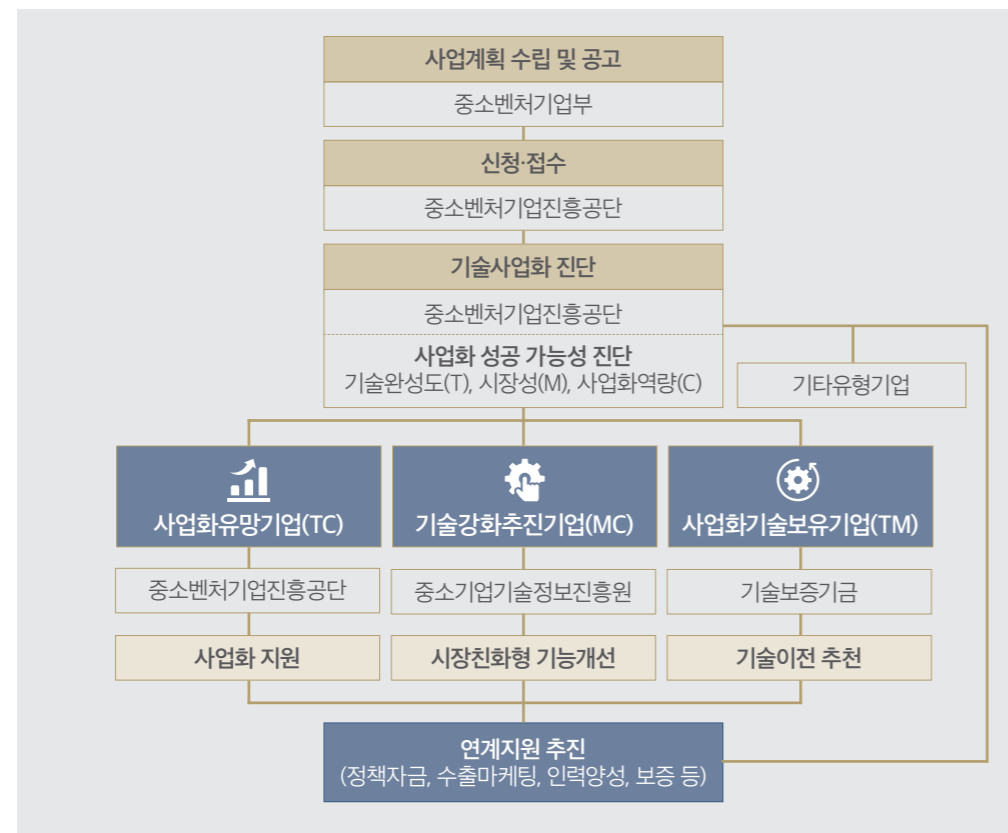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

1) 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은 정부 R&D 성공과제 또는 특허등록기술 중 사업화 되지 못한 기술에 대해 진단을 통한 사업화 지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등을 지원하고, 정부 R&D 투자효율 제고 및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창출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정부 R&D 성공기술 및 특허등록기술 중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이며, 최종 선정기업에는 사업화 지원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기술사업화 추진 지원체계】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중소벤처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은 고객중심의 신속지원 및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평가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코로나19로 가중된 중소기업 R&D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출연금 비중을 한시적으로 상향(65%→90%)하였다.

또한, 기술사업화 진단의 단가 확대(1→1.5백만원)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였으며, 사업화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수요자가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였다.

2021년에는 사업화 지원 분야에 32개사를 선정·지원하였으며,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분야에서는 20개사(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협업)를 지원하였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평가에 한국형 뉴딜(디지털, 그린) 관련 가점(2점)을 두어 비대면 및 친환경 분야를 중점 지원하였다.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지원현황】

구분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지원	시장친화형기능개선
실적(건)	85	32	20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1) 사업개요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은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 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경륜경정법**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필수 사업으로 지원부문은 기술개발 지원과 맞춤형사업화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기술개발 부문은 자전거·해양 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 제조 중소기업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제 비용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맞춤형사업화 부문은 기술개발 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사업화 기획, 사업화 지원 등 수요자가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기술개발 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연구원을 신규 채용한 경우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의 기존 연구원이 참여할 경우에는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뿐만 아니라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 (기준) ①요건검토 → ②서류평가 → ③사업화진단 → ④국민심사 → ⑤발표평가 (3개월 소요)
(개선) ①서류평가 → ②사업화진단 → ③발표평가 (2개월 소요)

** 경륜경정법 제18조 : 자전거 및 모터보트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경륜·경정 경우 수익금의 우선사용을 의무화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운영체계】



2)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2021년 기술개발 부문에는 총 29개 기업이 사업을 신청하고 이 중 4개 기업이 신규 선정되어 7.2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신규과제 4건, 계속과제 4건으로 총 8개 과제에 대해 1,56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그 결과 특허등록 및 출원 7건, 시제품 출시 7건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맞춤형사업화 부문은 사업화 기획 3건, 사업화 지원 4건 등 총 7건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금액 대비 신규 매출액 71.4%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MEMO•

지역산업혁신 지원 현장을 찾아서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우수사례



성림첨단산업(주)

맞춤형 지원으로 대구지역 로봇산업 스케일업 혁신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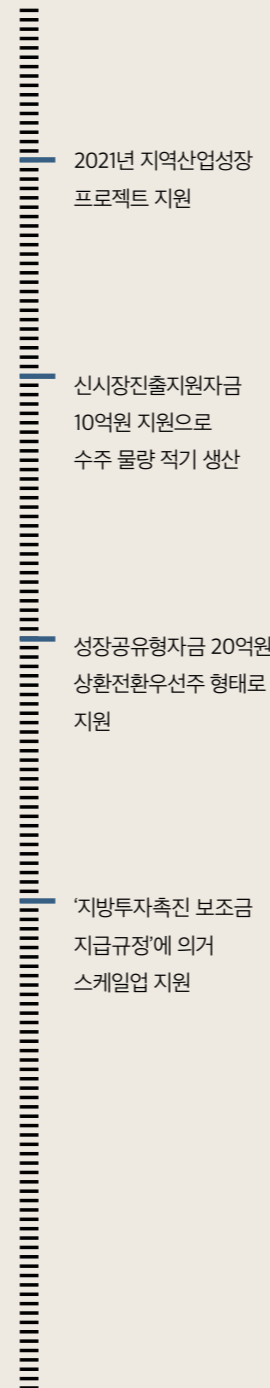
대표자 공군승
 설립 1994년
 주업종 희토류 영구자석 응용 분야
 지원사업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지원현황 2021년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30억원 지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억원, 성장공유형자금 20억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로봇산업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그렇다면 로봇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구지역은 로봇 특화 산업 지역으로 로봇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로봇산업 공급망 스케일업' 체계를 구축하였다.

대구지역은 로봇관련 부품산업 집중지원 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였는데, 성림첨단산업(주)이 그 중 하나다. 성림첨단산업은 국내 유일의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기업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기차, 로봇 등 구동 모터 수요증가 대응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698%(20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열악했다.



지원 타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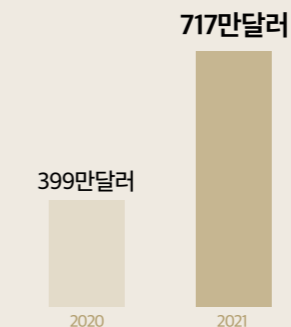
이에 중진공은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성림첨단산업을 로봇산업 유망기업으로 선정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억원을 신속히 공급하였다. 그 결과 성림첨단산업은 해외 수주물량을 적기에 맞출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중진공은 기업의 미래 성장성과 IPO 가능성을 보고 성장공유형자금 20억원을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로 지원하여 스케일업을 촉진하였다.

이처럼 적기에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개선 및 스케일업을 촉진한 결과, 2021년 수출실적이 79%나 개선되었다. 또한 LG이노텍과 친환경마그넷 공동개발에 성공하였으며, 포스코 및 VC로부터 약 200억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원성과



수출 증가



투자유치

약 200억원



지역산업혁신 지원 현장을 찾아서

기술평가역량강화사업 우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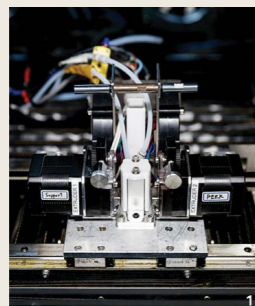
(주)링크솔루션

기술평가역량강화사업 덕분에 SLA 3D프린터 개발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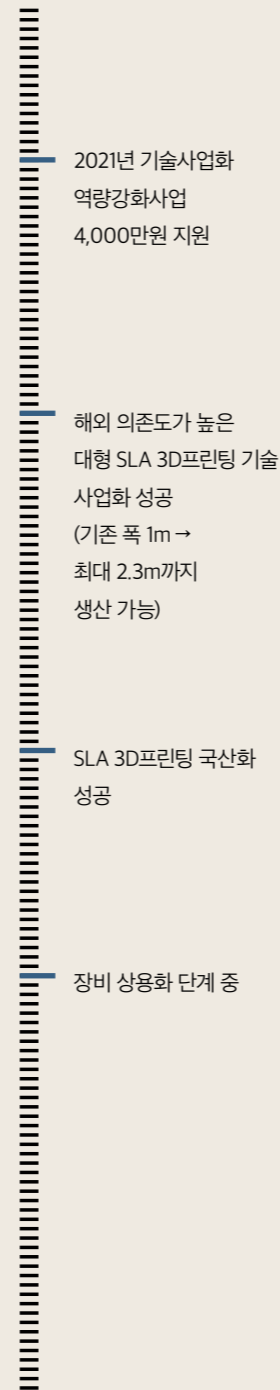
대표자 최근식
 설립 2015년
 주업종 3D프린터 개발
 지원사업 기술평가역량강화사업
 지원현황 2021년 기술평가역량강화사업 4,000만원 지원

(주)링크솔루션은 창업초기 기업이지만 3D프린팅 기술력이 뛰어나 세계 최대 SLA(Stereo Lithography Apparatus, 광경화 조형방식) 3D프린트 개발을 주도하는 선두기업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광조형 3D프린팅 방식 중 하나인 SLA 방식은 출력 모형을 맞게 광경화성 물질을 레이저로 투사해 한 층씩 적층하는 입체 광투영기술이다. 링크솔루션은 이 같은 초고속 대면적 SLA 3D프린트 기술을 기반으로 대형가전 부품 생산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삼고 기술평가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주)링크솔루션은 기술평가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대형가전 부품 생산 공정 기술력 확보와 자금유통 등 다각도로 지원을 받으며 세계 초대형 SLA 3D프린터의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었다.



지원 타임라인



이번 사업을 통해 커튼코터 리코팅 방식의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설계 및 제작에 주력했고, 기존 기술력 대비 향상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취는 해외 의존적 기술인 대형 SLA 3D프린팅의 국산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항공 및 대형가전 산업, 자동차 내·외장 대형 부품 제조 서비스 등 다품종 소량생산 제조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성장한 (주)링크솔루션은 앞으로 지속적인 3D프린팅 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춰 더 큰 시장으로 끊임없이 도전해나갈 것이다.

지원성과



2021년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혁신 성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 Annual Report 2021

- ✓ 고객서비스 향상 및 사회적가치 실현
- ✓ 조직 경영 효율성 강화

고객서비스 향상 및 사회적가치 실현

지속경영문화 확산 노력 및 현장 중심 고객서비스 제공

2021년에는 지속경영 확산 노력 및 현장 중심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사CS 역량강화', '현장 CS 혁신'이라는 2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전략 추진을 위한 4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전사적인 CS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였다.



"지속경영교육 개선"을 위해 관리자/실무자 맞춤형 커리큘럼을 진행하여 교육효과 증대 및 고객응대 유연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지속경영분야(사회적가치, 윤리인권, CS 등) 통합교육을 통해 임직원 CS 실천의지를 극대화하였다.

"고객만족경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체 만족도 조사항목에 윤리(청렴도 등)항목을 보완하였으며, 중진공 고객의 범위를 확대하여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실현하기 위해 전화응대 품질향상을 위한 외부 교육을 실시한 결과 관련 만족도점수가 전년 93.0점 대비 0.5점 상향된 93.5점을 기록하였다. 또한, 고객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컨설팅을

* 중소기업진흥공단 PCSI & CSI 점수

구분	2020년	2021년
PCSI	88.4	90.7
CSI	96.4	96.7

PCSI(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CSI(Customer Satisfaction Index) : 고객만족도

이원화하여 진행하였다. 지역본·지부는 상담환경, 악성민원대응을 중점 교육하였고, 연수원의 경우 교육생관리, 교육환경 개선 등에 집중하였다.

"현장점점 CS혁신을 위한 부서 간 협력"을 위해 CS 응대 직원보호 기능 및 고객의 현장의견(VOC) 관리를 강화하였다.

중진공은 이와 같은 2대 추진전략과 4개 실천과제를 통해 고객서비스 향상 및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청렴과 공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윤리·인권경영 추진

「청렴과 공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KOSME」를 2021년 중진공 윤리·인권경영 목표로 정하고, '전사 윤리·청렴 체질 확립', '공고한 내부건제로 부패 원천차단'의 2대 추진전략과 4개 실행과제를 선정·추진하였다. 그 결과 전년 대비 2021년도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 상승하였다.



기관의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마련 및 전사적 청렴활동 추진을 위해 기관장의 강한 개혁의지를 바탕으로 부이사장 직속의 「청렴도 향상 특별 추진단」을 신설하고 「부패ZERO 청렴100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 부서 67개의 청렴과제를 발굴·추진함으로써 부서별 부패 취약요소를 자율·선제적으로 개선하여 청렴활동 추진체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예방적 윤리경영 조직문화제도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 5개 유관기관 합동 청렴LIVE 교육, 기관장·상임임원 윤리·인권실천서약 등 기관장부터 일반 직원까지 모두 참여하는 청렴의식 내재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주요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눈 먼 정책지원 근절로 정책자금 부정사용 및 보조금 부당지출에 따른 재정낭비를 예방하였다. 실시간 준법감시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규정위반 적시 해결을 통한 운영리스크를 저감하였고, 회계 전산화 및 제도정비,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역대급 규모의 기금 예산에도 불구 회계사고 0건 발생 등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혁신도시 5개 유관기관 합동 청렴LIVE 교육



기관장·상임임원 윤리·인권실천서약

사전 예방적 인권경영을 위해 인권경영위원회에 노무사와 기업인을 신규 위촉함으로써 현장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관련 조직과 규정을 정비하였고, 전 직원 4대 폭력예방 교육, 인권위원회 사이버 교육 등 인권의식향상 교육을 진행하여 인권친화적 경영의 실행기반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분야의 인권취약분야를 진단하고 6대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함으로써 인권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안전보건공단과 전기안전공사와 협업하여 고객들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고,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자문센터 운영, 하도급사 모니터링 등 취약계층 인권보호에도 앞장섰다.

2022년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발맞춰 임직원 행동강령, 인사규정 등을 개정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 매뉴얼 배포, 자가진단 및 모니터링 등 내재화 활동을 추진하여 선제적으로 이해충돌 관리를 강화하였다. 이해충돌방지 관련 감사를 22회 실시한 결과 위반 지적사항은 전무하였다. 이와 함께 합동청렴시민감사관 회의와 경남-충북 청렴클러스터 워크숍에서 이해충돌방지 관리방안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환류를 강화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2020년 대비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와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모두 2개 등급 상승하였다. 3년 연속으로 부패사건 0건, 11조4,436억원의 역대급 규모의 기금 운영에도 회계사고 0건,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으로 21년도 공공데이터 개방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등 윤리·인권경영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경남-충북 청렴클러스터 워크숍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선도

중진공은 기관의 핵심가치인 「혁신, 공공성, 현장, 신뢰」를 내재화한 ESG경영 모범이행을 위하여 ESG 분야별 활동을 통합하고 체계화하여 ESG경영 전략 체계를 구축하였다.

기관비전	중소벤처기업 중심 경제 발전의 성공 파트너 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ESG비전	환경·사회·투명 경영 확립을 통한 지속가능 가치 창출 Sift ESG, Lift KOSME		
전략목표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Responsibility	 지배구조 Governance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감축량 2400tCO2 탄소중립 혁신지원 100억원 	공공성 강화로 사회적 가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ISO26000 '최고수준' 달성 지역특화 일자리 20,000명 공공기관 안전활동수준 1등급 사회형평적 채용 100% 달성 	투명·참여·신뢰 기반의 지배구조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ESG투자 및 채권발행 선도

특히, '지역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확대', '사회적 경제기업 등 포용적 동반성장'의 3가지 전략을 기반으로 ESG경영을 선도하고 지역상생·동반성장 등 적극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썼다.

이를 위한 노력을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 지역산업 및 지역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전국 17개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집중 연계지원을 통해 4,67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소멸 위기지역 내 유망기업 입주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관의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연속 국가균형발전 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을 이끌 우수한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대학·지역혁신기관과 협업하여 지역별 중점육성 산업 장학생 34명을 선발·양성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멘토링을 제공하였다.



지역별 중점육성 산업 장학금 수여식



상생형 스마트워크센터 개소

둘째, 맞춤형 지역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 도모를 지원하였다. 중진공-경남도-통영시-두미도 간 4자 협력을 통해 경상남도 특성을 반영한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상생형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소하였다. 섬 내 유휴공간을 사무실 및 숙소로 재정비한 후 시설인프라를 지역주민 및 국민에게 개방하여 섬을 활성화하고 주민주도의 소득증대를 유도하였다.

이외에도 중진공은 2020년에 이어 시민참여형 지역현안해결 프로그램인 '디지털리빙랩 2기'를 운영하였다. 디지털리빙랩 1기를 통해 교통약자에게 무장애지점 및 여행코스를 제공하였다면, 2021년에는 더 나아가 교통약자의 '직접적인' 이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활동을 추진하였다. 진주 내 개선이 시급한 지역(10개)을 우선 선정하여 907개의 장애물을 발굴하고 개선 요청하였다. 향후에는 이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공유하여 휠체어 내비게이션을 개발하고 교통약자에게 환원함으로써 무장애 도시 구축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코로나19극복 동참을 위하여 푸드마켓 운영, 성금기부 등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임직원 성금모금으로 매월 장애인복지시설을 지원(8곳, 9.6백만원)하고,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생필품을 지원(22.1백만원)하는 등 나눔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였다.



사랑나눔 푸드마켓



연말 소외계층 희망나눔

셋째,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포용적인 동반성장을 지원하였다. 사회적경제기업 상생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본부 부서장·팀장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진단과 맞춤형 연계지원을 실시하는 '중진GO' 프로그램 통해 220건의 맞춤형 연계지원(멘토링·정책자금·연수 등)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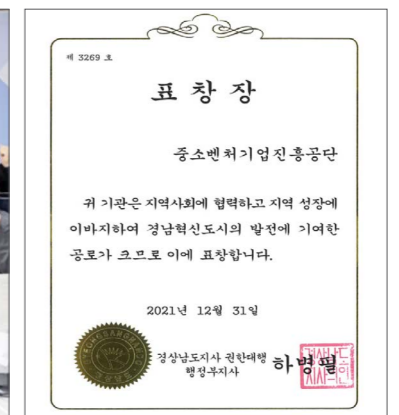
또한, 임직원 성금모금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8명)의 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을 1년간 전액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와의 포용적 동반성장을 지원하였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에 교육을 지원하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사회적 경제기업 164개사 44억원 규모의 온라인 구매상담회 추진 및 직접적 구매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였다.('20년 대비 51.7% 상승)

전사적 활동으로 지역경제성장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상남도 표창장 수상(21년 12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3년 연속 자격획득, 사회적 책임이행수준 ISO26000 2년 연속 최고수준 4단계 달성(975.3점)의 성과를 이루었다.



장애인 근로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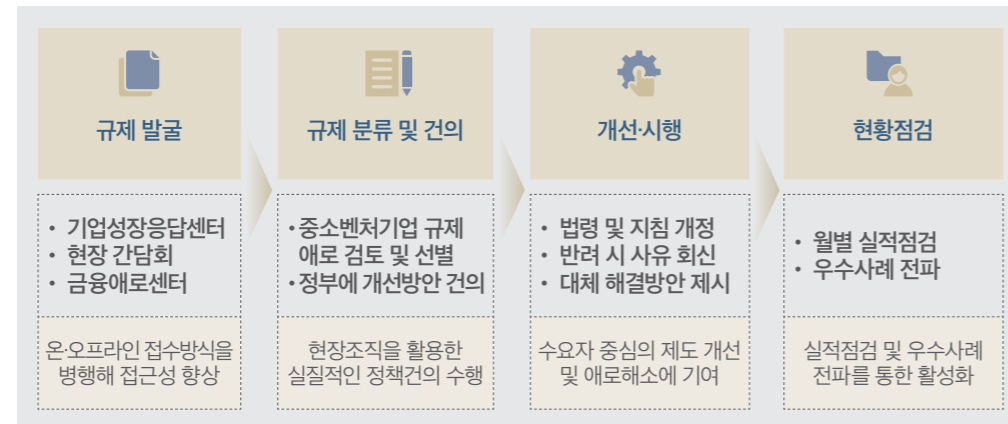


지역경제성장 경상남도 표창장 수상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으로 발굴·해소

중진공은 2011년부터 지역본·지부 등 현장조직의 강점을 살려,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정책중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기업성장응답센터, 기업인 간담회 등 현장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발굴한 규제를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정부에 정책개선 과제로 제안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정책중개 업무절차】



2013년에는 금융감독원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이하 금융애로상담센터)』를 신설하였다. 금융애로상담센터는 지역 순회상담 등을 통해 매년 50건 이상의 금융규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2021년에도 총 50건의 금융애로를 발굴 및 건의하여 중소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금융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공동으로 "S.O.S Talk*"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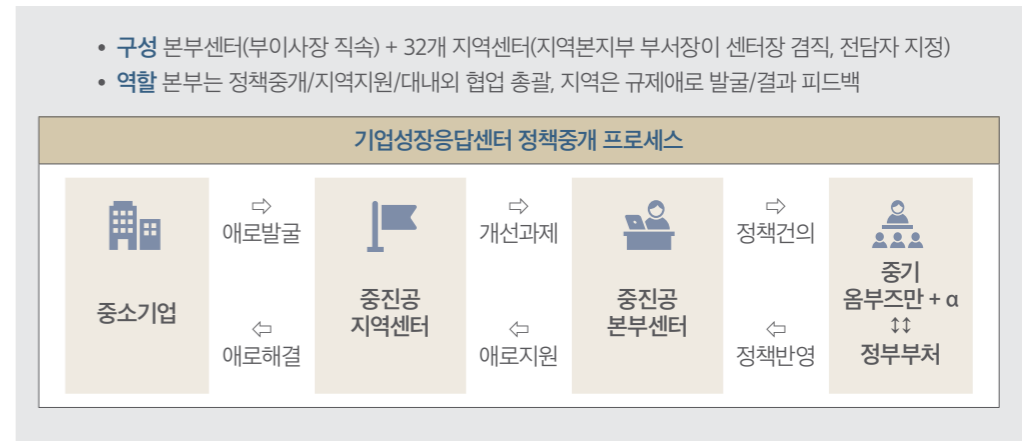
2021년에는 지역별로 16회의 S.O.S Talk 간담회를 개최해 총 147건의 현장애로 및 정책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

2020년 12월에는 VIP 주재 국무회의 규제개혁 후속대책 주문('20.5)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의 유기적 규제혁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유관기관과 합동 발족하여, 2021년에 195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진공은 이를 통해 기존 정책중개 시스템을 확대·개편하고 온·오프라인 상시 소통채널을 구현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 중소기업(Small business), 옴부즈만(Ombudsman), 중진공(KOSME)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규제애로 합동 간담회

【중진공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체계】



또한, 2021년 9월 중진공은 공정위와 협업해 울산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다양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중진공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서도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발굴된 규제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처럼 중진공은 기업성장응답센터(지역본·지부), 현장 간담회, 금융애로센터 등 현장접점 규제 발굴 채널 다각화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를 혁신하는데 앞장서 왔다.

그 결과, 2021년 총 408건의 정책개선 과제를 정부에 발굴·건의하였고, 이 중 109건이 정책이 반영되어 약 27%(전년 대비 12%p 상승)의 높은 정책반영률을 달성하였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한 것이다.

【주요 개선 사례】

건의명	주요 내용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급 규정 변경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17조	<p>☹️ 개선 전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 신청 제한</p> <p>☺️ 개선 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투자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그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 가능 *(결과) '21.10월 고시 개정 → '22년 시행</p>

중소기업 정보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전문지 발간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영·기술 트렌드, 우수 성공사례, 중소기업 지원시책 등의 정보를 담은 월간 『기업나라』를 1979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매월 1일 발간되는 『기업나라』는 중소기업의 경영자 및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구독 회원제로 운영된다. 연간 회원에게는 정가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최신 주요기사를 엄선해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발송하며 구독 회원에 대한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시중 대형서점을 통한 판매로 중소기업과 우수 제품의 대외 홍보 효과를 높였고, 기업나라 웹진(nara.kosmes.or.kr)에서 주요기사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했다.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정보제공 확산과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포스트'에 『기업나라』 콘텐츠를 게시하며 인쇄물이 아닌 모바일 환경에서도 주요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중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기업나라』는 최신 산업동향 및 이슈 관련 중소기업 사례를 심층 취재하는 <특집>, <기획> 코너와 <Story>, <Culture & Global>, <Trend & Info>, <Insight & Inspiration> 등의 카테고리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Story>에서는 현장 취재를 통해 중소기업 CEO의 경영철학과 우수 제품의 탄생 과정, ESG를 실천하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노하우 등을 생생하게 소개하며, <Culture & Global>에서는 문화를 즐기기 위한 흥미로운 인문학 주제를 소개하고 현지 리포터를 통해 미국, 독일, 중국 등의 해외 경제이슈 및 기술 동향을 전달한다. <Trend & Info>는 중소기업 최신 경영기술 트렌드를 분석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Insight & Inspiration>은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례별 협상기술을 소개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미래의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독자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엄선된 지원시책과 중소기업 관련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하는 코너(중소기업 옴부즈만)도 함께 운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언론 노출 기회가 적은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취재하여 홍보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만족도 제고 및 품질 개선을 위해 매월 <독자의 소리> 코너를 통해 관심있게 본 기사 내용과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반영하였다. 2021년 독자 모니터링단 설문을 통해 『기업나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척도 기준 4.38점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특히 '성공사례'와 '지원시책' 관련 기사에 대한 독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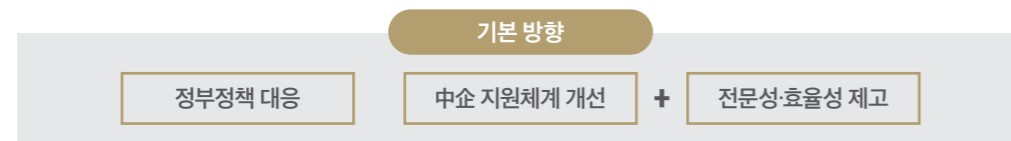
월간 『기업나라』 콘텐츠 <CEO 경영 이야기>와 <로컬 전성시대>

조직 경영 효율성 강화

정부정책 대응과 중소기업 효과적 지원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중소벤처기업 및 재직자 구조전환 지원,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을 위한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등 신규사업의 인력 소요 필요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44명을 증원하였다.

또한, 탄소중립 등 정부정책 변화 체계적 대응, 중소기업 효과적 지원 및 성과창출 등을 위해 ①정부정책 대응 ②중소 지원체계 개선 ③전문성·효율성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추진방향	조직개편 내용
 정부정책 대응	산업구조 전환, 탄소중립 등 대외환경 변화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구조 혁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구조 개편 및 인력전환 지원 총괄을 위해 '구조혁신처'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지역본부 무역조정사업전환센터를 구조혁신지원센터로 전환 • (탄소중립 혁신) 중소기업 탄소중립 및 ESG지원 사업총괄을 위해 'ESG진단기술처' 확대 및 기관 ESG경영 업무 사회가치실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스마트진단기술처 → (개편) ESG진단기술처 • (안정성 강화)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및 안정적인 대금결제 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금융처 내 '팩토링금융실' 별도 신설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	중소벤처기업 체계적 지원과 성과관리를 위해 현장조직 역할 조정 및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조직 역할 조정) 기관사업의 집행·성과 통합관리를 통한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해 병렬식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장조직 역할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지원처) 권역별 사업집행·성과관리를 통한 본사-지역본부간 Hub 역할 수행 (지역본부) 연계성 낮은 업무 경영지원처 이관 및 대외기관 협업, 지역산업혁신 강화 (지부) 대외협업 업무 지역본부 이관을 통해 사업집행 역량 집중 • (정책접근성 제고) 정책수요자 접근성 제고와 창업기업 연계지원 강화를 위해 세종지역본부 신설 및 5개 지역청년창업사관학교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광주·경북·경남 지역청년창업사관학교 이관, 경기 창사 경기북부로 이관
 전문성·효율성 제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업무 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강화) 데이터 중요성 확대에 따른 데이터 관련업무 총괄, 전산시스템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하부조직 개편·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경영전략실 내 빅데이터기획팀(←데이터사업팀) 개편 ** 정보관리실 내 기금시스템팀(←사업시스템팀) 개편 및 수탁시스템팀 신설 • (조직운영 효율화) 기획·운영 이원화* 및 유사업무**를 수행 중인 부서·팀 통합을 통해 업무 시너지 효과 및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성과보상기획처(기획), 성과보상사업처(운영) → (개편) 성과보상처(기획, 운영 통합) ** (현행) 비상계획실(전시계획), 안전관리팀(안전) → (개편) 비상안전실(전시계획, 안전)

디지털 전환 등 중소기업 미래 경제구조 전환 지원성과로 혁신계획 우수 기관 표창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사회적가치 성과 창출, 국민신뢰 확보를 2021년도 3대 혁신 목표로 삼고, △정책자금 지원방식의 디지털화 △스마트공장 확산 △수출지원 시스템 비대면 전환 △해상·항공 물류로 해상 △제조현장 저탄소화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및 취업연계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등을 중점 추진했다.

추진한 혁신과제 중 “HMM과의 협업으로 중소기업 수출물류 지원”이 중소기업업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정책자금 상담부터 약정까지 전과정 ‘비대면화’ 전면 구현”이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100대 사례로 선정되었다.

한편, 다양한 전문가(기업인·연구원·교수)로 구성된 외부 자문기구인 「미래발전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주요사업 개선 및 기관운영에 대한 자문의견을 기관혁신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2021년 5월에는 「중진공 혁신성과 및 미래 발전방향보고회」를 개최하여, “선순환 기업 생태계 구축”, “지속가능 경영 지원”, “존경받는 기업 육성”을 위한 기관의 역할을 국민을 대상으로 발표·전파하였다.

2021년 12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평가’에서 2년 연속 혁신계획 10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혁신계획 우수기관 중 상위 3개 기관에만 주어지는 경제부총리 표창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중진공이 중소기업 비대면·디지털 경제 활성화, 탄소중립 대응, 지역산업발전 등 한국판 뉴딜 선도를 중심으로 혁신 계획을 수립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도 중진공은 기업 현장과 정책을 잇는 중재자로서 역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영 혁신을 이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뉴노멀 시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ESG 경영,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발전자문위원회 개최



중진공 혁신성과 및 미래발전방향보고회

중장기 인력육성 체계 마련

중진공은 중소기업 혁신성장 선도, 사회적 가치 창출, 고객체감 성과창출, 국민신뢰 향상 등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인력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먼저, 조직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역량과 혁신성을 갖춘 리더를 적극 발굴·양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차세대 리더군을 육성하기 위해 우수직원 대상 중요 부서·보직 전진배치, 역량·성과 중심 발탁승진, 대외 장기교육 파견, 파견 복귀 후 중요 부서·보직 재배치 등의 체계적인 성장경로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역량·성과가 우수하고 조직에 헌신하는 직원이 리더로 성장하고 우대받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외부적으로는 민간전문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조직내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였는데, 일례로 비대면·디지털 전환기 연수사업 혁신을 위해 중소기업연수원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고 첫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직무관리와 경력개발을 통해 전체 실무직원을 직무전문가로 육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新CDP로 개편하고 직무역량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CDP기반 인력양성 시스템을 고도화하였다. 新CDP로 개편하면서, 입사초기 순환근무를 통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한 후 희망직무를 선택하고, 선택한 직무에 따라 교육-인사 연계 운영을 강화하여 △형 인재를 육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직무역량등급제를 도입하면서, 전체 직원의 직무별 역량수준을 DB화·점수화한 후 초급, 중급, 고급, Master 4등급으로 분류하고, 직원 개인의 직무와 역량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인사배치, 교육실습, 자격취득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화하였다.

청년중심 및 사회형평적 채용 강화

중진공은 공공기관으로서 경기회복기 적극·신속·안전 채용을 통해 조속한 일자리 회복, 코로나19 발병 이후 악화된 청년고용 여건 개선, 취업취약계층인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선제적으로 채용에 나서 3년 연속으로 채용규모를 확대하고(137명→156명→221명), 3년 연속 채용시기를 단축하였으며(연중 최초 채용시기 5.13일→4.8일→3.15일), 2년 연속 무사고(안전사고 및 코로나 확진자 0명)로 완료되었다. 이러한 적극·신속·안전 채용 노력을 통해 경기회복기 조속한 일자리 회복에 기여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발병 이후 악화된 청년고용 여건을 개선하고자,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대책을 수립·이행하였다. 청년의 성장단계를 취업준비, 입사지원, 조직적응, 성숙·도약 4단계로 구분하고, 각 시기마다 청년들의 니즈를 세심히 살폈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인턴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청년구직자 채용 우대, 신입직원 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임신·출산·육아 지원, 직무전문성 제고, 혁신창업 장려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신설·개편하였다. 그 결과 기관 역대 최대인 90명의 청년일 자리를 창출하였다.

이외에도,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등 취업취약계층별로 맞춤형 채용을 지원하였다. 장애인의 경우, 체험형 일자리 확대 및 직장내 전문상담원 도입 등 장애친화 채용·고용 시스템을 강화하여 중증장애인 채용비율을 전년 대비 4.7%p 확대(37.6%→42.3%)하였고 장애인 의무고용목표(3.4%)를 0.7%p 초과 달성(3.4%)하였다. 보훈대상자의 경우, 채용전형마다 가점을 5~10점 부여하고 별도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보훈채용인원이 전년 대비 2.7배 증가(3→8명)하였다.

직무 전문성 제고 및 비대면 교육 확대

중진공은 기관 핵심역량 제고를 위해 직무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신산업 등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전략목표와 연계한 사업별 특화교육을 중점 추진하였다. 또한, 리더 및 조직역량 개발을 위해 계층별 교육을 강화하였고, 디지털 전환 로드맵에 맞춰 비대면 교육 확대 및 온라인 교육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육방식을 혁신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반적인 교육 참여 위축으로, 총 교육시간은 전년 대비 0.5%, 1인당 교육시간은 7.9% 감소하였으나, 부서장 후보자 역량강화 교육 신설 및 신입사원 온보딩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리더역량 교육시간은 확대되었다.

【2021년 연간 교육실적】

구분(시간)	'20년	'21년
총 교육실적	112,397	111,888
• 직무역량	41,218	36,535
• 리더역량	15,529	22,014
• 공통역량	55,650	53,339

전년 대비 41.8%(6,485명) 증가

직무역량의 경우 체계적인 역량개발을 위해 8개 사업분야별 사내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사외교육을 지원하였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사내 자격증반을 신설하여 금융·창업 분야 자격증 취득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현업에서 축적된 실무지식, 노하우를 공유하여 조직현안을 해결하는 학습조직 제도를 '프로젝트형+자율학습형'으로 개선하여 현장부서의 학습조직 참여 및 성과를 개선하였다.

리더역량 분야는 성과창출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계층별 필요역량에 기반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부서장 후보자 역량강화 교육을 정규화하여 객관적 평가·검증 프로세스를 도입하였으며, 신입직원의 업무적응 및 조직융화를 위한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4단계 맞춤형(입문교육→순환근무→루키아카데미→직무OJT)을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성별균형 포용성장을 위해 차세대 여성리더 양성교육 및 양성평등 중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직소통·화합을 위한 팀단위 진단·솔루션 교육을 신설하였다.

공통역량 분야는 온라인교육 통합 사이트를 구축하여 단일 사이트를 통해 이러닝, 독서통신, 전화외국어 등 다양한 비대면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성과 및 효율성을 개선하였으며, 업무노하우, 신규사업 등 사내 디지털 콘텐츠를 신규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이력 관리를 위해 HR시스템을 고도화하였다.

교육 설문조사 결과, 연령·직급에 비례하여 만족도가 높았으며, 자격증 교육 및 미래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선점을 바탕으로 직무 전문교육 및 최신 콘텐츠 확대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기관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성과 중심 성과관리체계 운영

기관의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산업혁신, 디지털 혁신, 사회안전망 등 3대 혁신방안 추진 지표를 신설하여 기관의 핵심성과 창출 및 주요 정부정책 실행에 기여하였다. 특히 핵심사업 성과중심으로 지역본부 평가지표를 정비·간소화(17.0%↓)하여 핵심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부서평가는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인 지역산업혁신 과제에 대한 성과창출 및 지역본부-지부간 협업 유도를 위해 기존 권역별 평가직군을 역할·규모별 직군으로 개편하고 본부부서의 역할변경 등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하여 내부직원의 직군편성 만족도를 6.7% 향상시켰다. 또한, 외부평가와 부서개인평가의 KPI 연계를 강화하고 평가 최종결과 및 지표별 등급, 비계량 평가의견(우수사례, 지적사항 등)까지 공개한 결과 부서평가결과 수용도가 전년 대비 향상(4.13점→4.42점)되었다.

평가경험 및 전문성이 높은 평가위원을 전부서에서 추천받아 평가단 Pool을 구성·운영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평가단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부서장평가 내부 위원을 팀장급에서 임원급으로 격상하고 외부위원 수를 확대(2명→4명)하여 평가의 독립성을 제고하였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전년도에 도입한 비대면 평가를 본부 부서까지 전면 확대하여 성과평가 절차 및 운영의 공정성을 향상시켰다.

개인성과평가는 정부의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서장-팀장 성과지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였다. 한국판 뉴딜에 부응한 'K-예비유니콘 발굴·지원'과 상생협력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산업혁신 및 지역사회공헌과제'를 부서장 핵심과제에 우선 반영하고, 팀장은 부서장 핵심과제와 연계한 과제를 공통과제로 운영하여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를 제고하였다.

지역본부 권역별 협업분위기 조성 및 지역산업혁신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평가 직군을 지역본부 단일 직군에서 지역본부 1,2군 및 지부 1,2군으로 개편하였고, 부서장 평가단 중 외부위원을 대상으로 조직

이해도 강화를 위한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불공정한 평가오류 차단을 위해 직원 개인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AUDIT 및 이의제기 제도를 운영하되 무분별한 이의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수용은 신청인원의 50%로 제한하였다. 이처럼 모든 직원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평가결과 수용도를 제고(3.71점→3.83점)하였다.

신뢰 기반의 상호존중 조직문화 구축

2021년 중진공은 신뢰하며 소통하는 조직문화 정립 요구에 맞추어, 중점전략 “인재상 PRO”에서 “상호존중”을 우선가치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조직문화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신뢰기반의 조직문화 체계를 구축하고 내재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다.

목표	서로 믿고 힘이 되는 편안한 조직문화				
추진 원칙 (5R)	 Re-devotion 가치있는 헌신	 Respect 상호존중	 Result 성과중심	 Reward 공정한 보상	 Reboot 성장의 일상화
중점 전략	 P 전문성 Professional	 R 상호존중 Respect	 O 일가정 양립 O'clock		
실행 과제	① 성장하자! - 기관 우수 혁신사례 경진대회(3대 경진대회, 중진공인) ② 혁신하자! - 혁신을 위한 업무효율화 - 성과기반 공정 보상체계 구축	③ 신뢰하자! - 지속가능경영 교육 - 상호존중의날 지정·운영 ④ 소통하자! - 공감소통담당관 운영 - 소통문화활동 지원	⑤ 배려하자! - 일·가정 양립지원 활동 (PC OFF, 유연근무 등) ⑥ 행복하자! -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 불편문화근절 캠페인 활동		



불편문화근절 캠페인



공감 소통 간담회



부서 소통데이

첫째, 매월 11일을 '상호존중의 날'로 지정하여 조직 내 상호존중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고, 불편문화근절 캠페인을 운영하여 임직원의 조직문화 인식을 제고하였다. 특히, 부서 및 직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부서 간 소통데이'와 '부서 내 지피지기 워크숍'을 운영하여 상호존중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동호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직급의 어울림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공통점을 주제로 한 양방향 소통간담회 및 소통행사 개최를 통해 상호이해의 장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소통활성화를 위해 부서별 3명을 공감소통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실질적 고충을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임직원의 수요를 반영한 조직문화 활동을 추진하고 및 상시 모니터링하여 조직문화 지수 상승을 이끌어냈다.(20년 5.36→21년 5.41점)

둘째, 일·가정 양립의 문화 정착을 위하여 연차휴가 및 리프레시 휴가 사용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날 등을 통해 가족친화경영을 이끌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및 업무효율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재택근무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경영문화를 조성하였다. 특히, 임직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백신휴가제를 신규 도입하여 백신접종을 장려하고 후유증 예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2021 올해의 중진공인 경진대회

아울러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을 통해 개인, 가정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임직원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여 스트레스 제로의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임직원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심층 심리 지원 분야를 확대하여 적극 대응하였다. 이러한 소통 및 수요자 중심의 활동을 통해 상호 신뢰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켰고, 그 결과 11년 연속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여성가족부)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성과중심으로 조직과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경진대회 및 포상제도를 개편하여 운영하였다. 기관의 ESG경영과 핵심가치를 반영한 혁신선도, 사회적책임, 지역발전의 3대 분야 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외부평가위원 및 국민평가단을 포함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 이 경진대회를 통해 총 89건의 우수 혁신사례가 접수되었으며 각 분야별 심사를 통해 선발된 최우수 과제 9건을 올해의 중진공인 심사에 추천하여 3건이 포상을 받았다. 금전적인 포상뿐만 아니라 인사가점, 이사장 표창 등 비금전적 포상도 함께 추진하여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문성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힘썼다.

2022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추진 방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 Annual Report 2021

2022년 사업추진 방향

2022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①선순환 기업생태계 구축 ②중소벤처기업 성장기반 마련 ③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점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정부정책을 최일선 현장에서 수행하는 원스톱 종합지원 기관으로서 중소기업들을 경제구조 전환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1.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성장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목표 '21년 2.6→'22년 3.2조원, 0.6조원)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시설투자 지원을 강화하여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 저감장치 설비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Net-Zero유망기업자금 200→1,200억원, 1,000억원)을 확대하고, 금리 인센티브(탄소저감 성과기업에 최대 0.2% 인하) 제공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한다.

2. 포스트코로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안전망 역할 수행

기준금리 상승, 오미크론 확산 등 지속적인 대내외 위기 대응을 위해 특별만기연장 및 채무조정 등 위기 기업의 경영 정상화 및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동성 위기가 심화될 경우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신속히 공급하고, 부실징후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지원방안 마련 및 적극적 채무감면 등 신속한 재기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3.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금융 서비스 제공

유동성 확보에 대한 중소기업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출채권을 인수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존 용자와 다른 방식의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375억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아울러, 비대면 스마트 진단 및 디지털 용자신청서·전자정보 자동수집 기술을 신규 도입하여 비대면 지원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글로벌화 및 수출마케팅지원

1. 전자상거래수출 인프라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해 아마존 등 글로벌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라이브커머스를 연중 상시 운영하여 중기제품의 홍보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자사 쇼핑몰 구축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수출 기업에 물품 창고보관, 포장, 배송 등을 일괄 지원하는 풀필먼트 지원도 작년보다 확대(1,500→2,500만원) 지원한다.

2. 온라인수출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수출 지원 고도화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수출단계 및 품목에 따른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역전문가 풀을 확대하여 바이어 검증·계약 등을 밀착 지원한다. 이와 함께, B2B플랫폼 내 신기술을 적용하여 기능을 고도화하고, 민관협력 및 홍보강화를 통해 고비즈코리아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3.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다각화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신규 ODA사업인 우간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운영(20억원)을 추진하고, 주요 해외거점의 수출B와 현지 전문기관 및 국내·외 지자체간 협력사업 등을 통해 해외정보 제공, 바이어 매칭, 사후관리까지 일괄 지원한다.

인력양성 및 창업

1. 신기술·신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유망산업 인력양성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한 스마트제조 인력의 직무역량 강화(32억원)를 지원하고, 인공지능 분야 특화 기술교육 및 채용연계 프로그램(27억원)을 운영한다. 또한, 미래유망 분야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미래차(4개), 탄소중립(3개), 지역특화산업(4개), 학위연계(6개) 계약학과를 신설 운영한다.

2.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통한 우수인력 유입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K-기업가정신 함양 및 대국민 인식확산 관련 교육인프라를 확충(이전 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 37억원)하고, 데이터 분석 기반 취업매칭 및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90억원)으로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3. 내일채움공제 확산을 통한 재직근로자 장기재직 유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1년 연장('21→'22년) 및 신규가입 2만명 추가지원 등 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고, 공제가입자에 대한 ESG분야 교육, 휴가비 지원, 복지물 제공 등 교육·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지원한다.

지역산업 혁신

1. 지역별 특화산업 및 혁신거점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협동화자금(1,000억원)을 규제자유특구와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에 연계 지원하고, 지역 정책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스마트혁신지구를 확대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지역균형을 실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618억원) 확대 및 지역기업의 위기극복 컨설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혁신에 앞장설 계획이다.

2. 지역창업 활성화로 지역혁신성장 견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선발·운영 시 지역주력산업, 창업여건 등 지역특성에 맞춘 특화트랙을 신설하고, 데모데이 개최 등을 통해 비수도권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창업기업 선발 규모를 확대(28→42개사)하여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중소기업 新사업 전환 지원

1. 산업구조 전환 대응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의 사업·노동·디지털 전환을 위해 진단에서 후속사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125억원)하는 구조혁신지원센터를 신설(10개소)한다. 전문가를 통한 진단과 컨설팅으로 구조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재정·금융·세제지원 등 후속사업을 연계하여 중소기업 사업·노동·디지털 전환의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재도전 수요확대에 대비한 지원기반 강화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사업규모를 확대(250→350억원)한다. 또한, 재도전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성실경영평가 평가기관을 중소기업입진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우수기업에 재창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재도전 전용트랙을 운영한다.

중소기업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 대응

1. 중소기업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수준진단 기반의 컨설팅, 용자 등 맞춤형정책을 연계하는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조성사업(50억원)을 신규 추진한다. 또한, 컨설팅, 설비도입 등 다각화된 지원을 위해 탄소중립 경영혁신바우처(172억원), 탄소중립전환지원(55억원),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40억원)을 운영한다.

2. 중소기업 ESG경영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및 솔루션 제시

ESG 비대면 자가진단, 심층진단을 통해 ESG경영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목표 15,000개사)을 제시하고,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ESG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민간협업 기반의 ESG 분야별·단계별 경영개선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ESG경영안내서, 우수사례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를 통해 ESG 경영도입 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 Annual Report 2021

부록

- ✓ 결산 재무제표
- ✓ 조직도
- ✓ 운영위원 및 임원
- ✓ 출자회사 현황
- ✓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결산 재무제표

2021년 요약 재정상태표

제 43(당)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42(전)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결산계정과목	제 43(당)기		제 42(전)기	
자산				
I. 유동자산		2,914,682,855,440		2,655,125,622,479
1. 현금및현금성자산		93,709,741,462		40,732,893,860
2. 단기금융상품		31,401,531,201		17,450,714,911
3. 미수채권	12,886,945,629		12,023,148,630	
미수채권대손충당금	910,752,715	11,976,192,914	795,238,991	11,227,909,639
4. 단기대여금	2,851,832,694,779		2,749,905,240,334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112,793,500,530	2,739,039,194,249	209,871,778,799	2,540,033,461,535
5. 기타유동자산		38,556,195,614		45,680,642,534
II. 투자자산		23,355,207,834,018		19,972,189,145,942
1. 장기대여금	19,043,375,849,005		16,653,046,928,650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1,273,384,277,319	17,769,991,571,686	1,142,761,459,299	15,510,285,469,351
2. 장기투자증권		5,552,015,853,321		4,444,173,770,114
3. 기타투자자산		33,200,409,011		17,729,906,477
III. 일반유형자산		329,407,407,451		309,324,724,771
1. 토지		169,002,996,547		146,409,080,319
2. 건물	196,819,334,501		164,390,031,193	
건물감가상각누계액	48,221,837,847	148,597,496,654	39,722,144,450	124,667,886,743
3. 구축물	4,195,484,943		4,145,349,289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593,296,002	3,602,188,941	606,157,181	3,539,192,108
4. 기계장치	18,227,368,832		16,551,807,622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16,003,142,456	2,224,226,376	15,518,319,574	1,033,488,048
5. 집기·비품·차량운반구	28,879,749,566		28,263,506,986	
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23,369,800,633	5,509,948,933	22,240,213,083	6,023,293,903
6.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470,550,000		27,651,783,650
IV. 사회기반시설				

결산계정과목	제 43(당)기		제 42(전)기	
V. 무형자산		10,481,171,466		10,100,672,088
1. 소프트웨어		10,481,171,466		10,100,672,088
VI. 기타비유동자산		26,914,203,420		23,075,256,867
1. 장기미수채권	5,343,449,940		5,395,455,967	
장기미수채권대손충당금	5,343,449,940		5,343,449,940	52,006,027
2.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26,914,203,420		23,023,250,840
자산계		26,636,693,471,795		22,969,815,422,147
부채				
I. 유동부채		3,390,967,055,460		3,714,242,216,976
1. 단기차입금		-		-
2. 유동성장기차입부채		3,329,880,711,706		3,651,286,651,550
3. 기타유동부채		61,086,343,754		62,955,565,426
II. 장기차입부채		18,421,273,665,095		15,674,222,641,419
1. 공채	16,597,473,722,734		13,850,520,073,884	
공채할인발행차금	6,200,057,639	16,591,273,665,095	6,297,432,465	13,844,222,641,419
2. 장기차입금		1,830,000,000,000		1,830,000,000,000
III. 장기충당부채		25,605,255,888		22,843,253,775
1. 퇴직급여충당부채		25,378,300,531		22,387,792,441
2. 기타장기충당부채		226,955,357		455,461,334
IV. 기타비유동부채		196,744,557,044		87,258,304,489
1.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196,744,557,044		87,258,304,489
부채계		22,034,590,533,487		19,498,566,416,659
순자산				
I. 기본순자산		2,057,116,880,141		2,057,116,880,141
II. 적립금 및 잉여금		2,292,963,873,165		1,207,778,299,267
III. 순자산조정		252,022,185,002		206,353,826,080
순자산계		4,602,102,938,308		3,471,249,005,488
부채와순자산계		26,636,693,471,795		22,969,815,422,147

2021년 요약 재정운영표

제 43(당)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42(전)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현재

항목명	제 43(당)기			제 42(전)기		
	당년도총원가	당년도수익	당년도순원가	전년도총원가	전년도수익	전년도순원가
I. 프로그램순원가	1,207,480,264,236	537,425,190,359	670,055,073,877	1,147,533,987,275	403,410,915,238	744,123,072,037
1.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44,797,240,580	1,269,231,147	43,528,009,433	34,818,936,609	1,208,027,347	33,610,909,262
2. 창업환경조성	650,682,088,905	249,214,635,747	401,467,453,158	663,442,950,285	198,316,336,930	465,126,613,355
3. 벤처기업활성화지원	2,092,605,657	1,515,091,409	577,514,248	2,516,257,547	1,455,178,539	1,061,079,008
4. 중소기업성장안전지원	449,142,639,188	283,198,105,030	165,944,534,158	391,609,459,532	200,477,572,559	191,131,886,973
5.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10,955,443,356	1,446,706	10,953,996,650	11,817,409,491	-	11,817,409,491
6. 중소기업육성지원	3,449,832,768	256,225,700	3,193,607,068	3,130,199,059	184,137,799	2,946,061,260
7. 중소기업인력지원	46,360,413,782	1,970,454,620	44,389,959,162	40,198,774,752	1,769,662,064	38,429,112,688
II. 관리운영비			45,960,718,762			37,599,764,476
1. 인건비			32,054,390,761			26,286,130,110
2. 복리후생비			2,864,739,559			2,233,484,755
3. 소모품비			501,819,958			629,451,888
4. 인쇄비			87,262,895			75,711,345
5. 광고선전비			146,949,825			119,810,821
6. 지급수수료			3,609,483,194			2,559,357,915
7. 세금과공과			1,020,979,650			684,297,208
8. 수도광열비			92,601,756			83,959,506
9. 지급보험료			64,493,921			74,771,763
10. 교육훈련비			324,977,977			241,898,764
11. 지급임차료			1,598,193,466			1,447,296,196
12. 유류비			20,256,098			17,050,052
13. 수선유지비			193,338,003			141,281,048

항목명	제 43(당)기			제 42(전)기		
	당년도총원가	당년도수익	당년도순원가	전년도총원가	전년도수익	전년도순원가
14. 여비교통비			539,701,866			493,780,366
15. 업무추진비			249,043,005			224,634,046
16. 감가상각비			2,589,563,254			2,286,848,693
17. 기타비용			2,923,574			0
III. 비배분비용			33,864,272,551			34,237,992,276
1. 재화및용역제공원가			476,021,508			605,416,439
2. 대손상각비			45,488			11,369,797
3. 이자비용			33,272,028,994			33,504,510,373
4. 평가손실			115,148,813			105,596,926
5. 자산감액손실			0			10,336,549
6. 기타비용			1,027,748			762,192
IV. 비배분수익			32,780,092,148			34,145,516,639
1. 재화및용역제공수익			25,512,171,876			27,363,212,371
2. 이자수익			2,208,480,369			4,404,361,876
3. 평가이익			115,153,384			105,653,072
4. 자산처분이익			539,077			13,298,643
5. 기타수익			4,943,747,442			2,258,990,677
V. 재정운영순원가 (I+II+III-IV)			717,099,973,042			781,815,312,150
VI. 비교환수익 등			783,623,546,940			515,306,347,513
1. 제재금수익			2,493,546,940			1,771,904,270
2. 기타재원조달및이전			781,130,000,000			513,534,443,243
VII. 재정운영결과(V-VI)			-66,523,573,898			266,508,964,637

2021년 요약 순자산변동표

제 43(당)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42(전)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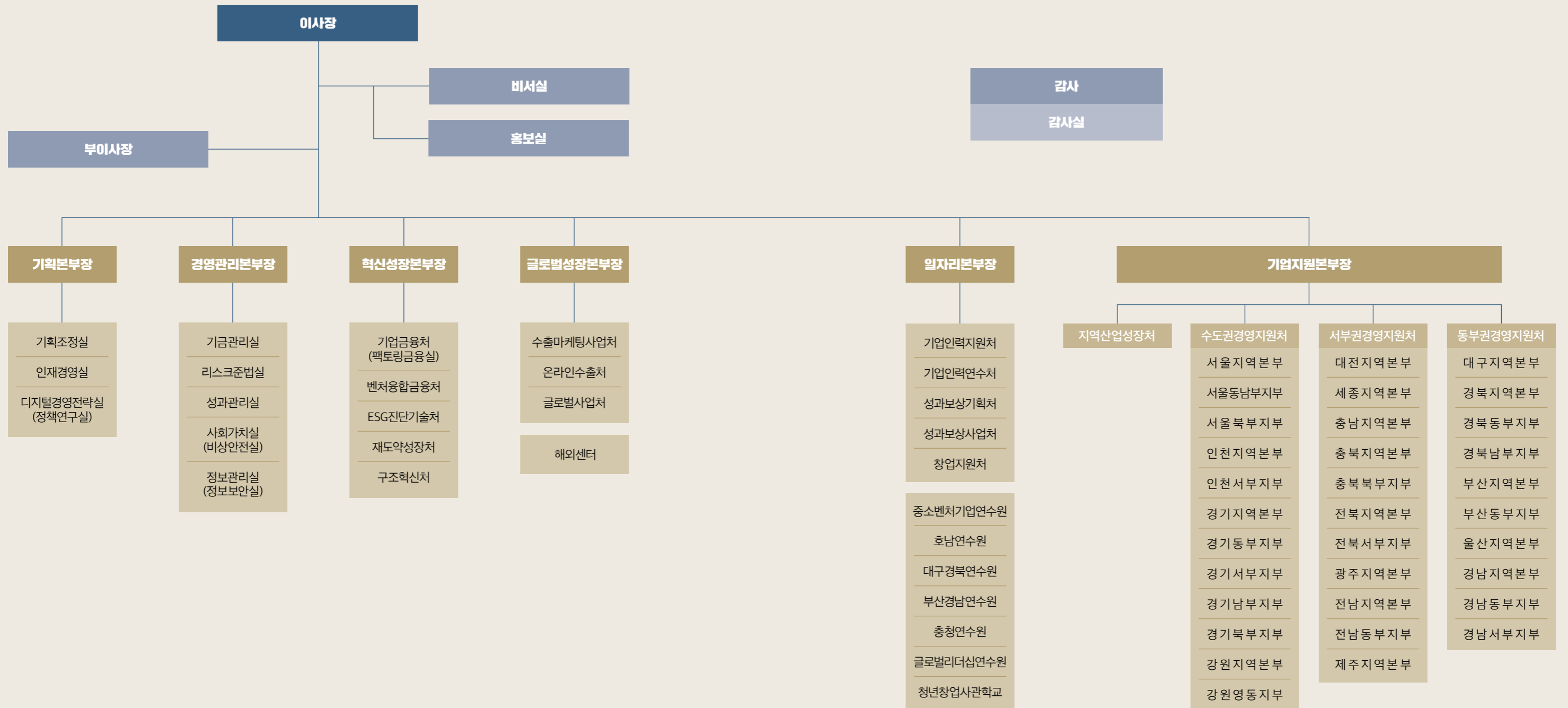
결산계정과목	제 43(당)기			
	기본순자산금액	적립금잉여금액	순자산조정금액	합계금액
I. 기초순자산	2,057,116,880,141	1,207,778,299,267	206,353,826,080	3,471,249,005,488
II. 재정운영결과	-	-66,523,573,898	-	-66,523,573,898
IV. 조정항목	-	1,018,662,000,000	45,668,358,922	1,064,330,358,922
2. 투자증권평가손익	-	-	26,227,514,078	26,227,514,078
3. 파생상품평가손익	-	-	-130,730,581	-130,730,581
4. 자산재평가이익	-	-	19,571,575,425	19,571,575,425
5. 기타순자산의증감	-	1,018,662,000,000	-	1,018,662,000,000
V. 기말순자산	2,057,116,880,141	2,292,963,873,165	252,022,185,002	4,602,102,938,308

결산계정과목	제 42(전)기			
	기본순자산금액	적립금잉여금액	순자산조정금액	합계금액
I. 기초순자산	2,057,116,880,141	513,003,263,904	169,917,827,637	2,740,037,971,682
II. 재정운영결과	-	266,508,964,637	-	266,508,964,637
IV. 조정항목	-	961,284,000,000	36,435,998,443	997,719,998,443
2. 투자증권평가손익	-	-	284,156,300	284,156,300
3. 파생상품평가손익	-	-	6,324,932,590	6,324,932,590
4. 자산재평가이익	-	-	29,826,909,553	29,826,909,553
5. 기타순자산의증감	-	961,284,000,000	-	961,284,000,000
V. 기말순자산	2,057,116,880,141	1,207,778,299,267	206,353,826,080	3,471,249,005,488

조직도

(2022년 4월 기준)

6본부 11실, 16처, 33지역본·지부, 6연수원, 1학교, 1해외센터



운영위원 및 임원

운영위원

(2022년 4월 기준)

구분	성명	소속기관	직위
위원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연직	임기근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위촉직	김봉환	서울대학교	교수
	김분희	(사)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김성노	BNK투자증권	센터장
	김영태	KAIST	교수
	류정원	(주)힐세리온	대표이사
	박정배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조병규	우리은행	부행장

임원

(2022년 3월 기준)

직위	직무	성명
이사장	중진공 업무 총괄	김학도 
감사	중진공의 업무 및 회계 감사	곽성근 
부이사장 겸 기획본부장	이사장 보좌 또는 업무대행, 예산, 조직, 인사, 경영전략 및 조직혁신 등과 관련된 업무	이성희 
경영관리본부장	기금·리스크관리, 조직문화, 성과관리, 정보보안 등과 관련된 업무	김병수 
혁신성장본부장	정책자금 융자, 기업진단, 중소기업 ESG지원, 구조혁신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	최학수 
글로벌성장본부장	중소기업 해외 판로확대, 마케팅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	김문환 
일자리본부장	일자리지원, 연수, 성과보상기금, 창업 등과 관련된 업무	안정근 
기업지원본부장	지역산업혁신, 지역분·지부 운영, 사업집행 관리·조정 및 평가 업무	우영환 

비상임이사

직무	중진공 경영 의사결정 참여, 경영활동 감시 및 자문 등의 업무
성명	김대근, 정송이, 최영기, 최정현, 허정, 허정현, 권영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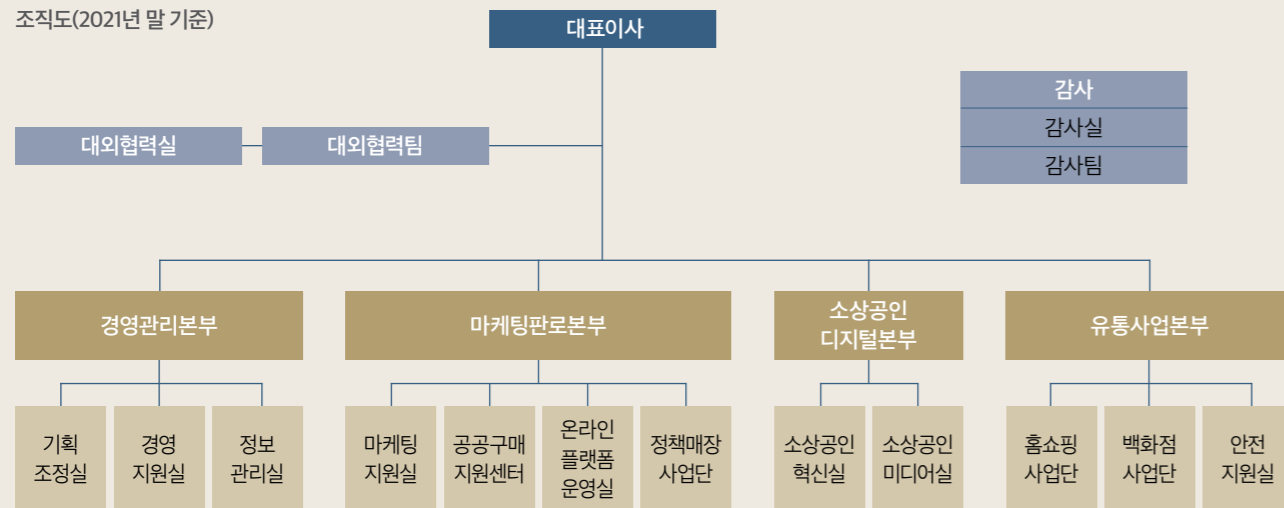
출자회사 현황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중소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의 설립)」에 의거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21일 중진공 전액출자로 설립되었다.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1999년 12월 3일 목동판매장을 개점하여, 2012년 9월에는 ‘행복한백화점’으로 이름을 변경하였으며, 현재까지 창업벤처제품, 청년창업사관학교 제품 등의 초기 테스트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10월에는 창조혁신제품의 ‘유통 마중물’ 역할의 확대를 위해 4층 중소기업전용판매장을 ‘아임소핑’으로 개편하였다. 중소기업전용판매장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여 소비자가 우수 중소기업제품 사용을 더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면세점 위주로 매장을 개편하는 등 판매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2021년에는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인 ‘아임소핑 정책매장’ 총 7개를 운영하여 1,239개사의 제품을 판매·홍보지원하였으며 약 42억원의 매출성과를 달성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채널 확대를 위해 2012년에 중소기업 전용홈쇼핑인 (주)홈앤쇼핑을 설립하여 주요주주(지분 15%)로 참여하고 있다. 2015년 3월에는 농산물 판로확대, 창의·혁신상품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 해소, 불공정거래 개선 등을 위해 농협경제지주, 수협중앙회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주)공영홈쇼핑을 설립하고 최대주주(지분 50%)로써 중소기업 제품의 방송판매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내수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추진하였으며, 온라인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가치샵시다 플랫폼 런칭, 라이브커머스 운영을 신규 추진하였다. 또한 유통망진출지원, 중소기업공동 A/S지원 등 중소기업의 판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공동브랜드개발 및 육성(브랜드)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온·오프라인 판로지원사업을 통해 2021년도에는 41,579개 중소기업에 4,313억원 규모의 판매를 지원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조직도(2021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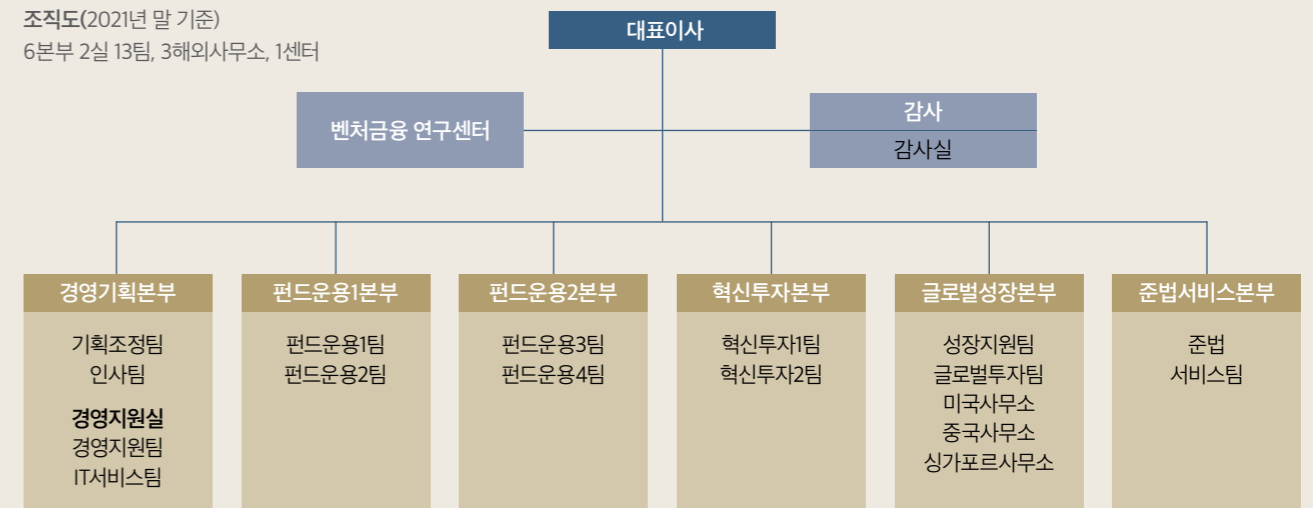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관리·운영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이다. 2000년 3월 31일 중진공 전액출자로 설립되었다.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은 2021년 12월 말 기준 7조 2,775억원이 조성(중기부 포함 10개 부처 참여)되었다. 이를 모태조합에 출자하여, 누적 총 1,015개, 32조9,353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운영 중에 있으며 출자금 대비 4.5배의 승수효과를 달성하였다. 이외에도 한국벤처투자는 유니콘 성장 지원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중진공-KVIC-기보-벤처캐피탈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해외 투자자를 연결할 수 있는 영상 IR을 진행하고, 비대면으로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와 더불어 투자유치 경험이 없는 초기 기업을 위해 벤처투자유치를 다루는 영상콘텐츠 및 투자유치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주요업무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에 대한 출자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조직도(2021년 말 기준)



(주)SBC인증원

인증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ISO9000 인증기관 및 품질경영체제 인증기관이다. 1995년 7월 28일 중진공 전액출자로 설립되었다. SBC인증원은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22001(식품안전경영시스템), TL9000(정보통신분야 품질경영시스템),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22716(화장품) 등의 인증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인증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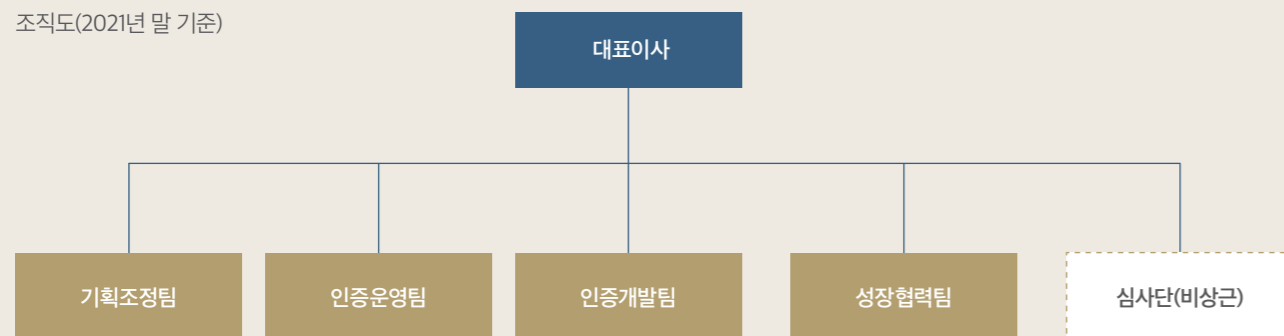
- ISO(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9001/14001/22001**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는 품질경영체제(9001), 환경경영체제(14001), 식품안전경영체제(22001) 규격, 안전보건경영체제(45001) 규격, 부패방지경영체제(37001) 규격
- **TL9000**(Telecommunication Leadership 9000) 정보통신업계의 품질보증 규격

【사업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인증건수	매출액	당기순이익
2019	810	2,319	53
2020	878	2,348	122
2021	882	2,583	204

조직도(2021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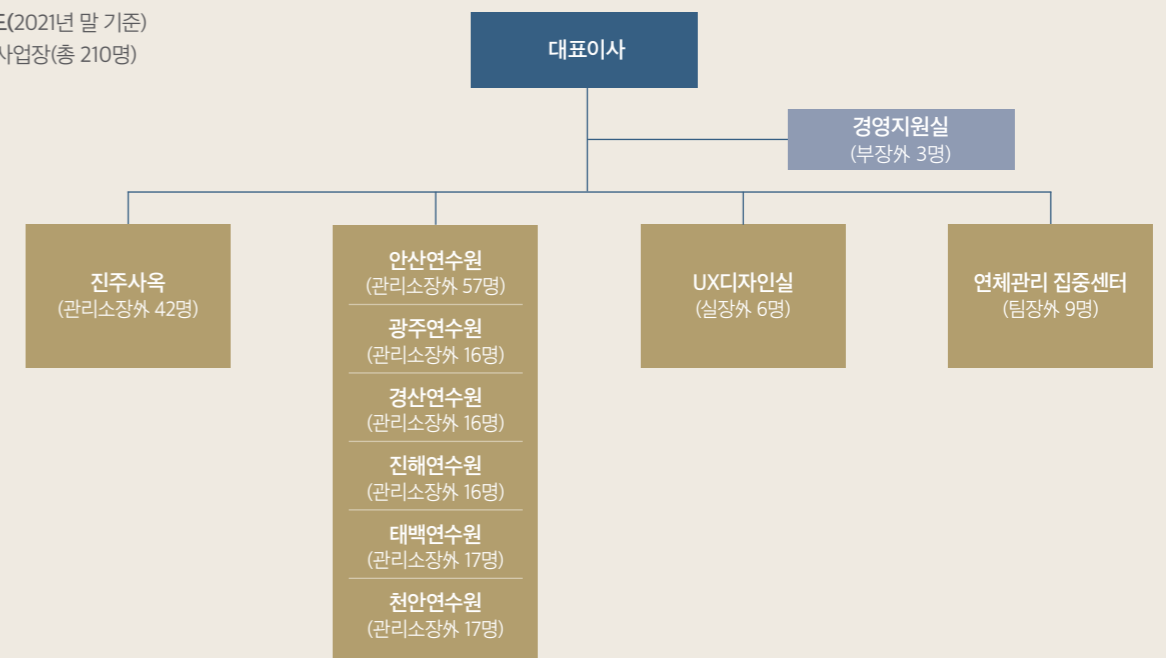
중진공파트너스(주)

중진공파트너스(주)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17.7.20.)에 따라 중진공 내 시설관리 등 일반용역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고, 중진공 자산(설비)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목적으로 2018년 6월 15일 설립되었다.

주요업무

-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사 및 연수원(6개) 시설관리, 경비, 미화, 사감, 기타용역 업무
-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UX디자인실 위탁 운영 업무
- 연체관리 집중센터(콜센터) 운영 용역 업무

조직도(2021년 말 기준)
1실 9사업장(총 210명)



부문별 담당부서 및 집필자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작성부서	담당자
설립목적 및 역할	-	-	정책연구실	이지현
연혁	-	-		
중진공 비전 전략체계	-	-	디지털경영전략실	정하림
중진공 주요 사업	-	-	정책연구실	이지현
2021 한눈에 보는 중진공	-	-		
2021 중진공이 걸어온 길	-	-		
경제 동향과 중소기업 동향	경제동향	-		
	중소벤처기업동향	-		
2021년 사업추진 방향 및 실적	총괄	-		
정책자금	용자지원	1.사업개요	기업금융처	유준오
		2.주요추진실적 및 성과		
		3.세부사업 추진실적		
		혁신창업사업화자금	기업금융처, 창업지원처, ESG진단기술처	유준오, 고선용, 이진수
		신성장기반자금	기업금융처	유준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수출마케팅사업처	박준찬
		재도약지원자금	재도약성장처, 구조혁신처	성종호, 박홍규
	재도전종합지원	재도약성장처	성종호	
	투융자복합금융	1.사업개요	벤처융합금융처	이경윤
		2.주요추진실적 및 성과		
		3.세부사업 추진실적		
		성장공유형대출	벤처융합금융처	이경윤
		스케일업금융		오범석
모태조합 출자		배준원		
기업진단	1.사업개요	ESG진단기술처	권복현	
	2.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작성부서	담당자
글로벌화 및 수출마케팅 지원	수출마케팅 지원	1.사업개요	수출마케팅사업처	우철
		2.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3.세부사업 추진실적		
		수출바우처사업	수출마케팅사업처	정광조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박준찬
		청년글로벌마케터		김동진
	글로벌조달마케터			
	온라인수출 지원	1.사업개요	온라인수출처	최성철
		2.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3.세부사업 추진실적	-	-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온라인수출처	이지영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지원		최성철
		글로벌화 지원	1.사업개요	글로벌사업처
	2.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3.세부사업 추진실적	-		-	
글로벌화지원플랫폼	글로벌사업처		이희준, 김송이	
글로벌협력기반구축사업			김성수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			안호수	
해외지사화사업			이동현	
해외기술교류사업			정준석	
1.사업개요			기업인력지원처	유광욱, 김형록
2.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3.세부사업 추진실적	-	-		
기업인력애로센터	기업인력지원처	김형록, 이성용		
산학연계 인력양성 사업		이연우, 강문석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성과공유		유형민		
연수사업		기업인력연수처	이정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성과보상처	김수중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지원처	고선용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작성부서	담당자
지역산업 혁신	-	1.사업개요	지역산업성장처, ESG진단기술처	이지현, 서태양
		2.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3.세부사업 추진실적	-	-
		지역주력산업 성장촉진 프로젝트	지역산업성장처	이지현
		규제자유특구		
		중소기업혁신바우처사업	지역산업성장처, 재도약성장처	김혜영, 성종호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ESG진단기술처	서태양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고객서비스 향상 및 사회적가치 실현	-	지속경영문화 확산 노력 및 현장 중심 고객서비스 제공	사회가치실	양동준
		청렴과 공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윤리·인권경영 추진		김세원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선도		임보라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애로 발굴·해소	정책연구실	김동민
		중소기업 정보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전문지 발간	홍보실	채준기
조직 경영효율성 강화	-	정부정책 대응과 中企 효과적 지원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기획조정실	김수연
		디지털 전환 등 中企 미래 경제구조 전환 지원성가로 혁신계획 우수 기관 표창	디지털경영전략실	박창현
		중장기 인력육성 체계 마련	인재경영실	박종길
		청년중심 및 사회형평적 채용 강화		박지수
		직무 전문성 제고 및 비대면 교육 확대	성과관리실	이승미, 김민재
		기관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성과 중심 성과관리체계 운영		
신뢰 기반의 상호존중 조직문화 구축	사회가치실	곽의선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작성부서	담당자
2022년 사업추진 방향	-	정책자금	기획조정실	김동현
		글로벌화 및 수출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및 창업		
		지역산업 혁신		
		중소기업 新사업 전환지원		
		중소기업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 대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출자회사 현황	-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수출마케팅사업처	김도훈
		한국벤처투자(주)	벤처융합금융처	배준원
		(주)SBC인증원	ESG진단기술처	노한빈
		중진공파트너스(주)	비상안전실	한만호
		결산 재무제표	-	기금관리실
조직도	-	기획조정실	김수연	
운영위원 및 임원	-		최은경, 조주연	
사진 협조	-	홍보실	이상욱, 양진우, 성미정	
연차보고서 작성 총괄			정책연구실	정병욱, 이지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1 연차보고서

KOSME Annual Report 2021 

발 행 일 2022년 4월
발 행 인 김학도 이사장
발 행 처 중소기업진흥공단
기 획·편 집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연구실
디자인·인쇄 디자인서가 02-735-1711